

김 태 현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자본과  
가족건강성에 관한 연구

201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박 선 민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자본과  
가족건강성에 관한 연구

김 태 현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박 선 민

# 인 준 서

박선민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자본과 가족건강성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사회적자본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자본이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가족건강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과 다문화 가족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 하였다.

연구대상 선정을 위해서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임의 선정하여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분석에서는 총 311부가 회수되어 빈도와 백분율, 평균,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t검증, 중다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등이 실시되었다. 이상의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에 의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 실태를 보면 신뢰에 있어 개인적 신뢰, 사회적 신뢰, 제도적 신뢰에서 모두 중간 정도의 점수를 보였으며, 개인적 신뢰의 경우 친정가족에 대한 신뢰 정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시댁 가족, 본국친구, 직장동료, 이웃의 순으로 높았다.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정도는 낯선 한국인, 낯선 외국인 구분 없이 모두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신뢰는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았으며, 의사, 경찰관, 대학교수, 법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제도적 신뢰는 ‘다문화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에서 가장 높은 신뢰 수준을 보였으며, 이어서 ‘다문화정책결정의 국민의 사반영’, ‘다문화정책 결정 절차의 합리성’이 그 뒤를 이었다.

네트워크에서는 가족·친척으로부터 ‘집안에 결혼이나 상례 등의 경조사가 있을 때’, ‘집안에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가장 많은 도움 및 상담을 받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 본국친구로 부터는 ‘일상적인 사소한 문제나 고민의 대화 상대가 필요할 때’, ‘개인적으로 심각한 고민이나 문제 상담이 필요할 때’ 주로 도움 및 상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웃과 자조모임으로부터는 ‘집안에 결혼이나 상례 등의 경조사가 있을 때’ 가장 도움 및 상담을 받는 다고 응답하였으나 대다수의 경우 도움을 받은 것보다 못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이웃과 자조모임에 대한 네트워크 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참여에 있어 ‘취미·문화·학술 모임’에 대한 단체 참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도에 있어서는 ‘한국어 교실’이 가장 높았으며, ‘생활 체험’,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의 점수는 평균 3.63점으로 가족건강성이 높지 않게 나타났다. 가족건강성의 하위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가족원간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점수가 가장 높고,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 점수가 가장 낮았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사회적 자본 및 가족건강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개인적 신뢰는 연령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30~39세 집단이 20~29세 집단 보다 더 개인적 신뢰가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신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연령, 교육수준, 종교, 자녀수, 출신국, 결혼기간, 월평균소득, 직업유무였다. 즉, 연령이 20~39세 집단이 40세 이상 집단 보다 사회적 신뢰가 높았고, 교육수준이 1~9년인 집단이 10~20년인 집단 보다 사회적 신뢰가 높았다. 또한, 종교가 통일교인 집단이 다른 종교집단 보다 사회적 신뢰가 낮았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수 1명, 자녀수가 3명 이상 집단의 순으로 사회적 신뢰가 높았다. 그리고 출신국이 일본인 경우 다른 국가집단 보다 사회적 신뢰가 낮았고, 결혼기간이 1~5

년 집단이 16년 이상 집단 보다 사회적 신뢰가 높았다. 월평균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 보다 사회적 신뢰가 높았으며, 직업이 없는 경우가 직업이 있는 경우 보다 사회적 신뢰가 더 높았다.

제도적 신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연령, 교육수준, 종교, 자녀수, 출신국, 결혼기간이었다. 즉, 연령은 20~39세 집단이 40세 이상인 집단보다 제도적 신뢰가 높았고, 교육수준이 1~15년인 집단이 16~20년 집단 보다 제도적 신뢰가 높았다. 또한, 종교가 통일교인 경우 기타 종교 집단 보다 제도적 신뢰가 낮았으며,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없음·자녀수1~2명 집단 보다 제도적 신뢰가 낮았다. 그리고 출신국이 필리핀, 중국·베트남·기타 국가 집단, 일본의 순으로 제도적 신뢰가 높았고, 결혼기간이 1~5년, 11~15년, 16년 이상 집단의 순으로 제도적 신뢰가 높았다.

네트워크 중 가족·친척의 도움 및 상담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직업유무와 월평균소득에서 나타났으며 직업이 없는 경우가 직업이 있는 경우 보다 가족·친척의 도움 및 상담 정도가 높았고,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 보다 가족·친척의 도움 및 상담정도가 높았다.

본국친구의 도움 및 상담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연령과 출신국, 결혼기간, 월평균소득, 직업유무였다. 구체적으로 연령은 30~39세 집단이 20~29세, 40세 집단 보다 본국친구의 도움 및 상담을 더 받았고, 출신국이 기타 국가인 경우 중국·일본·베트남·필리핀 집단 보다 본국친구의 도움 및 상담을 더 받았다. 또한, 결혼기간이 6~10년 집단이 16년이상 집단 보다 본국친구의 도움 및 상담을 더 받았고, 월평균소득이 없을 때 소득이 있는 경우 보다 본국친구의 도움 및 상담을 더 받았다. 그리고 직업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 보다 본국친구의 도움 및 상담을 더 받았다.

이웃의 도움 및 상담정도에서는 결혼기간에서만 유의성을 보였으나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조모임의 도움 및 상담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연령, 종교,

자녀수, 출신국, 결혼기간, 월평균소득, 직업유무였다. 구체적으로 연령은 30~40세 이상 집단이 20~29세 집단 보다 자조모임으로부터 도움 및 상담을 더 받았고, 종교가 통일교인 경우 무교·개신교·카톨릭·불교인 집단 보다 자조모임으로부터 도움 및 상담을 더 받았다. 또한, 자녀수가 2명인 집단이 1명인 집단 보다 자조모임으로부터 도움 및 상담을 주로 받았고, 출신국이 일본과 기타 국가의 경우 중국·베트남·필리핀 집단 보다 자조모임의 도움 및 상담을 더 받았다. 그리고 결혼기간이 11~15년 집단이 1~5년 집단보다 자조모임의 도움 및 상담을 더 받았고, 직업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 보다 자조모임으로부터 도움 및 상담을 더 받았다.

참여 중 단체참여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출신국과 월평균소득, 직업유무에서였으며 출신국이 필리핀인 경우 중국·일본·베트남·기타 국가 집단 보다 단체참여도가 높았으며, 월평균소득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 보다 단체참여도가 높았다. 또한, 직업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 보다 단체 참여도가 높았다. 프로그램참여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종교, 출신국, 결혼기간, 월평균소득에서 나타났으며 종교가 카톨릭·기타 종교 집단인 경우 무교·불교·통일교 집단 보다 프로그램참여도가 높았고, 출신국이 필리핀 집단, 기타 국가 집단, 중국·일본 집단의 순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가 높았다. 또한, 결혼기간이 1~15년이 16년 이상 집단 보다 프로그램참여도가 높았고, 월평균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 보다 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았다.

다음으로 가족건강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연령, 교육수준, 종교, 자녀수, 출신국, 결혼기간, 월평균소득, 직업유무였다. 즉, 연령이 20~39세 집단이 40세 이상 집단 보다 가족건강성이 높았고, 교육수준에 있어 1~9년 집단이 10~15년 집단 보다 가족건강성이 높았다. 또한, 종교가 개신교 집단이 통일교 집단 보다 가족건강성이 높았으며, 자녀가 없는 집단이 자녀수 3명이상 집단 보다 가족건강성이 높았다. 그리고 출신국은 일본이 다른

국가 보다 가족건강성이 낮았고, 결혼기간이 1~10년이 11~16년 이상 집단보다 가족건강성이 높았다. 월평균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 보다 가족건강성이 높았으며, 직업이 없는 경우가 직업이 있는 경우 보다 가족건강성이 높았다.

셋째, 사회적 자본 중 가족건강성 차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것은 개인적 신뢰, 사회적 신뢰, 제도적 신뢰였다. 즉, 개인적 신뢰, 사회적 신뢰, 제도적 신뢰의 수준이 평균 이상인 집단에서 가족건강성이 더 높았다.

넷째, 사회적자본이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개인적 신뢰와 제도적 신뢰가 높고, 가족·친척과 본국친구의 도움 및 상담정도가 높을 때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둘러싼 친정가족, 시댁가족, 본국친구, 직장동료, 이웃 등의 개인들에 대한 개인적 신뢰를 높이고, 다문화 가족정책에 대한 제도적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족과 친척 그리고 본국친구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지 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진 중요한 자원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의 측면을 인식하여 보다 폭넓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을 이해 할 수 있고, 사회적 자본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가족건강성, 사회적 자본(신뢰, 네트워크, 참여)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1
1.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9
II. 이론적 배경	10
1. 여성결혼이민자의 개념 및 현황	10
1) 여성결혼이민자의 개념	10
2) 국내의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11
2. 사회적 자본	15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15
2)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21
3. 가족건강성	29
1) 가족건강성의 개념	29
2) 가족건강성의 특성	32
3) 가족건강성 관련 연구	36
4.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과 가족건강성	38
1)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 관련 연구	38
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과 가족건강성 관련 연구	40
5. 국내의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	47

<b>Ⅲ.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b> .....	55
1. 연구모형 .....	55
2. 연구문제 .....	56
3. 용어의 정의 .....	57
<b>Ⅳ. 연구방법 및 절차</b> .....	58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	58
2. 측정도구 .....	62
3. 자료의 분석방법 .....	70
<b>Ⅴ. 연구결과 및 해석</b> .....	71
1. 사회적 자본 및 가족건강성의 실태 .....	71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사회적 자본 및 가족건강성 .....	84
3. 사회적 자본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 및 영향 .....	91
<b>Ⅵ. 결론 및 논의</b> .....	97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 표 목 차

<표-1> 연도별 국제결혼 추이 .....	14
<표-2> 국적별 여성결혼이민자 규모 .....	14
<표-3> 학자별 사회적 자본의 정의 .....	21
<표-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61
<표-5> 측정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	69
<표-6> 개인적 신뢰의 일반적 경향 .....	72
<표-7> 사회적 신뢰의 일반적 경향 .....	73
<표-8> 제도적 신뢰의 일반적 경향 .....	74
<표-9> 가족·친척 및 본국친구를 통한 네트워크의 일반적 경향 .....	76
<표-10> 이웃 및 자조모임을 통한 네트워크의 일반적 경향 .....	78
<표-11> 단체 참여도의 일반적 경향 .....	79
<표-12> 프로그램 참여도의 일반적 경향 .....	81
<표-13> 가족건강성의 일반적 경향 .....	83
<표-14>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 .....	88
<표-15> 사회적 자본의 차이에 따른 가족건강성 차이 .....	92
<표-16>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 영향요인 분석결과 .....	96

## 그 립 목 차

<그림-1> 연구모형 .....	55
-------------------	----

# I. 서론

##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사회는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이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은 지난 10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9년 전체결혼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10.8%로 결혼하는 부부 10쌍 중 1쌍이 국제결혼 부부이다. 특히 국제결혼 중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신부의 결혼비율은 2000년 59.8%에서 2009년 75.5%로 증가하여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 2010).

그렇다면 이러한 원인에 의해 유입된 여성결혼이민자와 그들의 가족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지에 대해 주목하게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수준에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게 드러났으며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소지자인 여성 결혼이민자 중 51%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부부간 교육수준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가 살고 있는 경제수준도 월수입 100~200만 원 미만이 38.4%, 100만 원 미만이 21.3%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녀양육의 어려움으로 보육료 및 사교육비, 학습지도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그리고 실제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여성의 언어 문제(22.5%), 경제 문제(21.1%), 자녀문제(14.2%)의 순으로 호소하였다(김승권·김유경·조애저·김혜련·이혜경·설동훈·정기선·심인선, 2009).

이렇게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생활은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 극단적으로 매년 이혼율 상승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2010)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이 이혼하는 비율이 2006년 3,933건, 2007년 5,707건, 2008년 7,962건, 2009년 8,300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남편의 이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들 가족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들의 가족 안정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가족의 건강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여성결혼이민자와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생활실태 조사와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홍순숙, 2006; 이해경, 2005; 김현숙, 2008; 설동훈 외, 2006)이 게재되었고, 부부간의 갈등(김오남, 2006; 신경희, 2005; 이규삼, 2000) 및 여성폭력(정예리, 2011; 정현미, 2010; 오세연·곽영길, 2010; 전미선, 2009)의 문제 등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경험하는 가족 내의 어려움과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둔 연구들이 있어왔다. 반면, 이들이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살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결혼에 대한 만족이나 행복감에 관한 연구들도 일부 진행되고 있다(박정숙 외, 2007; 소은덕, 2006; 표현영, 2004).

이상의 연구들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처한 생활 실태나 가족문제에 대해 알 수 있고, 자신의 결혼생활에서 지각하는 만족이나 이와 관련한 영향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으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들이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가족의 긍정적인 측면과 그와 관련된 영향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건강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그들 자신과 가족의 강점 및 자원을 찾게 함으로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건강성을 지원해야 할 한국사회의 이주정책은 어떠한가?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이주정책은 다문화가족정책과 체류자격으로부터 살펴 볼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남편과의 결혼

을 통해 배우자 비자(F2)를 취득하며, 2 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남편의 승인 하에 간이 귀화할 자격이 주어진다. 2년 동안 남편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남편 없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이상, 여성결혼이민자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할 위험에 놓여있다. 즉, 한국의 법제도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한국사회의 정상가족을 유지하는 조건 하에 가사노동을 하고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역할만을 기대한다. 그러므로 현 정책과 서비스는 ‘다문화’를 내걸고 문화적 다양성을 민주적으로 인정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 한국어교육, 한국 전통문화 이해교육, 자녀 학습지원 및 서비스 등 동화주의 식 프로그램들에 치중되어 있다(김민경, 2011).

이는 여성결혼이민자를 가족 내 가부장적 성역할 수행과 불안정한 법적 신분으로 위치지움으로써 수동적인 존재로 위치하게 한다. 나아가,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모든 사회정책의 성주류화를 접목하고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통해 성 평등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여성·가족 정책과는 배치되어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여성결혼이민자가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하는데 많은 정책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으로의 이주는 1990년 이래 계속되고 있고 한국에서 배우자와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며 본국친구들과 출신국 네트워크와 접촉하면서 가족과 지역사회, 제도적인 정책 등에 관계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출신국의 사회적 관계를 일시적으로 단절하고 결혼과 동시에 국가 간 이동을 통해 이주국의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특수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결혼을 목적으로 한 사전 탐색이나 관찰, 적응기간 없이 만남과 동시에 결혼하기 때문에(보건복지부, 2005), 원천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2007)의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 내 국제결혼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이웃과의 교류 및 상호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식하였고 이주여성의 12.3%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보고하였으며, 김나영

(2007)은 한국에서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식한 사람은 16.4%였다고 보고하고 있어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자본이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Bourdieu(1986), Coleman(1988), Putnam(1993, 1995) 등에 의해 개념화된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최근 다문화가족연구 분야에서도 그 유용성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가족이나 친척, 이웃과 같은 공동체의 개인들에게 소속감이나 정체성 그리고 결속력을 제공해 주는 효율적인 장치로 인식되며(유현숙, 2005), 주어진 구조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촉진하며 다른 형태의 자본과 마찬가지로 생산적이다(Coleman, 1988; 유현숙, 2005).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이 그들의 결혼만족도나 생활만족도와 관계가 높으며, 사회적 자본이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고(장지혜, 2007; 김민경, 2011), 가족건강성에 결혼만족도나 생활만족도가 중요한 영향변인임을 검증한 연구(강수정, 2010); 최정혜, 2006)등을 통해 보았을 때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이 그들의 가족건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주목하게 한다.

그동안 사회적 자본과 유사한 개념인 사회적 지지 및 사회관계와 관련한 연구들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과 가족건강성의 관계에 대해 유추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위기 상황 속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유무와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삶의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Lin 외 2001; 박미정·엄명용, 2009). 구체적으로 몇몇 연구들에서는 국경을 넘어 본국 가족과 친족 간의 유대관계가 주요한 사회적 지지 자원임

을 밝혔다(장지혜, 2007; 이운효, 2006). 또한, 가족 내 유대관계를 통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의 밀도가 긴밀할수록 생활만족감이 높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장지혜, 2007; 최경숙, 2006; 박미정·엄명용, 2009). 특히, 가족구성원 중 시어머니와 남편의 사회적 지지는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김나영, 2007; 장지혜, 2007; 최경숙, 2006).

아울러, 장은애(2010)는 지역사회 내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이웃은 가족과 친구 다음으로 접근성이 높은 사회관계이다. 관련하여 이웃과의 사회적 지지가 아닌 부정적 상호작용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활동을 다룸으로써 한국사회의 성원으로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실태를 드러낸 연구들도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의 형태로 취업활동, 사회활동, 여가활동, 자원활동 등으로 분류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김나영, 2007; 양순미·최규홍·강경하, 2009).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들은 여성결혼이민자를 둘러싼 사회관계 및 사회적 지지가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유추할 수 있으며 그들의 생활 만족을 통해 자신이 속한 가족의 건강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들(김민경, 2011; 장지혜, 2007; 이운효, 2006)이 일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운효(2006)는 베트남 이주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친척 가족, 시댁 가족, 친구 등 사적 네트워크와 한국인 이웃과 베트남 이웃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정기적 참여단체 또는 모임유무, 남편·친정·시댁가족·자녀·친구·이웃에 따른 신뢰를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삼았다. 그의 연구에서는 친정, 시댁 가족과 더불어

베트남 친구와 베트남 이웃과의 연결망이 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고 밝혔다.

장지혜(2007)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자본과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가족과 본국 가족과 친족 네트워크, 이웃, 정기 모임 등 가족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생활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가족구성원 간 상호작용이며, 가족과 연고 중심의 폐쇄적인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김민경(2011)은 사회적 자본을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직장 내 사회적 자본, 사회 내 사회적 자본으로 구성하여 살펴 본 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인 자녀교육에 많이 개입 할수록, 직장 내 사회적 자본인 상사와의 관계가 돈독할수록 삶의 질이 높으며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력이 높고, 자녀수가 적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을 때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연구들은 가족, 친구, 이웃, 사회서비스 실무자 등 대부분 사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을 분석하는데 치중하여 사회적 지지, 사회적 관계망 개념으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였다. 이 개념들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지원 대상'임을 전제로, 특정한 지지와 지지를 주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개입하고자 하며, 클라이언트 개인에게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사회적 자본을 고찰하였다(한상미, 2007).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는 미래 자원을 위한 관계의 투자로서 상호작용과 관계에 초점을 두는 반면,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해 개입하여 망을 형성하고자 하며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개인 간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는 차이가 있다(정연택, 2003).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최근 등재되고 있으나, 사회적 자본의 포괄적인 개념에 비해 가족과 지역사회의 공식적·비공식적 모임의 참여에 한하여 파악하였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는

가족 이외에 사회 구성원이며 다문화 정책 등에 이미 접촉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를 둘러싼 개인·사회·다문화정책에 대한 신뢰와 그들에게 필요한 네트워크, 단체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등 사회적 자본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과 가족건강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몇몇의 연구에서 가족건강성이 높을 때 자녀의 사회적 활동성과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하였고(배지영, 2010), 한국어수준이 높을수록 적응유연성과 결혼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가족건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볼 수 있었다(전혜정 외, 2009). 그러나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여성결혼이민자 개인에게나 자녀를 키움에 있어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가족건강성에 대한 보다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며 배우자 지지 외에 주변의 부족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신뢰와 참여를 비롯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어려우며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건강성을 형성하기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자본과 가족 건강성을 연계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그동안 간과되어온 사회적 자본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변인 탐색과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진 중요한 자원으로서의 사회적 자원의 측면을 인식하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자본과 가족건강성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을 보다 폭넓게 이해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사회적 자본이론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그동안의 연구 결과에 대한 재해석 및 재평가를 가능케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논의의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자본이 갖는 다양한 효과를 밝히는 일은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

회통합을 위한 정책마련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과 가족건강성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자본이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혀내어,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건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자본과 가족건강성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가족건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예측해 보고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한 사회통합과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자본과 가족건강성의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인구학적배경을 통해 사회적 자본 및 가족건강성의 차이를 규명해 봄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을 심도있게 이해한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건강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 Ⅱ . 이론적 배경

### 1. 여성결혼이민자의 개념 및 현황

#### 1) 여성결혼이민자의 개념

세계화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의 유입과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확산, 탈북동포들의 한국사회 유입으로 인한 다문화 사회라는 새로운 사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된 새로운 개념과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초 농촌의 성비불균형으로 인하여 혼인 적령기를 놓쳐버린 농촌총각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동포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주선된 이래 2008년 5월 현재 한국남성과의 국제결혼을 통하여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여성의 수는 107,799명에 이르게 되었고, 초기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던 국제결혼은 이제 농촌은 물론 대도시지역에서도 일반적인 결혼 형태의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렇게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한국으로 이주하는 이들 여성들은 국제결혼 외국인여성, 결혼 이주여성 또는 외국인 여성배우자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었으나 2006년에 이르러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호칭을 여성결혼이민자라고 정리하였다.

국내 인권단체에서는 이주여성이란 표현을 흔히 사용하고 있으나 이주 여성은 ①여성 이주 노동자, ②여성결혼이민자, ③성매매 종사 외국인(또는 이민자), ④국제적 인신매매 피해 여성을 아우르는 복합 개념이므로(설동훈 외, 2005), 국제결혼가정 이주여성을 지칭하는 용어로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대립쌍인 남성 결혼이민자를 국제결혼 이주남성이라 표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용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년 4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된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 방안”에서 국제 용례를 따라

결혼이민자라는 용어의 사용이 제안되었다(보건복지부, 2005).

또한 결혼 이민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공식적인 이민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 사회에 실질적 이민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이들이 한국 국민으로 한국 사회에 편입되어 있는 현실을 강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한건수, 2006).

그러나 최근 한국의 상황에서는 결혼을 통해 한국에 온 외국인 배우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에 따라 결혼의 성격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성별이 구분되는 용어가 보다 적합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2006년 4월 26일 범정부적 차원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에서 밝힌 데로 '한국남성과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 정착할 목적으로 이주해온 외국인 여성'을 뜻하는 개념으로 여성결혼이민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 2) 국내의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건수는 1994년까지는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다수를 이루었으나, 1995년 이후에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이 훨씬 많아졌다(한건수, 2006). 2002년부터 급증한 국제결혼 건수는 2004년 이후부터 전체 결혼 건수의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 신혼부부 10쌍 가운데 1쌍이 다문화 가정을 꾸릴 정도로 국제결혼이 보편화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족의 비율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국제결혼 중 가장 큰 비중은 한국인과 중국인의 결혼이다. 1990년대 초기부터 시작된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운동을 시작으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농촌이 초고령사회에 접어드는 현실에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농촌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결혼이민자 중 55%는 서울·경기지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남지방에는 20%의 결혼이민자가 살고 있고 호남에는 10%의 이민

자가 살고 있다(매일경제 2010. 4. 27.). 또한, 전체 결혼대비 국제결혼이 2005년에 13.5%로 정점에 이르렀으나 2006년부터 소폭의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통계청,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제결혼이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계속 이어질 것이며 따라서 향후 다문화 가정이 보다 늘어날 것이라 전망하였다.

우리나라 총 혼인건수 대비 외국인과의 혼인과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국제결혼의 추이는 <표-1>에 제시되었다. 국제결혼은 우리나라 총 혼인건수 대비 1990년대에 비해 10배 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부터 소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 총 혼인건수는 326,104건이고, 그중 한국 남성과 외국여성의 혼인은 총 26,274건으로 총 혼인건수 대비 국제결혼 구성비는 10.5%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증감률은 2003년 최대에 이르고, 2006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 전반적인 혼인율에 비하면 감소폭이 적은편이다. 전체 결혼이민자 중 여성결혼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76.7%이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통계청, 2010).

<표-2>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의 국적별 규모를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2005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에서 온 이주여성의 숫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베트남, 필리핀, 일본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중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이 전체의 80.5%정도를 차지한다. 최근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을 잠정 금지한 캄보디아 출신도 1,205명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숫자가 2007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2008~2010년에 감소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결혼중개업을 금지하고 있는 캄보디아 정부에서 자국민과 한국인의 결혼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결혼관련 제도를 정비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필리핀, 베트남, 러시아와 몽골출신 여성들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이들이 순종적이며, 외모와 부자유한 의사소통으로 이동상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국내 농촌총각과 재혼을 원하는 고령층의 남성들이 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고 하였다(신경희, 2005).

이상과 같이 통계청(2010)의 자료를 통해 연도별 국제결혼의 추세와 국적별 여성결혼이민 현황을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료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출신국의 건수가 높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기타 국가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1> 연도별 국제결혼 추이

연도	총 혼인건수	국제결혼		한국남성+외국여성			한국여성+외국남성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잔년대비 증감률	건수	구성비	잔년대비 증감률
1990	399,312	4,710	1.2	619	0.2	-	4,091	1.0	-
1995	398,484	13,494	3.4	10,365	2.6	237.4	3,129	0.8	-11.7
2000	332,090	11,605	3.5	6,945	2.1	29.3	4,660	1.4	4.6
2001	318,407	14,523	4.6	9,684	3.0	39.4	4,839	1.5	3.8
2002	304,877	15,202	5.0	10,698	3.5	10.5	4,504	1.5	-6.9
2003	302,503	24,776	8.2	18,751	6.2	75.3	6,025	1.9	33.8
2004	308,503	34,640	11.2	25,105	8.1	33.9	9,535	3.1	58.3
2005	314,304	42,356	13.5	30,719	9.8	22.4	11,637	3.7	22.0
2006	330,634	38,759	11.7	29,665	8.9	-3.4	9,094	2.8	-21.9
2007	343,559	37,560	10.9	28,580	8.3	-3.7	8,980	2.6	-1.3
2008	327,715	36,204	11.0	28,163	8.6	-1.5	8,041	2.5	-10.5
2009	309,759	33,300	10.8	25,142	8.1	-10.7	8,158	2.6	1.4
2010	326,104	34,235	10.5	26,274	8.1	4.5	7,961	2.4	-2.4

출처: 통계청(2010)인구동태통계연보

<표-2> 국적별 여성결혼이민자 규모

(단위: 건)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제결혼 총건수	14,523	15,202	24,776	34,640	42,356	38,759	37,560	36,204	33,300	34,235
한국남자+외국여자	9,684	10,698	18,751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25,142	26,274
중국	6,977	7,023	13,347	18,489	20,582	14,566	14,484	13,203	11,364	9,623
베트남	134	474	1,402	2,461	5,822	10,128	6,610	8,282	7,249	9,623
필리핀	502	838	928	947	980	1,117	1,497	1,857	1,643	1,906
일본	701	690	844	809	883	1,045	1,206	1,162	1,140	1,193
캄보디아	-	2	19	72	157	394	1,804	659	851	1,205
태국	182	327	345	324	266	271	524	633	496	438
미국	118	267	322	341	285	331	376	344	416	428
몽골	66	194	320	504	561	594	745	521	386	326
기타	1,004	883	1,224	1,158	1,183	1,219	1,334	1,502	1,597	1,532

출처: 통계청(2010)인구동태통계연보

## 2. 사회적 자본

###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사회적 자본 개념은 최근 약 10년 동안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등 다양한 사회 과학 분야에서 인기 있는 연구주제로 부상하여 사회적 자본에 대한 많은 학술적 연구가 이어져 왔다. 사회적 자본이 사회과학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배경에는 시민참여, 개인 간의 신뢰, 집합행동 등의 개념들을 개인, 지역 사회, 조직, 국가 등 여러 층위에서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주목받았기 때문이다(Rohe, 2004; 김민경, 2011 재인용).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방대하므로 명확하게 정의내리기 쉽지 않다. 하지만 사회적 자본의 개념에 대해 공통적으로 합의하는 세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사회적 자본은 개인만의 소유제가 아니라 사회적 자본 내 속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하는 집합체이다. 둘째, 사회적 자본은 행위자마다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존속에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 이를 공유하는 행위자 별로 동원되는 자본의 크기와 그로 인한 도구적 효과(취업정보, 승진, 정서적 안정 등)가 다르다. 셋째, 사회적 자본은 호혜성(reciprocity)에 기초한다. 이러한 잠재적 보상에 대한 기대는 물질, 탈물질적인 것까지 포괄하며 행위자가 투입한 노력이 미래에 되돌려 받는다는 긍정적인 보상 심리를 전제한다(Bourdieu, 1986; Coleman, 1988; Portes, 1998; Putnam, 2003; Lin, 2001).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기존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룬 사회네트워크나 사회적 지지와 유사해 보이지만, 네 가지 점에서 구별된다. 즉, 첫째, 사회네트워크는 ‘현재’를 전제로 사회관계의 기능이나 구조에 관심을 갖지만 사회적 자본은 ‘미래’를 감안하여 투자하는 관계에 초점을 둔다. 둘째, 사회네트워크나 사회적 지지는 사회관계 내 구조와 기능에, 사회적 자본은 개인과 개인이 주고받는 상호작용과 형성과정에 관심을 갖는다. 셋째, 사회네트워크나

사회적 지지는 사회관계를 통해 개별 행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지만, 사회적 자본은 사회관계를 통해 발생하는 집합적인 효과와 목적에 관심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실천에서 사회네트워크는 기관, 업무 중심의 공식적 업무 연계를 의미하지만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또는 집단 간의 공식, 비공식적인 상호작용까지 포괄한다(한상미, 2007).

그러므로 사회적 자본은 여성결혼이민자를 ‘수혜자’가 아닌 ‘행위자’로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한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관계는 물론, 여성결혼이민자와 연계된 선주민, 지원단체, 학교,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관계성을 두루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관계의 형성에 있어 사회구조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검토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을 정의하기 위하여 몇몇 대표 학자들의 개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는 최초로 Hanifan(1916)에 의해 다루어 졌다. 그는 사회적 자본을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유형의 실체, 예를 들면 사회 단위를 구성하는 개인과 가족들 사이의 호의, 동료애, 동정심, 사회적 교섭 같은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개인들이 홀로 고립되면 사회적으로 속수무책이므로 한 사람이 자신의 이웃과 접촉하고,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이웃들과 접촉하는 식으로 계속 확대하면 사회적 자본이 축적될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자본으로 인해 개인의 사회적 욕구는 즉각 충족될 수 있으며, 공동체 전체의 생활조건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에 충분한 사회적 잠재력을 갖게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Hanifan의 사회적 자본 개념은 그 이후의 사실상 모든 중요한 요소들을 전부 포함하고 있었는데도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Putnam, 2009).

그 후 사회적 자본은 Jacobs, Bourdieu와 Loury 등에 의해서 처음으로 확인되었으며, Coleman, Burt, Putnam, Portes 등에 의해 보다 광범위하게 발전되었다(Woolcock, 1998).

먼저 Bourdieu(1986)는 사회적 자본을 ‘제도화되었건 혹은 제도화되지 않았건 상호 면식이 있어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연결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Bourdieu는 “특정한 행위자가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양은 자신이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규모와 또한 그 연결망에 포함된 여러 개인이 소유한 자본의 크기에 달려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Bourdieu, 1986; 유현숙, 2005 재인용). 현실 속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규정의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니며 또한 모든 인간관계의 속성이 상대방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와 지식으로 인해 기회주의적 행동을 취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 교환과 거래, 상호작용 등은 서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미 서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친밀한 개인들 사이에서 발생한다(Bourdieu & Wacquant, 1992).

한편 Coleman은 사회적 자본을 그 자체로 접근하기 보다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효과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Field, 2003). 그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조적인 맥락에서 기능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회구조의 한 측면으로서 그 구조내의 행위자들의 행동을 촉진하고 다른 자본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존재 없이는 불가능한 목적의 달성을 가능케 하는 생산적인 기능을 가지며,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에 내재되어 있다”고 정의되었다.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물리적 자본, 재정자본, 인적 자본 등과 동등한 위치에서 소개하였으며, 다른 자본과 달리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의 특성에 주목하였다. 즉, 사회적 자본은 신뢰나 규범을 공유하는 집단인 가족관계 내에, 그리고 지역사회 등에 내재하는 자원이다. 특히 발달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완충(buffering)과 완화(resiliency) 등의 개념과 제도적 자원, 사회관계망 등의 사회학적 개념을 연결한 Coleman의 통합적 이론은 사회적 유대가 강하고 친밀한 지역사회 내에 있

는 가족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Benson & Deal, 1995). Coleman은 세 가지의 다른 형태의 사회적 자본, 즉, 책임감 (obligations)과 기대(expectations), 정보 채널(information channels), 사회 규범(social norms) 등을 강조하였다. Coleman에 의해 강조된 미시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은 곧 가족자본(family capital)으로 간주되어도 무리가 없을 만큼 명백한 가족자원(family resource)이라고 볼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Coleman(1988)은 대부분의 사회적 자본은 공공재로서의 측면을 가지고 있어 과소투자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유용한 사회적 자본의 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강한 연대’의 가족이나 공동체의 확립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사회과학분야에서 대중화시킨 것은 Putnam이다. Putnam(1993)은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이 조정된 행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회조직의 특징으로 정의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어 있는 사회 또는 공동체에서는 시민들의 참여 네트워크가 구성원 상호간 신뢰를 증진시키고 호혜성의 배양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네트워크는 의사소통, 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집단행위를 통한 문제해결을 용이하게 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특성으로 다른 형태의 자본과 달리 사용할수록 축적되며, 사용하지 않으면 고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유현숙, 2004).

그 이후 Putnam(2009)은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들 사이의 연계,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으로 정의하면서 개인수준에서 형성된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도 언급하였고 사회적 자본이 호혜적 사회관계의 촘촘한 네트워크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하였다.

또한, Putnam은 사회적 자본의 유형으로 연계형 사회적 자본과 결속형

사회적 자본에 대해 소개하며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개별적 호혜성을 강화하고 연대성을 동원하는데 좋으며 연계형 사회적 자본은 광범위한 정체성과 호혜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일종의 사회학적 강력 접착제 역할을 하고, 연계형 사회적 자본은 사회학적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Putnam, 2009).

여성결혼이민자는 출신국의 사회적 관계를 일시적으로 단절하고 결혼과 동시에 국가 간 이동을 통해 이주국의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특수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주국인 한국에서도 이들의 유입에 대한 사회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때 사회적 자본은 가족이나 친척, 이웃과 같은 공동체의 개인들에게 소속감이나 정체성 그리고 결속력을 제공해 주는 효율적인 장치로 인식되고 있다(유현숙, 2005).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로 하여금 사회적 자본을 축적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여성결혼이민자가 보다 한국사회에 결속하여 소속감과 정체성을 갖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Putnam(1993)이 제시한 것과 같이 신뢰, 네트워크, 참여 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이 축적될 수 있으며 그러한 방식이 의사소통과 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집단행위를 통한 문제해결을 용이하게 한다는 이론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유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즉, 사회적 자본은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서 새롭게 관계하는 가족·본국친구·이웃·자조모임 등과의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신뢰를 축적하며 새로운 단체와 참여활동 등을 통해 자신이 속한 가족의 당면한 문제들을 조정하고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문제해결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가족구성원 간 상호작용이며, 가족과 연고 중심의 폐쇄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내어(장지혜, 2007),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유추할 수 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로 하여금 새롭게 구성된 가족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효용성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에 대한 만족과 상관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도 선행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장지혜, 2007; 김민경, 2011), 사회적 지지가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주목 받고 있다(김혜신, 2011).

본 연구에서는 Putnam의 사회적 자본 이론에 기반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Putnam(2009)은 사회적 자본을 거시적 관점에서 개념화 한 학자이나 사회적 자본을 개인들 사이의 연계,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으로 정의하면서 개인수준에서 형성된 사회적 자본에도 주목하였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을 개인 간의 네트워크, 참여, 신뢰를 통해 축적된 무형의 자산으로 정의한다.

<표-3> 학자별 사회적 자본의 정의

연구자	정 의
Hanifan(1916)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유형의 실체, 즉, 사회 단위를 구성하는 개인과 가족들 사이의 호의, 동료애, 동정심, 사회적 교섭 등으로 정의
Jacob(1961) Loury(1977)	공동체사회 조직내에 있는 개인들의 발전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 간의 결속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계적 자원
Bourdieu (1986)	친근감이나 상호 인지적 관계가 제도화된 덕택에, 혹은 지속적인 연결망의 덕택에 개인이나 집단이 실제적으로, 혹은 가상적으로 연계 되는 이점이나 기회의 총합
Coleman (1988)	기능에 따라 달리 정의할 수 있다. 단일한 실체가 아니며 매우 다양한 실체이다. 그것은 사회구조의 몇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고 그 구조에 속한 개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달성하도록 유도한다. 다른 형태의 자본과 같이 사회적 자본은 생산적이며 그것이 없다면 달성할 수 없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Putnam(1993a)	신뢰, 규범 및 네트워크와 같이 조정된 행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회조직의 특징

## 2)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사회적 자본은 매우 다의적·다차원적이어서 그 본질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추출하고, 그 요소들을 통하여 개념을 정의하거나 측정하는 경향이 많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요소를 논의하는 실익은 이들 개념요소의 표현인자를 통하여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데 있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가장 자주 사용되는 사회학적 개념의 하나로 발전시킨 Coleman은 사회적 자본의 요소로서 신뢰와 네트워크 그리고 사회 규범을 주목하고 있고, Putnam도 이러한 전통을 따른다. 반면 Portes는 네트워크만을, 그리고 Fukuyama는 규범만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다의성을 제한하려고 노력한다(김용학, 2007 재인용).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개념요소들은 다양한 차원과

개별요소들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요소들은 구조적 차원, 인지적 차원, 그리고 관계적 차원의 요소들로 구성되기도 하고 내부적 사회자본과 외부적 사회자본 차원의 요소로 구성되기도 한다.

또한 개별구성요소들도 신뢰, 네트워크, 참여, 규범, 호혜성, 제도, 이웃과의 비공식적 유대, 비전공유, 집단적 협력, 관용성, 사회적 포용력, 이타주의, 지역공동체의식, 기타 등 많은 요소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들 요소들 가운데 신뢰나 네트워크와 같이 하나 내지 두 가지의 핵심적 요소 위주로 이해되거나, 연구자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출되어 개념요소로 구성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가운데 사회적 자본 개념의 핵심적 구성요소로서 비교적 많은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요소인 신뢰, 네트워크, 참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신뢰

신뢰는 어떤 특정 타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기대 내지 포괄적인 믿음을 말한다. 모든 계약과 거래, 나아가 모든 사회적 접촉에는 일정 정도 상대에 대한 신뢰가 개제되어 있기 마련이다. Barber(1983)는 신뢰를 ‘타인이 행위를 할 때 나의 이해관심을 고려할 것이라는 기대’로 정의했고, Coleman(1988)은 ‘배신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신뢰는 사회적 안정과 사회적 결속, 협력을 증진시키고, 신뢰를 통해 관련행위자들은 서로간에 협동, 감시, 통제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안우환, 2005).

신뢰는 사회적 자본에 관한 논의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어떤 이들은 신뢰를 사회적 자본의 결과물로 간주하는 반면(Woolcock, 2001), 다른 이들은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공유된 가치의 구성 요소로 생각한다. 한편 두 가지 모두 다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Cote & Healy, 2001).

신뢰의 유형에 있어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Zucker(1986)는 신뢰를 ‘과정의존적 신뢰’, ‘특성의존적 신뢰’, ‘제도의존적 신뢰’로 구분하였다. 과정의존적 신뢰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축적되는 신뢰를 말하고, 특성의존적 신뢰는 한 개인이 속하는 귀속적 특성에 의해서 형성되는 신뢰로서 ‘어느 학교 출신은 믿을 말하다’라는 신뢰가 여기에 속한다. 제도의존적 신뢰란 공식적인 제도가 제공하는 신뢰로서 학위나 자격증에 의해서 부여되는 신뢰를 말한다.

Giddens(1990)는 신뢰를 대상에 따라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로 나누었고, 사람에 대한 신뢰는 다시 능력에 대한 신뢰와 의도에 대한 신뢰로 나눌 수 있다. Pagden(1988)은 사적 신뢰로 구성원들 상호 간의 신뢰와 공적 신뢰로 구성원들이 갖는 조직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였다. 전자가 대인적 관계에서의 신뢰를 말한다면, 후자는 사회 내의 제도나 규준에 대한 신뢰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각각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라는 개념과 상통한다(이영현 외, 2006 재인용). Coleman(1988)은 신뢰를 ‘사적인 관계에서의 신뢰’,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고 신뢰와 상호부조를 같은 요소로 간주하면서 네트워크의 폐쇄성이 신뢰 생성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다. Putnam(2003)은 알고 있는 개인에 대한 신뢰를 얇은(thin)신뢰, 알지 못하는 개인에 대한 신뢰를 두터운(thick) 신뢰라고 칭하기도 했지만 Putnam에게는 정부, 국회 및 법집행에 대한 신뢰 등이 사회통합을 위해 중요하게 대두되는 신뢰로서 그의 신뢰는 제도에 기초한 신뢰와 직결되어 있다.

결속형 관계에서의 개인들 간의 신뢰는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공동체적 일체감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깨지지 않는 속성이 있는 반면, 공적 영역에 대한 신뢰는 제도에 근거한 신뢰라는 점에서 신뢰의 효율성을 인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신뢰의 형성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박길성 2002). 그러나 혈연이나 친분을 넘어설 수 있는 신뢰형태가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이것이 가능할 때 사회적 협동이 가능하게 되며, 여기에서 제

도에 대한 신뢰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제도에 대한 신뢰는 일상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상식과 일상생활에서의 반복적인 경험과 관련이 있으며, 특정상황에서 특정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규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선택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제도는 기대에 대한 행동을 일탈할 경우에 '주위의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법적 제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의 제재도 가하게 된다. 따라서 제도에 대한 신뢰는 한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하는데 필수적이다. 결국 제도는 특정행위를 가능케도 하고 동시에 제약도 하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신뢰는 상황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는 행위자에 대한 신뢰를 높여 연줄망 안에 있지 않은 행위자들에 대한 신뢰도 가능하게 한다(김용학, 2007).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본국에서 갖고 있던 관계망들과 긴밀한 유대를 상실하고, 한국 사회에 재사회화 하는 과정에서 그리움, 외로움, 좌절감으로 정서적 결핍을 경험하게 되며 두려움과 열등감으로 인해 위축되어 불안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김옥남, 2010), 결혼 후 한국에서 남편 및 시댁 가족과 신뢰를 구축하고 사회적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소속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 진다.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가족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관계이다.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가족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는 가족 외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 나아가, 여성결혼이민자가 갖는 사회와 제도에 대한 신뢰는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토대가 되며 사회통합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적 자본에서 신뢰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서 적응하는데 느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다. 즉, 이윤희(2006)는 여성결혼이민자 자신이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수준과 다른 사람이 여성결혼이민자를 신뢰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아진다고

는 연구 결과를 보였다.

또한, 대상은 다르나 노인의 높은 사적 신뢰가 생활만족을 높이고, 공적 신뢰의 중요성을 다룬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임우석, 2009), 신뢰를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보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중 신뢰를 개인적 신뢰, 사회적 신뢰, 제도적 신뢰로 구성하였다.

## (2)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의 또 다른 구성요소는 사람들 사이의 유대를 기초로 한 네트워크로서 Coleman이 지적한 세 가지 사회적 자본의 실체 가운데 네트워크가 사회적 자본의 핵심개념이 되고 있다. 사회적 연결망 이론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사회적 연결망 안에 있는 행위자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규범이나 속성보다 유대와 연결망의 종류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Wellman, 1983).

상호작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며 사회구조를 구성하게 해준다. 사람들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관계는 특정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고 사회적 자본이 주는 이익은 바로 이 네트워크로부터 비롯되며,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회적 자본은 발생되지 않는다. 결국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 구성요소의 하나로서 사회적 자본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이라 할 수 있다.

Putnam(2003)은 “사람들은 스스로 가족구성원, 친구, 애인 등과의 좋은 관계가 이들의 행복의 전제라고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Blanchflower와 Oswald(2000)은 평균 이상 주 중 소득자 중에서 사회적 연결이 교육 및 소득보다 삶의 만족에 더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고, Rodrik(1998)은 사회자본이 경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삶의 만족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박

희봉 · 이회창, 2005 재인용).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자신의 가족 문화와 배우자 가족의 문화가 바로 충돌하게 되면서 언어장벽은 물론, 식습관, 가족 상호작용, 가족 규범, 가족에 편입되는 과정의 문제 등 적응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Chang & Myers, 2003),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한 상담이나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주변 네트워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남편과 가족의 지지는 가장 가까이에서 핵심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국친구 및 결혼이민을 통한 자조 모임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친정가족 만큼이나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다(김나영, 2007; 장지혜, 2007; 김오남, 2005). 본국 친구와 자조모임 구성원은 여성결혼이민자와 유사한 경험과 정서에 기반하여 같은 언어로 소통할 수 있고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상대이면서 여성이 일상 정보를 얻거나 가정폭력의 피해로부터 보호해주는 등 다방면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관계이다(쓰지모토, 2006; 김이선, 2006; 김민경, 2011). 이 외에 여성결혼이민자 주변의 이웃과의 네트워크도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사회에서 한국인 동네 이웃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집을 비울 경우 아이를 맡기거나 집을 봐준다거나 생활용품이나 가사도구 등을 빌리거나 급히 돈이 필요할 때 빌리거나 빌려주는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사회관계이기 때문이다(김민경, 2011) 몇몇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한국인 동네 이웃과의 유대는 오히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높이거나(이윤희, 2006), 이웃과의 부정적 상호작용은 생활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미정 · 엄명용, 2009). 그러므로 한국인 동네 이웃과의 관계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중 네트워크를 가족 · 친척, 본국친구, 이웃, 자조 모임의 도움 및 상담정도로 구성하였다.

### (3) 참여

참여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몫을 담당하며, 사회적 자아로서의 각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의 총체를 말한다(Palmore, 1981; 박정은, 1994; 윤종주, 1994). 팔모어(Palmore, 1981)는 한 인간이 개인의 삶의 전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반경을 가족이외의 다른 구성원들로 확산시키면서 자신의 관계망을 넓혀가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몫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박정은(1994)은 사회참여를 협의의 개념으로서 ‘한 사회집단이 그 필요와 요구를 나타내고 공동이익을 옹호하며 특정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조직적 활동’으로 정의하면서 나아가 광의의 개념으로 사회참여에 ‘취업활동, 지역사회조직 및 단체활동’을 포함시키고 있다(김나영, 2007).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있어 참여는 한국으로 결혼해 오면서 사회관계망의 부재, 친척들과의 단절, 한국 친구의 부재로 사회적 고립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통로와 같은 것이다(김옥남,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단체참여활동은 여성결혼이민자 개인의 사회적응과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며(김나영, 2007),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다문화가족정책 중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기여한다(이오복, 2011).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의 참여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와 관련한 연구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몇몇의 연구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참여와 관련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나 사회활동 참여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나영(2007)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사회적 지지와 사회참여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참여를 사회참여빈도, 사회참여 종류, 사회참여에 대한 긍정적 태도 등으로 구성하여 살펴본 결과 사회참여 빈도

가 낮고, 사회활동 참여 종류가 적으며 사회참여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높은 집단에서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사회참여 만족도가 높은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활동이 높은 집단에서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장지혜(2007)의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과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정기적 모임 참여가 생활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주재·김순규(2010)의 결혼이민 여성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서비스 유형별로 결혼이민 여성의 서비스 이용 요인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서비스 요인을 고려하여 유형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서비스 대상별 욕구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망이 모든 유형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의 결정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이오복(2011)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이용 서비스의 양과 이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혼기간과 서비스 정보의 양으로 밝혀 냈으며 이용 서비스의 참여정도와 관련된 변수는 서비스 이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녀 장애정도, 비용부담, 동료의 지지로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으로 단체 참여와 프로그램 참여를 포함하여 참여의 중요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참여활동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이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과 관계가 깊은 가족 건강성에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참여를 변인으로 보고, 그 하위 영역으로 단체와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를 보고자 한다.

### 3. 가족건강성

#### 1) 가족건강성의 개념

20세기 가족에 대한 서구사회 대부분의 연구는 가족실패와 같은 가족생활의 문제와 병리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높았으나 1960년대부터 가족의 긍정적인 측면과 가족의 장점을 강화하고 가족관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유영주, 2004).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들어 가족관련 학회나 단체 등에서 건전 가정 또는 건강가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관련 논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건강가족적 관점이란 삶에 대한 긍정적·낙관적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명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모든 가족은 강점을 갖고 있으며 도전과 잠재적 성장의 역량을 지니고 있다. 가족이 그들의 문제를 보려 한다면 문제만을 보게 되고, 가족의 강점을 보려 한다면 강점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강점은 미래의 긍정적 성장과 변화에 기초가 되며, 나아가 건강한 가족에서 성장할 때 건강한 가족을 이루기가 더 쉽다는 것이다(DeFrain, 2003).

건강한 가족 중, 가족건강성에 관한 연구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개념과 모델로 지칭되고 있다. 건강의 개념에는 신체적인 건강 외에도 도덕적, 정신적 건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그 정의를 명료하게 내리기 쉽지 않다. 건강의 개념을 가족 연구에 적용시킬 때, 개념 정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연구자에 따라 균형된 가족, 기능적 가족, 정상적인 가족, 강한 가족, 최적의 가족, 적합한 가족, 역동적인 가족, 치료경력이 없는 가족, 건전한 가족, 그리고 건강한 가족 등의 용어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이다. 건강가족에 대한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학자들이 내린 개념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어은주, 1996).

첫째, 균형된 가족은 Olson et al.(1979)이 제시한 순환모델에 나타난 개념으

로 체계요소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체계의 전체성을 이루고 체계의 평형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순환모델에 의하면, 가족의 응집성·적응성과 가족의 수행기능과는 곡선적관계로 나타나 어느 한 극단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기능수행이 이루어지며 가족과 가족원의 발달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가정한다(유영주, 2001 재인용). 적응성이란 가족의 변화를 허용하는 정도,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가정생활의 압력이나 갈등의 반응에서 그들의 규칙, 역할, 구조 등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가족의 능력을 의미한다. 한편 응집성은 가족성원들 간의 정서적 결합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족성원들에게 부여된 개인의 자율성과 가족이 함께하는 정도와 관련되어 있다. 응집성과 적응성의 두 차원이 조합될 때, 가족들이 “일반적으로 이 차원들의 극단에 있는 가족들보다 전 가족 생활주기에 걸쳐 더 잘 기능하는 경향이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Olson, 1983).

둘째, 기능적 가족은 가족 체계적 관점을 기초로 하여 역기능적 가족과 기능적 가족의 가족 과정을 판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정현숙·유계숙, 2001). 1960년대 이후 활발히 발전되고 있는 가족의 체계적 접근에서는 개인이 가족 환경 내에서 어떻게 기능하며 또 가족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과 역으로 가족이 어떻게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독특한 관점과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Curran, 1983). Casas(1984)는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며 즐기는 가족이라 하였다(어은주, 1996. 재인용). 또 기능적 가족이란 용어를 사용한 대표적 학자인 Bloom(1985)은 ‘기능적 가족’이란 가족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외부상황을 통제·조정할 수 있으며, 가족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가족의 사회성을 고무하는 가족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Belkin & Nass(1984)도 제대로 기능하는 가족이란 가족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셋째, 정상적인 가족은 병리성의 부재에 기초한 ‘증상이 없는 가족으로서의

정상가족',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패턴에 부합되는 전형적인 가족으로 '보통가족'으로서의 '정상가족' 가족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성공적이고 개별가족원의 성장과 안녕을 증진시키는 '적절한 가족으로서의 정상가족' 가족단위의 통합과 유지, 자녀 양육과 보호 및 노인 부양과 같은 가족원의 성장과 안녕을 위한 과업수행능력이 포함된 '정상적인 가족 과정'으로 정의하였다(Lin, 1994).

넷째, 강한 가족은 Otto(1962)에 의해 이미 1960년대 초에 제시한 바 있는 개념이며, 연구자나 임상가들이 가족을 좋은, 건강한 또는 강한가족 등으로 다양하게 묘사하므로 가족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가족의 강점을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사전적 의미로 강점이란 '건강한 성질 또는 상태, 행하거나 갖고 있는 능력, 견고하거나 강인함' 등으로 되어 있으나 각 가족 강점의 특질은 그러한 특질을 만들어 내는 어떠한 구성요소 또는 일련의 변화하는 구성요소로서의 궁극적 산물로 보았다. Otto(1962)는 가족 내에서 상호 작용하는 요소의 궁극적인 결과를 '강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가족의 강점은 가족 내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요소들의 궁극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 요소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전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그 능력과 강도에 변화가 나타난다고 말한다.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지하는 가족의 강점을 조사 과정을 거쳐 건강한 가족의 강점은 긍정적인 가족정체감을 형성하고, 가족원간에 만족스러운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며, 가족의 개인적 잠재력을 북돋우는 사회 심리적 특성이며 관계유형이라 정의하고 있다(Otto, 1975).

국내 학자들의 건강가족과 가족건강성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유영주(1991, 1994)는 건강가족을 가정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가족으로 정의한다.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수준으로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경우, 집단으로서 가정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가정이 된다고 하였고, 건강하지 못한 역기능적 가족에서는 가족문제가 발생하고, 가정폭력, 만성불안과 스트레스, 그릇된 가족의식이나 가치관이 전수되어 바람직한 사회인을 육성하지 못

하므로 가족의 건강성이 있어야 가족이 정서적, 관계적 기능을 통해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봉렬 외(1999)는 가족의 전체적인 체계가 가족의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하도록 기능이 수행되고 있을 때 건강가족이라 하였고, 어은주(1996)는 건강한 가족을 가족원 상호간에 규칙적이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가족의 공동체적, 정서적, 도덕적 관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가족이라고 하였다. 유계숙(2004)은 가족관계에 대한 성원들의 만족도가 높고,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가족이라고 하였고, 농촌가족의 건강성을 연구한 양순미(2001)는 의사소통, 의사결정, 문제해결과정이 적절하여 개개 가족원들이 건강하게 발달하고, 그 가족체계가 안정되어 있고 일체감이 있으며, 사회적 지지를 받아 가족원들이 가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가족의례를 만들어 가는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학자들이 생각하는 건강한 가족은 기본적으로 가족의 목표달성을 위한 기능을 잘 수행하고, 가족성원 간의 욕구충족이 잘 되는 가족으로 정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학자들의 정의에 기반 하여 가족건강성을 가족원간의 유대감과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문제나 위기 상황에서 문제해결 수행능력이 높고, 가족원간의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족의 특성으로 정의한다.

## **2) 가족건강성의 특성**

가족건강성의 특성은 가족이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에 근거해서 건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낸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국외 연구자들이 분석한 가족건강성의 특성으로 Stinnett(1979)는 건강한 가족의 특성에 대해 감사표현, 함께 보내는 시간, 바람직한 의사소통, 강한

종교적 지향, 가족에 대한 헌신, 위기와 문제에 대한 긍정적 대처 능력을 제시하였고, Defrain(2003)은 세계 27개국의 21,000여 가족의 조사를 통해 건강가족의 특성으로 헌신, 긍정적 의사소통, 정신적 안녕, 감사와 애정, 질적 시간 공유,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6가지 요인을 제안하였다.

Otto(1962)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지지·훈육, 가족원의 성장과 성숙의 격려, 정신적인 행복감, 원활한 의사소통, 문제해결기술, 가정 외부의 활동에 가족원이 함께 참가하는 것 등이 변화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Stinnett(1979)은 강한 가족의 요인으로 공감과 감사가 있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헌신하며, 좋은 의사소통, 높은 종교 의존도 그리고 위기상황을 긍정적으로 다루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Curran(1983)은 건강한 가족의 요건으로 의사소통과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 긍정과 지지하기,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고, 신뢰감 개발, 놀이와 유머의 감각을 가지고 역할을 분담,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의식과 전통을 존중하는 가족의 감각을 가지며, 가족일원 간 상호작용의 균형, 종교를 공유, 다른 사람의 사생활 존중,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가족이 함께 모여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고, 여가시간을 공유하고,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고 문제에 대해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Lin(1994)은 건강한 가족의 특성으로 격려와 강한 가족 그리고 가족을 강화시키는 특성을 지니며, 헌신, 함께함, 공감 또는 감사, 좋은 의사소통, 종교적 행복, 위기와 건강에 대처라고 하였다.

국내 연구자들이 선별한 가족건강성의 특성으로 어은주·유영주(1995)은 한국인의 가치관에 맞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국인이 제시한 건강한 가족의 특성과 선행연구에 제시되고 있는 건강한 가족의 특성을 종합하여 나타난 사회심리적 관계특성으로 가족원간의 유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그리고 가족의 가치체계 공유를 중심으로 가족건강성 척도를 구성하였다.

최선희(1999)는 한국인의 가족 건강성 영역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관련 전문가가 본 건강한 가족의 특징은 의사소통, 애정·사랑, 자율성, 신뢰·지지, 물리적 기반으로 경제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 문제해결능력, 유연성, 역할수행, 부모역할이 해당된다고 하였다.

유계숙(2004)은 건강가정은 성숙한 가족관계와 원활한 가족과정, 헌신, 긍정적인 의사소통, 정신적 안녕, 감사와 애정, 질적 시간 공유, 스트레스 대처능력 등으로 보아 가족 내부적인 관계에서의 응집과 적응, 결속력 등에 비추어 건강가정을 개념화하고 있다.

유영주(2004)는 건강한 가족의 특성으로 가족원에 대한 존중, 유대의식, 감사와 애정, 긍정적인 의사소통, 가치관 및 목표공유, 역할 충실, 문제해결능력, 경제적 안정, 사회와의 유대 9가지 특징을 제안하였다.

조희금 외(2005)은 건강가족의 특성으로 경제적 안정, 열린 대화, 안정적인 의식주생활, 건강한 시민의식, 민주적 평등가족, 휴식 및 여가공유, 자원봉사참여, 일과 가정의 조화, 가족역할 공유, 가정문화 창조, 자녀의 성장 지원, 합리적 자원관리라고 하였다.

김윤재·김은희·최윤진(2006)은 가족건강성의 요소를 의사소통, 유연성, 자율성, 신뢰와 가치, 애정과 사랑, 문제 해결, 부모역할, 신념체계로 구분하였다.

서종선·김혜연(2007)은 건강가정의 특성으로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건강까지 포함되었고, 부인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사랑, 배려, 화목, 대화 등 조화롭고 이상적인 조건을 중시한 반면, 남편은 생활조건과 경제적 안정 등 현실적 조건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이 강조한 건강가족의 특성을 요약하면, 먼저 국외 연구에서 가족의 건강을 측정하는 척도는 가족의 성공, 가족의 잠재력 개발과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종교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가족이 강한 유대를 가지고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시간과 오락 등의 공유를 통한 가족의 화합을 중요시한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가족이 기본적으로 애정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임을 부각시키면서 서로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소통과 역할의 공유 및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 대처능력, 휴식 및 여가 등 현실적 조건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가족건강성 측정 영역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어은주·유영주(1995)의 연구를 기반으로 가족건강성의 측정 영역을 구성하고자 한다. 즉, 가족원 간의 친밀감, 애정,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지지해주는 ‘가족원 간의 가족유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정도와 개방성, 표현의 자유 등을 알 수 있는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 문제나 위기 상황에서 가족원이 공동의 노력과 책임으로 융통성 있게 대처해 나가는 능력을 알 수 있는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족만의 가치관이나 규범 여부, 가족의 가치관이나 규범에 가족원이 동의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로 구성하였다.

### 3) 가족건강성 관련 연구

가족건강성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초반 Otto(1962)의 건강가족에 대한 개념에 대한 논의로 시작되어 Stinnett(1979)의 강한 가족의 특성에 관한 연구, Olson과 McCubbin(1983)등의 가족의 강점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건강가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내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에 들어 유영주(1991)의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복지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2000년을 전후하여 관심이 증대였고,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을 계기로 가족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의 가족건강성과 관련한 연구로는 거시적 측면에서 건강가정의 개념, 법과 제도, 전달체계, 운영과 평가 등을 주제로 연구들이 있으며(송혜림, 2008; 정민자, 2007; 장진경 외, 2006), 건강가정사업관련 연구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요구도(김양희·김예리, 2005),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실태(송혜림, 2008; 박정윤, 2007)등이 있었다. 또한, 건강한 가족에 대한 가족건강성의 정의 및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김현주·이혜경, 2009; 남영자·박태영, 2009; 어은주·유영주, 1995; 유계숙, 2004)와 가족건강성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한영숙, 2006; 윤연정·이미숙, 2007; 이성휘 외, 2009)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소은선, 2007; 양순미, 2004)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가족의 일반적인 특성(종교, 사회경제적 계층, 자녀의 수와 연령, 가족형태와 가족발달단계),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인척, 친척, 친구와의 관계망)가 가족의 건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소은선, 2007). 또한 소득에 따라 가족건강성에 차이를 보이며, 경제적 수준이 너무 높은 경우는 오히려 가족건강성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어

은주, 1995).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건강가족의 특성을 강화하고 건강한 가족형성을 위한 가족구성원으로서의 태도와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김정옥·장덕희, 2003), 가족건강성 척도 개발과 더불어(유영주, 2004), 건강가족 육성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이 실시되었다(유지혜, 2011). 따라서 가족문제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가족의 건강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공포되었고, 가족원 모두가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 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의 취약성을 보완하며, 가족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는 건강가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건강성에 관한 연구들은 최근 여성결혼이민자의 혼인과 이혼에 관한 사회현상과 맞물리게 되면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건강성에 대한 관심을 주목하게 하였으며 2005년 이후부터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몇몇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장진경 외, 2006; 전해정 외, 2009; 배지영, 2010; 김혜신, 2011).

## 4.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자본과 가족건강성

### 1) 여성결혼이민자와 가족건강성 관련 연구

가족건강성에 대한 국내 연구가 최근 들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건강가족이 갖는 의미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주된 논의의 핵심을 이루는 상황을 감안할 때,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부적응 등의 문제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전해정 외(2009)의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수준임이 나타났다. 한국어수준은 가족건강성에 직접 영향을 미쳤고, 또한 한국어수준이 사회적 지지를 거쳐 여성결혼이민자 개인의 우울과 결혼만족도를 거쳐 가족건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밝혔고, 부부의 연령, 학력수준, 출신국가, 종교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장진경 외(2006)의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 속한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고부간의 불신, 부부간의 역할기대의 불만족과 같은 스트레스와 갈등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시부모와 개방적인 외국인 며느리와의 만남은 생활사건들 속에서 미묘한 오해와 스트레스를 유발하였으며 이를 통한 불신은 관계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또한, 배지영(2010)의 다문화가족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과 자녀의 사회적 능력이 높고, 어머니의 한국어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사회적 능력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여성결혼이민자가 지각한 가족건강성

이 높을수록 자녀의 사회적 능력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최근 김혜신(2011)의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성 부부의 가족건강성 연구에서 부인은 남편의 일상생활갈등과 이성적 대처, 사회적 지지에서 영향력이 나타났으며, 남편은 부인의 자문화전달태도, 일상생활갈등, 이성적 대처, 외부 도움요청, 결혼 전 정보일치, 부인의 연령, 사회적 지지, 학력에서 영향력이 나타나 부부 개인 변인 이외에 배우자 변인 또한 중요함으로 부부 상호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상과 같이 그동안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연구는 개인 변인과 더불어 어떠한 가족관계 특성을 보이는가에 초점을 두어 수행되었고, 일부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있어 가족건강성이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중점을 두어 진행한 연구들이다.

현재까지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속한 가족의 건강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우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건강성에 대한 연구는 그들의 한국생활 적응이나 만족을 위해 매우 시급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과 가족건강성 관련 연구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처럼 각 개인은 ‘사회’안에서 행복을 찾게 된다. 개인과 개인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 사회라고 볼 때 결국 인간관계가 행복의 조건일 수 있다. 즉, 행복이 인간관계의 산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도 자신의 모국을 떠나 낯선 타국으로 결혼이민을 선택했지만 한국사회에서 건강한 가족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꿈은 당연할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자신의 가족 문화와 배우자 가족의 문화가 바로 충돌하게 되면서 언어장벽은 물론, 식습관, 가족 상호작용, 가족 규범, 가족에 편입되는 과정의 문제 등 적응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Chang & Myers, 2003).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짧은 이민생활 적응 과정에서 겪는 보편적 문제에 더하여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건에 바로 직면하게 되며, 서로 다른 개인적 가치, 삶의 방식, 언어, 문화, 기후 등 다문화적 충격이 출산과 양육 과정에 혼합되면서 결혼 내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다분하다(Chou 외, 2006). 이때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개인의 바람직한 사회적 기능수행을 돕는 자원으로 기능한다(한명숙, 2001).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의 실태를 살펴보면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2007)은 경기도 내 국제결혼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이웃과의 교류 및 상호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식하였고 여성결혼이민자의 12.3%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김나영(2007)은 한국에서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식한 사람은 16.4%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둘러싼 개인과 사회 네트워크가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본국인의 친구·단체 모임을 선호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배우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친척·친구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으나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이들에게 도움이 필

요할 경우 주위에 도움을 줄 자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김유경 등, 2008).

Putnam(1993)은 사회적 자본이 개인 및 집단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신뢰, 네트워크, 참여 등을 통해 사회적자본이 축적되고, 의사소통과 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집단행위를 통한 문제해결을 용이하게 한다고 하였다. 즉, 사회적자본은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서 새롭게 관계하는 가족·본국친구·이웃·자조모임 등과의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신뢰를 축적하며 새로운 단체와 참여활동 등을 통해 자신이 속한 가족, 사회 등의 집단에 당면한 문제들을 조정하고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결국 이러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효용성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에 대한 만족과 상관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도 선행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자본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주목 받고 있다(장지혜, 2007; 김민경, 2011). 또한, 최근에 사회적 자본과 유사한 개념의 사회적 지지가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김혜신, 2011), 사회적 자본이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에 중요한 영향 변인임을 검증한 연구(강수정, 2010; 최정혜, 2006)등을 보았을 때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이 가족건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주목하게 된다.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키는 요인에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와도 관련이 깊다고 보인다. 이윤호(2006)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남편, 친자녀, 의붓자녀, 친정 식구, 시댁 식구, 친구, 이웃에 대한 신뢰가 높을 때 한국문화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아진다고 보고 하였고,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의 밀도가 긴밀하고, 가족 내 유대관계를 통한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감이 높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장지혜, 2007; 최경숙, 2006; 박미정·엄명용, 2009).

다음으로 Yuanting & Jennifer(2009)의 연구는 타인종과 결혼 커플들에게 확대 가족 및 친구로부터의 지지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고, 특히, 가족구성원

중 시어머니와 남편의 사회적 지지는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김나영, 2007; 장지혜, 2007; 최경숙, 2006).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네트워크는 그들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이나 생활 만족을 높이는데 기능하고(장지혜, 2007; 나동석·박종인, 2009), 가족건강성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혜신, 2011).

여성결혼이민자가 주변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느냐, 그리고 그 도움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는 이들의 적응에 있어 중요한 구인이 된다(한명숙, 2001).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배우자와 그 가족은 1차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지지처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형제들과 같은 가족성원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이외의 성원이나 친구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결혼적령기의 성인이 되면 자신들의 사회·문화·역사적 맥락이 공유되는 다른 성인과 결혼함으로써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여성결혼이민자는 원가족에서 크게 벗어나 있고 결혼으로 맺어진 이주국 상황에서 타국의 배우자와 가족·친척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닥친 중요한 사건에 대해 도움과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중요한 네트워크가 된다.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한국에서의 본국친구는 출신국의 사회·문화·역사적 맥락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심리적인 위안과 이해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지지처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친구는 개인적인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이이고, 충고가 받아들일 수 있는 비평가인이며 동시에 충고자이다(박미정, 2007). 본국친구를 통해 타인과 상호작용 하는 방법, 사회적 기술, 적응 능력 등을 배우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혈연중심의 네트워크 특성을 보이는 한국에서 본국친구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중요한 네트워크가 된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지역사회에서 가족 다음으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이웃이다. 이웃은 가족원의 사망, 어려운 문제 상황 봉착 시,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례적 기능, 상호부조의 기능, 사교적 기능이 활발한 사회적

자원이 되므로 사회적자본의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존재일 수 있다.

다음으로 자조집단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보고 관찰하기 위한 집단을 의미한다(엄명용 외, 2005). 자조집단은 성원들 간의 상호원조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조직된 자발적인 모임이며 집단의 역동성을 잘 활용하여 개별성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화의 구체적 방법을 돕는 집단이다. 이들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자조집단은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장지혜, 2007), 심층면접 연구에서는 한국 생활의 적응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이태욱, 2006).

이상과 같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본국친구, 이웃, 자조 모임은 중요한 사건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 중 참여는 한국으로 결혼해 오면서 사회관계망의 부재, 친척들과의 단절, 한국 친구의 부재로 사회적 고립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김옥남,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단체 참여 활동은 여성결혼이민자 개인의 사회적응과 지역 사회와의 유대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며(김나영, 2007; 양순미·최규홍·강경하, 2009),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다문화가족정책 중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기여한다(이오복, 2011).

지금까지 여성결혼이민자의 신뢰, 네트워크, 참여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살펴보았으며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과 가족건강성의 관계에 대한 유의성도 예측해 보았다.

다음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과 가족건강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여성결혼이민자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2005년 이후에 수행되기 시작하였고,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연구도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과 가족

건강성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행연구 중 사회적 자본과 가족건강성에 관계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미진하였으나 최근 들어 몇몇의 연구에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이윤희(2006)는 베트남 국제결혼가정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 자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을 사적 네트워크, 지역사회 네트워크, 참여, 신뢰로 구성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친정통화 횟수가 한 달에 1회 이상이고, 같은 국적의 여성결혼이민자 이웃들과 유대관계가 많을수록, 한국인과의 비공식적인 유대관계가 높고, 신뢰가 높을수록 낮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김나영(2007)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서적·정보적·평가적·물질적 지지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사회참여 빈도가 높고, 사회활동 참여 종류가 적고, 사회참여 시 긍정적 태도가 높으며 사회참여 만족도가 높을 때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김나영(2007)의 연구와 같이 사회적 자본과 유사한 개념인 사회적 지지를 통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모두 두 변인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미정, 2007; 강순정, 2008; 나동석·박종인, 2009).

장지혜(2007)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과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변수를 가족 구성원간 상호작용, 이웃관계, 정기적 모임 참여, 본국 가족과 커뮤니케이션, 출신국으로의 송금으로 구성하여 살펴본 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가족 구성원간 상호작용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본국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박미정·엄명용(2009)의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를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 상호작용 척도로 구성하여 생활만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가족은 정보제공을 통해 생활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반면 이웃은 각종 간섭, 비난, 과도한 요구, 이용하려 듭 등을 통해 생활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관계자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정서적 위안과 지지를 주는 주체인 동시에 여성결혼이민자로 하여금 각종 적응 프로그램에 참가를 강요하는 등 이들의 삶을 간섭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혜정 외(2009)의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가족건강성은 상호 관련이 있으며, 가족 건강성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한국어 수준이 사회적 지지를 거쳐 이주여성 개인의 우울을 거치고 결혼만족도를 거쳐 가족건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경(2011)은 한국사회로 결혼이주한 아시아 여성의 사회자본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자본을 가족 내 사회자본, 직장 내 사회자본, 사회 내 사회자본으로 나누어 가족 내 사회자본에는 가족관계, 자녀교육, 직장 내 사회자본에는 동료관계, 상사관계, 사회 내 사회자본에는 동질참여, 이질참여, 정치참여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 내 사회자본 중 자녀교육에 많이 개입 할수록 삶의 질이 높았고, 직장 내 사회자본 중 상사관계가 돈독할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보고 하였다.

김혜신(2011)은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성 부부의 가족건강성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과 유사한 개념인 사회적 지지 변인을 심리사회적 변인으로 보고, 그 이외에 문화적응변인과 결혼과정 변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가족건강

성에 대한 영향력으로 부인은 남편의 일상생활갈등과 이성적 대처, 사회적 지지에서 영향력이 나타났으며, 남편은 부인의 자문화전달태도, 일상생활갈등, 이성적 대처, 외부도움요청, 결혼 전 정보일치, 부인의 연령, 사회적 지지, 학력에서 영향력이 나타나 다문화가족의 가족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부부 개인 변인 이외에 배우자 변인 또한 중요함을 밝혔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를 선도적으로 수행했다는 의미는 있으나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 일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보다 확장하여 여성결혼이민자를 둘러싼 개인·사회·제도에 대한 신뢰와 여성결혼이민자가 생활하면서 도움이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족·친척, 본국친구, 이웃, 자조모임 등의 네트워크,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가 참여하는 단체와 프로그램 등으로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였다. 또한, 가족건강성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사회적 자본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적 지지 변인을 사용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원으로서 사회적 자본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진 중요한 자원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이 가족건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 5. 국내의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범정부차원에서 시작된 것은 2006년 4월에 개최된 국정과제회의에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이 수립되면서부터였다. 이 대책에는 12개의 관련 중앙부처가 총 7개 과제와 27개 소 과제를 분류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당시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었으며 2006년에 21개소에 시작하여 2007년에는 38개소, 2008년에는 80개소, 2009년 100개소, 2010년 159개소, 2011년 200개소 설치를 앞두고 있을 만큼 그 수가 증가하였다. 이어서 2007년 12월에 여성가족부 가족통합팀이 신설되면서 중앙부처 차원의 다문화가족 업무 전담부서가 설립되었으며, 2008년 3월에 새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설된 다문화가족과에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전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2010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면서 다문화가족과는 다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고, 2011년 중앙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8개부처(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9개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책적 인식은 높아져 KD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의 정부 및 학교 연구기관에서 사회적 자본 측정에 대한 연구가 있어왔다(조권중, 2010).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시각에서 현재 정책과 서비스들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연구는 부재한 상태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은 2005년 출범한 여성가족부가 지향하는 5대 핵심 가족정책 추진과제인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확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돌봄의 사회화 및 역할 분담,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등과도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자원이므로(서지원, 2006), 이러한 과제 목표와 맞는 정책적 사업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에 기반이 되는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이 생태체계관점에서 가정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가정을 자원화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체계의 확립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조희금, 2005). 따라서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은 가정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사회자본으로서의 가족자원, 특히,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지지, 신뢰, 상호이해 등의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서지원, 2006).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 정책 및 사업은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이나 욕구를 반영하여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그것이 실현될 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사회체계의 상호연계를 통해 건강한 가족과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짧은 이민생활 적응 과정에서 겪는 보편적 문제에 더하여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건에 바로 직면하게 되며, 서로 다른 개인적 가치, 삶의 방식, 언어, 문화, 기후 등 다문화적 충격이 출산과 양육 과정에 혼합되면서 결혼 내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다분하다(Chou 외, 2006). 이때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개인의 바람직한 사회적 기능수행을 돕는 자원으로서 기능한다(한명숙, 2001).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신뢰, 참여, 네트워크 등을 통한 인간관계로부터 생성되어 그 구성원이 원하는 특정한 결과를 산출하는 힘으로 정의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박희봉·이희창, 2005). 여성결혼이민자 역시 한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사람에 대한 신뢰와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단체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행위는 그들의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다문화정책에는 이러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수립된 정책이나 사업이 중요하며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정책 및 사업내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현재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정책 및 사업을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 네트워크, 참여 영역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신뢰영역의 지원 정책

신뢰는 궁극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서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필수 요소이다. 그동안 신뢰에 기반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제시 하기에는 개념의 포괄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주변의 개인들에 대한 신뢰, 사회적·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신뢰에 있어 현재 정책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먼저 신뢰는 제도적인 부분인 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와 관련한 법에는 「국적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제정 2008.3.21., 시행 2008.9.22.)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외국인 중에서 결혼이주로 만들어진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조치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2008년 이후 이주 외국인, 특히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문화정책의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고, 법적 기반은 더욱 공고해졌다. 그러나 이 법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법으로 그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사회·제도에 대한 신뢰와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를 포함한 사회적자본의 시각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법률」(제정, 2007.12.14., 시행 2008.6.15.)은 결혼중개업의 건전한 지도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통한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국제결혼을 알선하고 중개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인권침해 및 부정적인 사안을 예방하고 대체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포함하고 있다. 본 법률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예비 배우자 및 시댁 가족에 대한 정확한 신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문제가 있는 결혼중개업소의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폐쇄조치 등의 규정을 두고 있어 여성결혼이민자가 예비 배우자 및 시댁 가족에 대한 신뢰와 한국의 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이 법은 처벌규정의 실효성, 제도시행의 가능한 담당인력의 확보, 관련 부처간 업무협력, 관련 국가 간 협력체계 등의 감독관리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며 국제중개업의 위법, 탈법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

「국적법」(개정 2005.7.5.)은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하는 법률이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인과 혼인 후 2년까지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1년을 거주한 뒤에만 체류연장 절차를 밟아 영주자격(F-5)이나 한국국적 신청(간이 귀화)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조건 때문에 결혼이민자의 경우 결혼 후 2년간의 부부관계가 위계적인 관계로 작용할 수 있으며 혼인관계가 중단된 결혼이민자는 체류연장 및 귀화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자녀양육 및 결혼이민자의 기본생계가 보장되지 않는다. 결국 국적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은 결혼이민자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존중하기 보다 국적을 얻기 위한 기간과 혼인관계 규정을 돕으로서 평등하고 건강한 부부관계의 형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규정은 여성결혼이민자의 남편과 시댁 가족에 대한 신뢰 및 법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여성결혼이민자 관련법을 살펴보면 다문화 사회 진입에 부응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등을 제정하였으나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기반을 이루었을 뿐 실질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배우자 및 시댁 가족

그리고 한국사회와 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네트워크 및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법 제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신뢰는 문화적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적 측면에 주목하여 사회적 자본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문화를 창출하는 것이다(홍영란 외, 2007).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디브리리포털 다문화지식정보 구축사업인 디브리리포털 다문화정보서비스를 통하여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및 일반인에게 다문화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다문화가족에게 유용한 주제별 콘텐츠, 다문화 관련 기관 소재 콘텐츠를 7개 언어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실질적인 이용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신뢰는 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갖으며 사회적 신뢰의 형성을 위해서는 친화적인 사회문화 환경, 규범의 확산이 필요하고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우천식 외, 2007).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업무 담당공무원 교육 및 연찬회사업과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고,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사업, 정보제공사업 등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다문화 가족을 이해하고 차별적인 인식을 개선 하는데 한계가 있다.

## **2) 네트워크 영역 지원 정책**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네트워크 지원 정책은 행정안전부의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행사사업, 여성결혼이민자 지도자 양성교육사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 결혼이민여성 1:1 맞춤형 농업교육사업,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조모임 육성사업 등이 있다. 친정부모 초청 행사사업은 장기간 친정

방문 경험이 없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친정부모를 초청하여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여성결혼이민자 지도자 양성교육사업은 지역사회 성공적으로 정착한 여성 결혼이민자를 지도자로 양성하여 동일 국적의 신규 여성결혼이민자의 도우미로 활용하려는 사업이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 결혼이민여성 1:1 맞춤형 농업교육사업은 농업 종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농업인과 전문여성농업인을 연계하여 품목별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며,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조 모임 육성사업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모임을 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은 사회적 자본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이 되며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상호부조, 정서적 안정 등의 다양한 유용성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업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결혼을 통해 이질적인 문화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과 본국친구 등을 중심으로 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유용하다.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개별적 호혜성을 강화하고 연대성을 동원하는데 좋고 여성결혼이민자와 외부 자원을 연계해주며 정보 전달에 보다 유용한 기능을 할 수 있다(Putnam, 2009).

### **3) 참여 영역 지원 정책**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참여 영역의 지원 정책에는 법무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고용노동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센터운영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 지원 사업 등이 있다. 법무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외국인사회통합지원사업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외국인사회통합지원사업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외국인근로자, 외국적 동포, 난민 등 체류외국인의 사회적응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인의 날 행사, 출입국정책자료 발간 및 정책홍보, 외국인사회통합자원봉사자 운영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사

업은 귀화대상자 등 우리나라 국민으로 진입할 예정인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향후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등에 대하여 한국어교육 또는 한국문화 적응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 집중거주지역을 중심으로 6개 지원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고,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자조집단 육성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 지원사업은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서비스사업을 실시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지원사업 및 이중언어교실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참여지원 정책은 여성결혼이민자와 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고자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나 건강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형성을 돕는 한 요인으로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사업의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업은 수요자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다양한 나라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처한 상황이 제 각각이고, 그에 따라 기대하는 정책 수요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정책의 특성과 한계가 뚜렷이 부각된다. 현재 정책은 한국인 남성이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를테면, 전체 결혼이민자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중국 조선족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 교육 수요가 거의 없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 학력수준, 한국어 구사능

력, 배우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지원 정책 수요는 제각각이다(설동훈, 2010).

또한, 기관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한국어, 한국요리강습, 전통문화체험 등이 주를 이루어 일방적으로 한국문화에 적응하도록 강조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주여성들이 문화적 배경, 가족관계에 대한 그들의 기대를 이해하기보다 한국사회의 이상적인 가족상황을 이주여성에게 소개해서 그들이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요구하는 것이다(이오복, 2011).

결국 이러한 여성결혼이민자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의 문제, 적응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의 성격, 사업의 중복 문제 등은 여성결혼이민자의 프로그램 참여를 저해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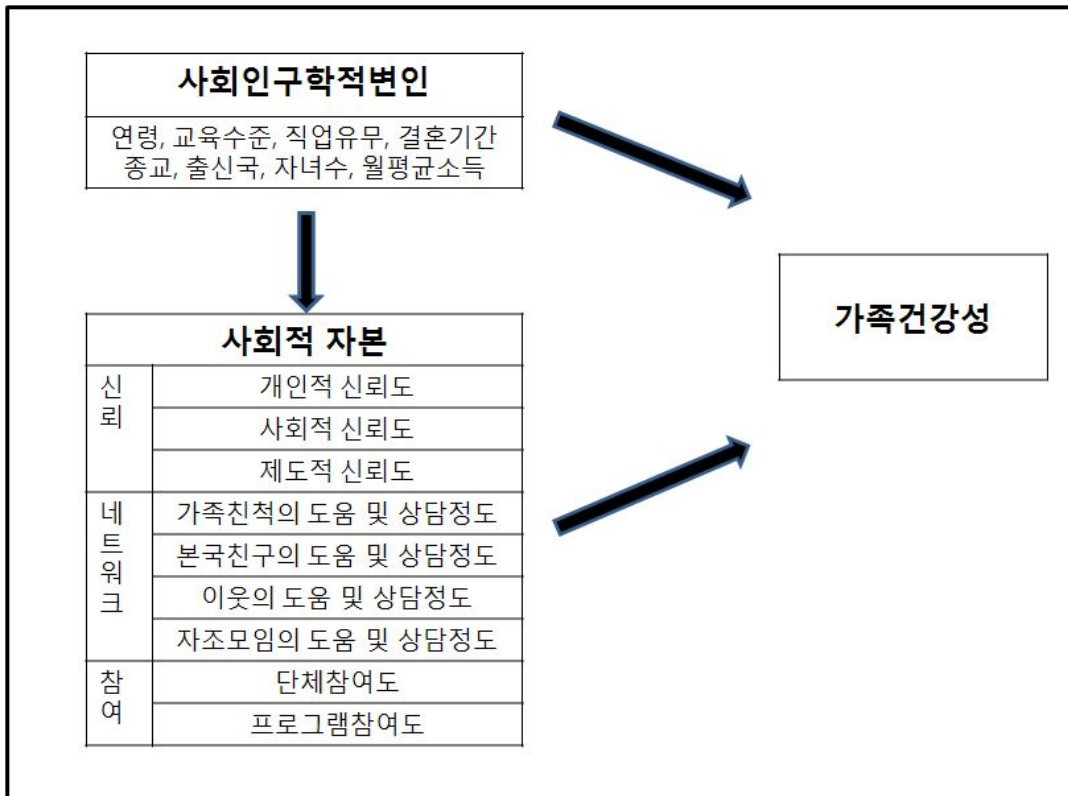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현재 국내의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사업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어 향후 사업의 개발과 프로그램 제공에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즉,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이 가진 사회적 자본의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사회적 신뢰와 상호이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고,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이 실질적인 사회적 지원의 교환을 위해 비공식적·친족적 사회관계망뿐 아니라 공식적·비친족적 사회관계망으로 범위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업의 목표가 맞춰져야 할 것이다.

### Ⅲ.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자본과 가족건강성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사회적 자본과 가족건강성의 차이를 분석하며,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각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1>과 같다.



<그림-1> 연구모형

##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과 가족건강성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자본이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다문화가족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자본과 가족건강성의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사회적 자본과 가족건강성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연구대상자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3-1.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자본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는 어떠한가?

3-2.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통제할 때 사회적 자본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자본이 가족건강성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작적 변인을 설정하였다.

#### 1) 여성결혼이민자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남성과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 정착할 목적으로 이주해온 외국인 여성으로 정의한다.

#### 2)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개인 간의 네트워크, 참여, 신뢰를 통해 축적된 무형의 자산으로 정의한다.

#### 3)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은 가족원간의 유대감과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문제나 위기 상황에서 문제해결 수행능력이 높고, 가족원간의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족의 특성으로 정의한다.

## IV.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실시에 앞서 조사도구의 적절성과 신뢰성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0년 2월 3일에서 10일까지 여성결혼이민자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관련된 지원 단체들의 연결망을 활용하여 모집하였다. 그 결과 설문내용이 모호하거나 응답을 꺼리는 문항들을 포함해 전공분야의 교수의 평가와 조언을 통해 사회적 자본의 하위영역인 참여와 관련한 문항 중 참여단체의 종류를 여성결혼이민자가 보통 참여하고 있는 모임들로 수정하고 참여프로그램의 종류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분석하여 수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응답하기에 쉽고 이해 가능한 문항으로 재조정하여 본 조사용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본 조사용 설문지는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5개 나라로 전문가를 통해 번역하여 준비하였다.

본 조사는 2010년 4월 20일에서 6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임의 선정하여 수행되었고, 여성결혼이민자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도 수행하여 표집방법은 유의 추출법(purposive sampling)과 눈덩이 표집법을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본 연구자에 의해서 조사방법을 교육받은 조사요원과 본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총 500부를 배부하여 회수하지 못한 설문지와 부실하게 기재되어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설문지 189부를 제외한 총 311부를 최종자료로 분석하였다. 최종 분석에서 제외된 설문지 발생 원인에는 눈덩이 표집법을 사용한 회수과정에서 회수 받지 못한 설문이 발생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표-4>와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부인의 경우 20~29세가 36.3%, 30~39세가 40.8%, 40~49세가 19.6%, 50세 이상이 2.3%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연령은 20~29세가 0.6%, 30~39세가 27.0%, 40~49세가 58.2%, 50세 이상이 13.2%의 결과를 보여 부인은 30~39세가 가장 많고, 남편은 40~49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부인의 경우 1~9년이 16.7%, 10~15년이 66.9%, 16~20년이 7.7%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경우 1~9년이 14.5%, 10~15년이 76.2%, 16~20년이 6.1%로 나타나 부인, 남편 모두 10~15년의 교육수준을 가장 많이 보이고 있다. 직업에서는 부인의 경우 무직이 80.4%로 가장 많아 대다수가 전업주부로 나타나 사무직 4.2%, 전문직 4.5%, 자영업 1.6%, 기술직 1.0%, 생산직 1.6%, 기타 6.8% 등 나머지 직업군에서는 적은 비율을 보였다. 남편의 경우 무직이 3.8%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며 사무직 11.9%, 전문직 7.1%, 자영업 13.2%, 기술직 20.6%, 생산직 13.2%, 기타 28.6% 등의 결과를 보였다. 종교는 부인, 남편 모두 의 경우 대다수 무교가 많았으며(부인 24.8%, 남편 41.5%), 여자의 경우 통일교 22.2%, 카톨릭 16.4%, 불교 15.1% 등의 순으로 보였고, 남편의 경우 통일교 18.3%, 불교 12.2%, 카톨릭 7.4%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은 중국 21.5%, 일본 21.5%, 베트남 23.8%, 필리핀 22.8%, 인도네시아 6.8%, 기타 3.2%로 나타났다. 자녀수 1명이 42.8%로 가장 많았으며 2명이 22.2%, 3명 이상이 10.6%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형태는

기혼이 82.3%로 가장 많았으며 별거 1.9%, 사별 1.0%, 기타 13.2%의 결과를 보였으며, 가족형태는 부부+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50.2%로 가장 많았으며 부부로만 이루어진 가족이 23.2%, 시부모+부부+자녀 형태가 15.4%, 시부모+부부 5.5%, 기타 5.5%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수준은 '필요한 짧은 대화 가능'이 43.4%로 가장 높았으며 '간단한 단어 사용'과 '모든 상황 대화 가능'이 25.4%를 보였으며 '거의 이해 못함'이 4.8%를 나타냈다. 또한, 월평균 소득은 '소득 없음'이 81.0% 가장 많았으며 '49만원 이하~99만원' 8.4%, '100~199만원' 6.2%, '200만원 이상' 4.5%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기간은 1~5년이 60.5%, 6~10년이 18.6%, 11~15년이 12.5%, 16년 이상이 7.7%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20~30대가 대부분 인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교육수준은 10~15년이 가장 많았다. 직업은 대다수가 전업주부였고, 종교에 있어 무교가 많았지만, 종교가 있는 경우 통일교가 가장 많았다. 국적에 있어서는 베트남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필리핀,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순을 보였다. 결혼형태 기혼인 경우가 대다수이며, 가족형태에 있어 부부+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반 이상을 차지했다. 연구대상자의 한국어수준은 '필요한 짧은 대화 가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구대상자의 월평균 소득은 대다수 전업주부이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결혼기간은 반 이상으로 1~5년이 가장 많았다.

<표-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11)

변인	분류	부인	남편	변인	분류	부인
		N(%)	N(%)			N(%)
연령	20~29세	113(36.3)	2(0.6)	국적	중국	67(21.5)
	30~39세	127(40.8)	84(27.0)		일본	67(21.5)
	40~49세	61(19.6)	181(58.2)		베트남	74(23.8)
	50세이상	7(2.3)	41(13.2)		필리핀	71(22.8)
					인도네시아	21(6.8)
기타	10(3.2)					
교육수준	1~9년	52(16.7)	45(14.5)	자녀수	자녀없음	70(22.5)
	10~15년	208(66.9)	237(76.2)		1명	133(42.8)
	16~20년	24(7.7)	19(6.1)		2명	69(22.2)
					3명 이상	33(10.6)
직업	무직	250(80.4)	12(3.8)	결혼형태	기혼	256(82.3)
	사무직	13(4.2)	37(11.9)		별거	6(1.9)
	전문직	14(4.5)	22(7.1)		사별	3(1.0)
	자영업	5(1.6)	41(13.2)		기타	41(13.2)
	기술직	3(1.0)	64(20.6)	가족형태	부부	72(23.2)
	생산직	5(1.6)	41(13.2)		부부+자녀	156(50.2)
	기타	21(6.8)	89(28.6)		시부모+부부+자녀	48(15.4)
				시부모+부부	17(5.5)	
				기타	17(5.5)	
종교	무교	77(24.8)	129(41.5)	한국어 수준	거의 이해 못함	15(4.8)
					간단한 단어사용	79(25.4)
					필요한 짧은 대화가능	135(43.4)
	개신교	24(7.7)	28(9.0)	월평균 소득	모든 상황 대화가능	79(25.4)
					소득 없음	252(81.0)
					49만원 이하~99만원	26(8.4)
	카톨릭	51(16.4)	23(7.4)	100~199만원	19(6.2)	
					200만원 이상	14(4.5)
	불교	47(15.1)	38(12.2)	결혼기간	1~5년	188(60.5)
통일교	69(22.2)	59(19.0)	6~10년		58(18.6)	
			11~15년		39(12.5)	
기타	40(12.9)	27(8.7)	16년 이상		24(7.7)	
합계		311 (100.0)	311 (100.0)	합계	311 (100.0)	

\*무응답으로 인하여 빈도 및 퍼센트의 합계가 다를 수 있음

##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자본과 가족건강성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도구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의 주요변수로서 종속변수로는 가족건강성(34문항) 그리고 독립변수로 사회인구학적변수(8문항)와 사회적 자본변수(52문항)로 구성되며, 설문지는 총 9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1) 사회인구학적 변수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응답자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종교유무, 자녀수, 출신국, 결혼기간, 월평균소득을 포함한다. 응답자의 연령은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회귀분석에서 연속변수로 처리하였고, 집단간 차이분석에서 20~29세, 30~39세, 40세 이상의 3집단으로 나누어 처리하였다. 교육수준은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회귀분석시 연속변수로 처리하였으며, 집단간 차이분석에서 1~9년, 10~15년, 16~20년의 3집단으로 나누어 처리하였다. 직업유무는 회귀분석에서 직업있음 1, 직업없음 0으로 더미화시켜 분석하였다. 종교유무는 회귀분석에서 종교있음 1, 직업없음 0으로 더미화시켜 분석하였다. 자녀수는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회귀분석에서 연속변수로 처리하였고, 집단간 차이분석에서 자녀없음, 자녀1명, 자녀2명, 자녀3명의 4집단으로 나누어 처리하였다. 출신국은 회귀분석에서 일본 1, 기타나라 0으로 더미화시켜 분석하였고, 집단간 차이분석에서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기타로 5개 나라로 분류하여 처리하였다. 결혼기간은 차이분석에서 1~5년, 6~10년, 11~15년, 16년 이상 4집단으로 나누어 처리하였고, 월평균소득은 차이분석에서 소득없음, 소득있음 2집단으로 나누어 처리하였다.

## 2)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이영현 외(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맞게 수정·보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주요 구성 요소는 신뢰, 네트워크, 참여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신뢰는 개인적 신뢰, 사회적 신뢰 및 제도적 신뢰를 포함한다. 네트워크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 시 사람들로부터 받는 도움 및 상담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가족친척 도움 및 상담정도, 본국친구 도움 및 상담정도, 이웃 도움 및 상담정도, 자조모임 도움 및 상담정도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참여는 단체 참여도, 프로그램 참여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신뢰

신뢰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인적 신뢰, 사회적 신뢰, 제도적 신뢰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 ① 개인적 신뢰

‘개인적 신뢰’를 알아보기 위해 시댁가족, 친정가족, 본국친구, 이웃, 직장동료, 낯선 사람(한국인), 낯선 사람(외국인) 등 여성결혼이민자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를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신뢰하지 않음’ 1점에서 ‘매우 신뢰함’ 5점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적 신뢰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76이다.

#### ② 사회적 신뢰

사회적 신뢰는 사회기관의 주요 종사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를 측정한 것으로서 주요 종사자에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중앙정부 장관 및 차관, 지방정부 도지사, 시장, 군수, 교사, 대학교수, 법관, 대기업 경영주, 노동조합 간부, 군장성, 의사, 경찰관, 종교인, 언론인, 사회복지사를 말한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신뢰하지 않음’ 1점에서 ‘매우 신뢰함’ 5점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신뢰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94이다.

### ③ 제도적 신뢰도

제도적 신뢰도는 다문화정책 결정과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문항 내용은 ‘다문화정책의 결정 절차가 합리적이다’, ‘다문화정책의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다문화정책의 결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 세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음’ 1점에서 ‘매우 그러함’ 5점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제도적 신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는 .88이었다.

## (2) 네트워크

대체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네트워크를 동원한다. 따라서 중요한 사건이나 시급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를 통해 그 사람의 네트워크를 파악할 수 있다.

네트워크에 대한 설문은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 및 친척, 본국친구, 이웃, 자조모임 등으로부터 상담이나 도움을 받는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정도를 파악한다.

### ① 가족·친척의 도움 및 상담 정도

가족친척 도움 및 상담 정도는 중요한 일이나 일상적인 사건으로 1) 집안에 결혼이나 상례 등의 경조사가 있을 때, 2) 집안에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3) 집안에 급히 돈이 필요할 때, 4) 직업이나 사업상의 도움이 필요할 때, 5) 개인적으로 심각한 고민이나 문제 상담, 6) 일상적인 사소한 문제나 고민의

대화 상대의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하여 가족친척으로부터 ‘도움받음’을 1, ‘도움못받음’을 0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6개 문항을 합산하여 0을 제외하고 평균을 구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전혀 도움 받지 못한 집단을 1, 평균 미만으로 도움 받은 집단을 2, 평균 이상으로 도움 받은 집단을 3으로 변환하여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친척의 도움 및 상담을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 ② 본국친구의 도움 및 상담 정도

본국친구 도움 및 상담 정도는 중요한 일이나 일상적인 사건으로 1) 집안에 결혼이나 상례 등의 경조사가 있을 때, 2) 집안에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3) 집안에 급히 돈이 필요할 때, 4) 직업이나 사업상의 도움이 필요할 때, 5) 개인적으로 심각한 고민이나 문제 상담, 6) 일상적인 사소한 문제나 고민의 대화 상대의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하여 본국친구로부터 ‘도움받음’을 1, ‘도움못받음’을 0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6개 문항을 합산하여 0을 제외하고 평균을 구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전혀 도움 받지 못한 집단을 1, 평균 미만으로 도움 받은 집단을 2, 평균 이상으로 도움 받은 집단을 3으로 변환하여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본국친구의 도움 및 상담을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 ③ 이웃의 도움 및 상담 정도

이웃의 도움 및 상담 정도는 중요한 일이나 일상적인 사건으로 1) 집안에 결혼이나 상례 등의 경조사가 있을 때, 2) 집안에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3) 집안에 급히 돈이 필요할 때, 4) 직업이나 사업상의 도움이 필요할 때, 5) 개인적으로 심각한 고민이나 문제 상담, 6) 일상적인 사소한 문제나 고민의 대화 상대의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하여 이웃으로부터 ‘도움받음’을 1, ‘도움못받음’을 0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6개 문항을 합산하여 0을 제외하고 평균을 구

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전혀 도움 받지 못한 집단을 1, 평균 미만으로 도움 받은 집단을 2, 평균 이상으로 도움 받은 집단을 3으로 변환하여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이웃의 도움 및 상담을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 ④ 자조모임의 도움 및 상담 정도

자조모임의 도움 및 상담 정도는 중요한 일이나 일상적인 사건으로 1) 집안에 결혼이나 상례 등의 경조사가 있을 때, 2) 집안에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3) 집안에 급히 돈이 필요할 때, 4) 직업이나 사업상의 도움이 필요할 때, 5) 개인적으로 심각한 고민이나 문제 상담, 6) 일상적인 사소한 문제나 고민의 대화 상대의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하여 자조모임으로부터 ‘도움받음’을 1, ‘도움못받음’을 0으로 응답 하도록 하여 6개 문항을 합산하여 0을 제외하고 평균을 구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전혀 도움 받지 못한 집단을 1, 평균 미만으로 도움 받은 집단을 2, 평균 이상으로 도움 받은 집단을 3으로 변환하여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조모임의 도움 및 상담을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 (3) 참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참여활동에 대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단체참여도와 여성결혼이민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참여도를 조사하였다.

#### ① 단체참여도

단체참여도를 조사하기 위해 1)반상회·이웃모임, 2)취미·문화·공부 모임, 3)계·친목모임 등의 3개 단체 등에 대한 참여 유무를 측정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참여함’ 1, ‘참여안함’ 0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3개 문항을 합산하여 0을 제외하고 평균을 구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전혀 참여하지 않은 집단을 1, 평균 미만으로 참여한 집단을 2, 평균 이상으로 참여한 집단을 3으

로 변환하여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단체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 ② 프로그램 참여도

프로그램 참여도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참여 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살펴본 것으로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한국어교실, 컴퓨터교실, 요리교실, 연극교육, 생활체험(은행, 보건소, 시장 둘러보기 등), 취미생활교육(한자공예, 비누공예 꽃꽂이 등), 전통예절교육(한복입기, 절하기), 유적지탐방(사찰 등), 멘토, 멘티 결연, 부부관계 · 가족관계 교육, 남편 및 국적별 자조 모임, 창업(가능) 교육, 취업상담, 상담(개별, 집단, 법률상담 등), 노래(합창단)교실, 물품지원(식품, 의류 등), 가정봉사(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상담(고민, 갈등, 정신건강 등), 학대 또는 가정폭력 상담, 자녀돌보기 및 보육 지원, 부모상담 · 부모교육, 엄마랑 아이랑 친밀감 형성, 건강한 요가교실(체력가꾸기), 기능사 자격교육(미용, 요리사자격증),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통번역서비스 활용,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아동양육, 한국어) 등 26개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진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프로그램에 '참여함' 1, '참여 안함' 0으로 체크하였으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응답한 26개 문항을 합산하여 0을 제외하고 평균을 구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전혀 참여하지 않은 집단을 1, 평균 미만으로 참여한 집단을 2, 평균 이상으로 참여한 집단을 3으로 변환하여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 3)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은 어은주, 유영주(1995)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하위 영역으로 가족원간의 유대(10문항), 가족원간의 의사소통(9문항),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6문항), 그리고 가족의 가치체계 공유(9문항) 등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건강성 4개 하위요인의 내용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족원간의 유대는 가족원간의 친밀감, 애정, 함께 시간 보내기, 가족의 화목, 관심, 지지, 사생활 인정 등의 정서적인 측면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정도, 개방성, 명확성, 표현의 자유, 의사소통 유형, 의사결정시의 발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은 문제나 위기발생 시 가족원이 공동의 노력과 책임으로 융통성 있게 대처해 나가는 능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가족의 가치체계 공유는 가족만의 가치관이나 규범이 있는지, 가족의 가치관이나 규범에 가족원이 모두 동의하는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체적인 가족건강성 및 각 하위 요인 별 총점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전체 가족건강성의 신뢰도는 .96으로 나타났다.

<표-5> 측정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측정도구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사회적 자본	신 뢰	개인적 신뢰	1, 2, 3, 4, 6, 7	7	.76	.92
		사회적 신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	.94	
		제도적 신뢰	1, 2, 3	3	.88	
	네 트 워 크	가족친척의 도움 및 상담정도	1, 2, 3, 4, 5, 6	6		
		본국친구의 도움 및 상담정도	1, 2, 3, 4, 5, 6	6		
		이웃의 도움 및 상담정도	1, 2, 3, 4, 5, 6	6		
		자조모임의 도움 및 상담정도	1, 2, 3, 4, 5, 6	6		
	참 여	단체참여도	1, 2, 3, 4	4		
		프로그램참여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6		
	가족 건강성	가족원간의 유대		2,5,9,14,18,21,24,27,31,33	10	.89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1,4,8,13,17,20,23,26,30	8	.92		
가족원간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3,6,10,15,19	5	.75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7,11,12,16,22,25,29,32,34	9	.82		

### 3.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해 SPSS 18.0 program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사회적자본, 가족건강성의 일반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사회적자본과 가족건강성의 차이 검증을 위해 t-검증(t-test)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사회적 자본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t-검정(t-test)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자본, 가족건강성의 일반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기초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사회적 자본과 가족건강성에 대한 차이 검증과 최종적으로 가족건강성에 대한 각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 1. 사회적 자본 및 가족건강성 실태

#### 1) 신뢰

##### (1) 개인적 신뢰

‘개인적 신뢰’를 알아보기 위해 시댁가족, 친정가족, 본국친구, 이웃, 직장동료, 낯선사람(한국인), 낯선사람(외국인)을 각각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선택 항목은 ‘매우 신뢰하지 않음’, ‘대체로 신뢰하지 않음’, ‘보통 신뢰함’, ‘대체로 신뢰함’, ‘매우 신뢰함’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개인적 신뢰에 대한 신뢰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표-6>와 같다. 조사결과 시댁가족, 친정가족, 본국친구, 이웃, 직장동료, 낯선사람(한국인), 낯선 사람(외국인) 7항목 가운데 가장 높은 신뢰를 보인 항목은 친정가족으로 평균 4.22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시댁가족(3.73), 본국친구(3.43), 직장동료(3.13), 이웃(2.98) 순으로 높았다. 낯선 한국인(2.57)과 낯선 외국인(2.48)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아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정도는 자국인과 외국인 구분 없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며(이재열, 2006; 이영현 외, 2006; 이숙중 외, 2008; 임우석, 2009),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주변 대상들에 대한 신뢰를 측정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이윤효, 2006). 전체 개인적 신

뢰의 평균은 3.22로 중간정도의 수준을 나타냈다.

<표-6>개인적 신뢰의 일반적 경향

구분	시댁 가족	친정 가족	본국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낮선 사람 (한국인)	낮선 사람 (외국인)	전체
M (SD)	3.73 (.881)	4.22 (.834)	3.43 (.719)	2.98 (.688)	3.13 (.657)	2.57 (.836)	2.48 (.849)	3.22 (.503)

## (2) 사회적 신뢰

주요 기관을 운영하거나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사회적 신뢰’ 정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개인적 신뢰’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신뢰하지 않음, ‘대체로 신뢰하지 않음’, ‘보통 신뢰함’, ‘대체로 신뢰함’, ‘매우 신뢰함’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표-7>과 같다. 조사결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중앙정부 장관 및 차관, 지방정부 도지사·시장·군수, 교사, 대학교수, 법관, 대기업 경영주, 노동조합 간부, 군장성, 의사, 경찰관, 종교인(교회,성당,절 등), 언론인, 사회복지사 등 14개 항목 가운데 가장 높은 신뢰를 보인 항목은 교사로 평균 3.68을 보였다. 이어서 의사(3.63), 경찰관(3.55), 대학교수(3.53), 법관(3.43), 사회복지사(3.40), 군장성(3.33), 종교인(3.43), 지방정부 도지사·시장·군수(3.27), 중앙정부 장관 및 차관(3.26), 대기업 경영주(3.25),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3.23), 노동조합 간부(3.23), 언론인(3.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회적 신뢰의 평균은 3.38로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있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영현 외(2006)의 연구는 전반적으로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에 대한 신뢰 정도가 낮게 나온 것과는 반대로 본 연구 결과는 대다수의 주요 기관을 운영하거나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해 중간 정도의 신뢰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7> 사회적 신뢰의 일반적 경향

구분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중앙정부 장관 및 차관	지방정부 도지사, 시장, 군수	교사	대학교수
M (SD)	3.23 (.874)	3.26 (.824)	3.27 (.802)	3.68 (.781)	3.53 (.765)
구분	법관	대기업경영주	노동조합 간부	군장성	의사
M (SD)	3.43 (.775)	3.25 (.724)	3.23 (.761)	3.33 (.805)	3.63 (.800)
구분	경찰관	종교인	언론인	사회복지사	전체
M (SD)	3.55 (.844)	3.43 (.977)	3.15 (.774)	3.40 (.737)	3.38 (.610)

### (3) 제도적 신뢰

제도적 신뢰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다문화정책 결정 절차의 합리성’, ‘다문화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 ‘다문화정책결정의 국민의사반영’ 등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표-8>와 같다. 조사결과 ‘다문화정책 결정 절차의 합리성’, ‘다문화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 ‘다문화정책결정의 국민의사반영’ 3가지 영역 중 가장 높은 신뢰를 보인 영역은 ‘다문화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으로 평균 3.58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다문화정책결정의 국민의사반영’(3.55), ‘다문화정책 결정 절차의 합리성’(3.50)의 순으로 나타나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의 다문화정책에 대해 다소 높게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영현 외(2006)의 연구결과와 상반되게 나타난 것이다. 전체 제도적 신뢰의 평균은 3.54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8>제도적 신뢰의 일반적 경향

구분	다문화정책 결정 절차의 합리성	다문화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	다문화정책결정 의 국민의사반영	전체
M (SD)	3.50 (.883)	3.58 (.930)	43 (13.8)	3.54 (.844)

이상으로 논의한 개인적 신뢰, 사회적 신뢰, 제도적 신뢰 수준을 비교해 보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신뢰 수준은 제도적 신뢰(3.54), 사회적 신뢰(3.38), 개인적 신뢰(3.2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적 신뢰가 높은 이영현 외(2006) 연구와는 다르게 세 가지 신뢰 수준에서 중간 정도 또는 평균 이상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 2) 네트워크

대체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네트워크를 동원한다. 따라서 중요한 사건이나 시급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받는가 도움을 못받는가를 통해 그 사람의 네트워크를 파악할 수 있다.

중요한 일이나 일상적인 사건으로 ①집안에 결혼이나 상례 등의 경조사가 있을 때, ②집안에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③집안에 급히 돈이 필요할 때, ④직업이나 사업상의 도움이 필요할 때, ⑤개인적으로 심각한 고민이나 문제 상담, ⑥일상적인 사소한 문제나 고민의 대화 상대의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하여 가족·친척, 본국친구, 이웃, 자조모임 등으로부터 도움 여부를 질문하였고, 이에 따른 분석결과는 <표-9>와 같다. 조사결과 ‘가족친척의 도움 및 상담정도’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것을 비교해 보면, ‘집안에 결혼이나 상례 등의 경조사가 있을 때’가 82.3%로 가장 많은 도움 및 상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안에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73.0%), ‘집안에 급히 돈이 필요할 때’(69.8%) 등의 순으로 도움 및 상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로, ‘본국친구의 도움 및 상담정도’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것을 살펴보면 ‘가족친척의 도움 및 상담정도’와는 다르게 ‘일상적인 사소한 문제나 고민의 대화 상대가 필요할 때’(60.5%), ‘개인적으로 심각한 고민이나 문제 상담이 필요할 때’(56.3%) 가장 많은 도움이나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6.3%). 이러한 결과는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심리적인 어려움이 발생 시 가족이나 친척보다 본국친구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집안에 결혼이나 상례 등의 경조사가 있을 때’(46.3%), ‘직업이나 사업상의 도움이 필요 할 때’(37.3%), ‘집안에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30.9%), ‘집안에 급히 돈이 필요할 때’(29.3%)의 순으로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박미정(2007)의 연구에서 가족으로부터는 물질적인 지지를, 자국친구로부터는 정서적 지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받는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영현 외(2006)의 연구에서 가족이나 친척을 도움이나 상담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반에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가족·친척과 더불어 본국친구로 부터의 도움과 상담을 받는 비율도 높았다.

<표-9> 가족·친척 및 본국친구를 통한 네트워크의 일반적 경향

(단위 : 명, %)

구분	가족친척의 도움 및 상담정도			본국친구의 도움 및 상담정도		
	도움 받음	도움 못받음	계	도움 받음	도움 못받음	계
집안에 결혼이나 상례 등의 경조사가 있을 때	256 (82.3)	55 (17.7)	311 (100)	144 (46.3)	167 (53.7)	311 (100)
집안에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227 (73.0)	84 (27.0)	311 (100)	96 (30.9)	215 (69.1)	311 (100)
집안에 급히 돈이 필요할 때	217 (69.8)	94 (30.2)	311 (100)	91 (29.3)	220 (70.7)	311 (100)
직업이나 사업상의 도움이 필요 할 때	179 (57.6)	132 (42.4)	311 (100)	116 (37.3)	195 (62.7)	311 (100)
개인적으로 심각한 고민이나 문제 상담이 필요할 때	195 (62.7)	116 (37.3)	311 (100)	175 (56.3)	136 (43.7)	311 (100)
일상적인 사소한 문제나 고민의 대화 상대가 필요할 때	195 (62.7)	116 (37.3)	311 (100)	188 (60.5)	123 (39.5)	311 (100)

이웃의 도움 및 상담정도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것을 비교해 보면, ‘집안에 결혼이나 상례 등의 경조사가 있을 때’가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집안에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25.1%), ‘일상적인 사소한 문제나 고민의 대화 상대가 필요할 때’(24.1%), ‘개인적으로 심각한 고민이나 문제 상담이 필요할

때'(12.5%), '직업이나 사업상의 도움이 필요할 때'(11.6%), '집안에 급히 돈이 필요할 때'(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박미정(2007)의 연구에서 이웃의 경우 정서적인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순으로 지지를 받는다는 결과와 반대로 드러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웃으로부터 도움이나 지지의 수준이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윤희(2006)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자조모임의 도움 및 상담정도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것을 비교해 보면, 대다수의 경우 도움을 받은 것보다 못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월등히 높아 자조모임을 통한 네트워크에서는 많은 도움이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박미정(2007)의 연구결과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족, 이웃, 자국 친구, 자조집단, 사회복지서비스 중 가장 적은 사회적지지를 받은 대상이 자조 집단으로 드러나 본 연구와 일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10> 이웃 및 자조모임을 통한 네트워크의 일반적 경향

(단위 : 명, %)

구분	이웃의 도움 및 상담정도			자조모임의 도움 및 상담정도		
	도움 받음	도움 못받음	계	도움 받음	도움 못받음	계
집안에 결혼이나 상례 등의 경조사가 있을 때	97 (31.2)	214 (68.8)	311 (100)	87 (28.0)	224 (72.0)	311 (100)
집안에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78 (25.1)	233 (74.9)	311 (100)	57 (18.3)	254 (81.7)	311 (100)
집안에 급히 돈이 필요할 때	29 (9.3)	282 (90.7)	311 (100)	38 (12.2)	273(87.8)	311 (100)
직업이나 사업상의 도움이 필요 할 때	36 (11.6)	275 (88.4)	311 (100)	49 (15.8)	262 (84.2)	311 (100)
개인적으로 심각한 고민이나 문제 상담이 필요할 때	39 (12.5)	272 (87.5)	311 (100)	78 (25.1)	233 (74.9)	311 (100)
일상적인 사소한 문제나 고민의 대화 상대가 필요할 때	75 (24.1)	236 (75.9)	311 (100)	78 (25.1)	233 (74.9)	311 (100)

### 3) 참여

#### (1) 단체 참여도

단체 참여도는 1년 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단체를 1)반상회/이웃 모임, 2)취미/문화/공부 모임, 3)계/친목모임 3가지 영역으로 유형화하고, 각각의 모임에 참여 여부를 질문한 것으로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11>와 같다.

조사결과 1년 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체는 ‘취미/문화/공부 모임’으로 311명 중 191명(61.4%)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계/친목 모임’, ‘반상회/이웃 모임’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11> 단체 참여도의 일반적 경향

(단위 : 명, %)

단체 및 모임	참여여부		
	참여함	참여안함	계
1) 반상회/이웃모임	135 (43.4)	176 (56.6)	311 (100)
2) 취미/문화/공부 모임	191 (61.4)	120 (38.6)	311 (100)
3) 계/친목모임	155 (49.8)	156 (50.2)	311 (100)

## (2) 프로그램 참여도

프로그램 참여도에 대한 분석한 결과는 <표-12>와 같다. 조사결과 한국어교실, 컴퓨터교실, 요리교실, 연극교육, 생활체험, 취미생활교육, 전통예절교육, 유적지탐방, 멘토, 멘티 결연, 부부관계 · 가족관계 교육, 남편 및 국적별 자조모임, 창업 교육, 취업상담, 상담, 노래교실, 물품지원, 가정봉사, 상담(고민, 갈등, 정신건강 등), 학대 또는 가정폭력 상담, 자녀돌보기 및 보육 지원, 부모상담 · 부모교육, 엄마랑 아이랑 친밀감 형성, 건강한 요가교실, 기능사 자격교육,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통번역서비스 활용,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아동양육, 한국어) 등 26개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참여도를 보인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면 ‘한국어교실’로 311명 중 255명(82.0%)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생활체험’(168명, 54.0%), ‘찾아가는 방문서비스’(141명, 45.3%), ‘요리교실’(140명, 45.0%) 등의 순서를 보였다. 반면 프로그램 참여도가 가장 낮은 프로그램으로는 ‘연극교육’(35명, 11.3%), ‘학대 또는 가정폭력 상담’(36명, 11.6%), ‘기능사 자격교육’(37명, 11.9%) 등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프로그램에 있어 대다수 비교적 낮은 참여도를 보였다.

<표-12> 프로그램 참여도의 일반적 경향

(단위 : 명, %)

구분	이용여부		
	이용함	이용한적 없음	계
1) 한국어교실	255(82.0)	56(18.0)	311(100)
2) 컴퓨터교실	105(33.8)	206(66.2)	311(100)
3) 요리교실	140(45.0)	171(55.0)	311(100)
4) 연극교육	35(11.3)	276(88.7)	311(100)
5) 생활체험	168(54.0)	143(46.0)	311(100)
6) 취미생활교육	77(24.8)	234(75.2)	311(100)
7) 전통예절교육	116(37.3)	195(62.7)	311(100)
8) 유적지탐방	126(40.5)	185(59.5)	311(100)
9) 멘토, 멘티 결연	82(26.4)	229(73.6)	311(100)
10) 부부관계, 가족관계 교육	112(36.0)	199(64.0)	311(100)
11) 남편 및 국적별 자조 모임	106(34.1)	205(65.9)	311(100)
12) 창업 교육, 취업상담	78(25.1)	233(74.9)	311(100)
13) 상담	69(22.2)	242(77.8)	311(100)
14) 노래(합창단)교실	60(19.3)	251(80.7)	311(100)
15) 물품지원(식료품, 의류 등)	71(22.8)	240(77.2)	311(100)
16) 가정봉사(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75(24.1)	236(75.9)	311(100)
17) 상담(고민, 갈등, 정신건강 등)	56(18.0)	255(82.0)	311(100)
18) 학대 또는 가정폭력 상담	36(11.6)	275(88.4)	311(100)
19) 자녀돌보기 및 보육 지원	92(29.6)	219(70.4)	311(100)
20) 부모상담, 부모교육	66(21.2)	245(78.8)	311(100)
21) 엄마랑 아이랑 친밀감 형성	64(20.6)	247(79.4)	311(100)
22) 건강한 요가교실	62(19.9)	249(80.1)	311(100)
23) 기능사 자격교육	37(11.9)	274(88.1)	311(100)
24)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127(40.8)	184(59.2)	311(100)
25) 통번역서비스 활용	68(21.9)	243(78.1)	311(100)
26)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141(45.3)	168(54.0)	311(100)

#### 4)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13>와 같다.

본 연구대상의 가족건강성 점수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63점으로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가족건강성을 연구한 전해정 외(2009)의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 점수를 5점 척도로 측정했을 때 3.61점으로 나온 것과 비슷하고 김혜신(2011)의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남성에게서 측정한 가족건강성이 각각 3.55점, 3.52점인 것과 유사한 수치이다. 또한, 배지영(2010)의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측정하여 3.67점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 가족건강성의 하위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가족원간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점수가 3.72점으로 가장 높고, 가족원간의 유대 3.71점,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3.63점,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3.49점의 순으로 가족의 건강성을 지각함을 알 수 있다. 가족건강성의 하위영역별 점수분포는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배지영(2011)의 연구에서 가족원간의 유대 3.77점, 가족원간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3.76점,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3.68점으로 나타났으며, 김혜신(2011)의 연구에서는 하위영역별 점수에서 가족원간의 유대가 3.83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3.57점, 가족원간의 문제해결수행능력 3.42점,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3.01점으로 나타나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것에서만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표-13> 가족건강성의 일반적 경향

하위 영역	번호	문항	평균	표준편차
가족원간의 유대	2	우리 가족은 서로를 위하는 일을 한다.	3.73	.90
	5	우리 가족은 다른 사람보다 우리 가족원에게 더 친근감을 느낀다.	3.72	.92
	9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	3.76	.95
	14	우리 가족은 서로를 감싸준다.	3.87	1.90
	18	우리 가족은 가정에 충실하다.	3.81	.86
	21	우리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한다.	3.64	1.00
	24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보인다.	3.70	.92
	27	우리 가족은 힘들어하는 가족원이 있을 때에는 다른 가족원들도 알고 있다.	3.51	.96
	31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진실하다.	3.73	.90
	33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애정 표현을 한다.	3.62	.96
	전체		3.71	.76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1	우리 가족은 함께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	3.62	.90
	4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솔직하다.	3.77	.92
	8	우리 가족은 서로 믿으며 숨김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산다.	3.66	.98
	13	우리 가족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족에게 말할 수 있다.	3.48	1.00
	17	우리는 서로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3.56	.98
	20	우리 가족은 어떤 결정할 일이 있을 때에는 가족 모두가 의견을 제시한다.	3.69	.94
	23	우리 가족은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직접 말한다.	3.64	.91
	26	우리 가족은 서로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	3.68	.89
30	우리 가족은 서로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3.52	.98	
	전체		3.63	.75
가족원간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3	우리 가족은 문제 해결할 때, 가족원 모두에게 최선의 해결책이 되도록 노력한다.	3.86	1.42
	6	우리 가족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가족원끼리 협력하면서 해결한다.	3.85	.90
	10	우리 가족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가족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다.	3.85	.96
	15	우리 가족은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족 모두가 책임을 동등하게 진다.	3.62	1.02
	19	우리 가족은 문제를 다각도로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3.73	.90
	28	우리 가족만의 전통이 있다.	3.41	1.98
	전체		3.72	.84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7	온 가족이 함께 할 일을 결정하기는 매우 쉽다.	3.49	0.98
	11	우리 가족은 서로 비슷한 가치관과 신념을 갖고 있다.	3.70	2.45
	12	우리 가족의 가치관과 규칙은 명확하다.	3.52	0.87
	16	우리 가족은 서로를 존중해 준다.	3.84	0.96
	22	우리 가족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해 일치한다.	3.48	0.92
	25	우리 가족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서로 일치한다.	3.61	0.96
	29	우리 가족만의 전통이 있다.	3.16	1.00
	32	우리 가족은 관심사와 취미가 같다.	3.05	0.97
34	우리는 가족의 규칙이나 가치관을 함께 만든다.	3.55	0.99	
	전체		3.49	.78
가족건강성 전체			3.63	0.72

### 3.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른 사회적자본 및 가족건강성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자본 및 가족건강성은 <표-14>를 통해 제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사회적자본

연구대상자의 사회적자본 중 개인적 신뢰에서는 연령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30~39세 집단이 20~29세 집단 보다 개인적 신뢰가 높았다( $F=3.881, p<.05$ ). 사회적 신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연령, 교육수준, 종교, 자녀수, 출신국, 결혼기간, 월평균소득, 직업유무이었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20~39세 집단이 40세 이상 집단 보다 사회적 신뢰가 높았고( $F=3.835, p<.05$ ), 교육수준이 1~9년인 집단이 10~20년인 집단 보다 사회적 신뢰가 높았다( $F=8.151, p<.001$ ). 또한, 종교가 다른 종교집단인 경우 통일교 집단 보다 사회적 신뢰가 높았고( $F=8.300, p<.001$ ),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수 1명, 자녀수 3명 이상 집단의 순으로 사회적 신뢰가 높았다( $F=6.329, p<.001$ ). 그리고 출신국이 일본인 경우 다른 국가집단 보다 사회적 신뢰가 낮았고( $F=15.453, p<.001$ ), 결혼기간이 1~5년 집단이 16년 이상 집단 보다 사회적 신뢰가 높았다( $F=7.772, p<.001$ ).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 보다 사회적 신뢰가 높았다( $t=-3.026, p<.01$ ). 그리고 직업이 없는 경우가 직업이 있는 경우 보다 사회적 신뢰가 높았다( $t=3.333, p<.001$ ).

제도적 신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연령, 교육수준, 종교, 자녀수, 출신국, 결혼기간이었다. 구체적으로 연령은 20~39세 집단이 40세 이상인 집단보다 제도적 신뢰가 높았고( $F=10.851, p<.001$ ), 교육수준이 1~15년인 집단이 16~20년 집단 보다 제도적 신뢰가 높았다( $F=6.298, p<.01$ ). 또한, 종교가 다른 종교 집단인 경우 통일교 보다 제도적 신뢰가 높았고( $F=13.791,$

p<.001), 자녀없음, 자녀수 1~2명인 경우가 3명 이상인 경우 보다 제도적 신뢰가 높았다(F=5.618, p<.001). 그리고 출신국이 필리핀, 중국·베트남·기타 집단, 일본의 순으로 제도적 신뢰가 높았고(F=20.073, p<.001), 결혼기간이 1~5년, 11~15년, 16년 이상 집단의 순으로 제도적 신뢰가 높았다(F=11.957, p<.001).

연구대상자의 네트워크 중 가족·친척의 도움 및 상담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직업유무와 월평균 소득에서 나타났으며 직업이 없는 경우가 직업이 있는 경우 보다 가족·친척의 도움 및 상담 정도가 높았고(t=2.544, p<.05),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 보다 가족·친척의 도움 및 상담정도가 높았다(t=-2.023, p<.05).

본국친구의 도움 및 상담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연령과 출신국, 결혼기간, 월평균 소득, 직업유무였다. 구체적으로 연령은 30~39세 집단이 20~29세, 40세 집단 보다 본국친구의 도움 및 상담 정도가 높았고(F=5.072, p<.01), 출신국이 기타 국가인 경우 중국·일본·베트남·필리핀 집단 보다 본국친구의 도움 및 상담 정도가 높았다(F=2.648, p<.05). 또한, 결혼기간이 6~10년 집단이 16년이상 집단 보다 본국친구의 도움 및 상담 정도가 높았다(F=3.306, p<.05). 그리고 월평균소득이 소득이 없을 때 소득이 있는 경우 보다 본국친구의 도움 및 상담정도가 높았다(t=-3.101, p<.001). 그리고 직업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 보다 본국친구의 도움 및 상담 정도가 높았다(t=-3.116, p<.01).

이웃의 도움 및 상담정도에서는 결혼기간에서만 유의성을 보였으나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2.840, p<.05).

자조모임의 도움 및 상담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연령, 종교, 자녀수, 출신국, 결혼기간, 월평균 소득, 직업유무였다. 구체적으로 연령은 30~40세 이상 집단이 20~29세 집단 보다 자조모임으로부터 도움 및 상담 정도가 높았고(F=5.237, p<.01), 종교가 통일교인 경우 무교·개신교·카톨릭·

불교 집단 보다 자조모임으로부터 도움 및 상담 정도가 높았다( $F=5.586$ ,  $p<.001$ ). 또한, 자녀수가 2명인 집단이 1명인 집단 보다 자조모임으로부터 도움 및 상담 정도가 높았고( $F=4.005$ ,  $p<.01$ ), 출신국이 일본과 기타 국가의 경우 중국·베트남·필리핀 집단 보다 자조모임의 도움 및 상담 정도가 높았다( $F=7.668$ ,  $p<.001$ ). 그리고 결혼기간이 11~15년 집단이 1~5년 집단보다 자조모임의 도움 및 상담정도가 높았고( $F=8.476$ ,  $p<.001$ ), 월평균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 보다 자조모임의 도움 및 상담정도가 높았다( $t=-3.894$ ,  $p<.001$ ). 직업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 보다 자조모임으로부터 도움 및 상담 정도가 높았다( $t=-3.802$ ,  $p<.001$ ).

연구대상자의 참여 중 단체참여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출신국과 월평균소득, 직업유무에서 나타났다. 우선 출신국이 필리핀인 경우 다른 국가 집단 보다 단체참여도가 높았으며( $F=3.113$ ,  $p<.05$ ), 월평균 소득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 보다 단체참여도가 높았다( $t=-2.236$ ,  $p<.05$ ). 또한, 직업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 보다 단체에 참여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t=-2.149$ ,  $p<.05$ ). 프로그램참여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종교, 출신국, 결혼기간, 월평균소득에서 나타났다. 먼저 종교가 카톨릭·기타 종교집단인 경우 무교·불교·통일교 집단 보다 프로그램참여도가 높았고( $F=4.559$ ,  $p<.001$ ), 출신국이 필리핀 집단, 기타 국가 집단, 중국·일본 집단의 순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가 높았다( $F=11.465$ ,  $p<.001$ ). 또한, 결혼기간이 1~15년이 16년 이상 집단 보다 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았고( $F=3.103$ ,  $p<.05$ ), 월평균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 보다 프로그램참여도가 높았다( $t=-3.238$ ,  $p<.001$ ). 그리고 직업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 보다 프로그램참여도가 높았다( $t=-2.885$ ,  $p<.01$ ).

##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건강성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가족건강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연령, 교육수준, 종교, 자녀수, 출신국, 결혼기간, 월평균소득, 직업유무였다. 즉, 연령의 경우 20~39세 집단이 40세 이상 집단 보다 가족건강성이 높았고( $F=5.782$ ,  $p<.01$ ), 교육수준에 있어 1~9년 집단이 10~15년 집단 보다 가족건강성이 높았다( $F=8.368$ ,  $p<.001$ ). 또한, 종교에 있어 개신교 집단이 통일교 집단 보다 가족건강성이 높았으며( $F=5.105$ ,  $p<.001$ ), 자녀가 없는 집단이 자녀수 3명이상 집단 보다 가족건강성이 높았다( $F=4.496$ ,  $p<.01$ ). 그리고 출신국은 다른 국가 집단이 일본인 집단 경우 보다 가족건강성이 높았고( $F=4.251$ ,  $p<.01$ ), 결혼기간이 1~10년이 11~16년 이상 보다 가족건강성이 높았다( $F=6.383$ ,  $p<.001$ ).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가족건강성이 높았고( $t=-2.513$ ,  $p<.05$ ), 직업이 없을 때 직업이 있는 경우 보다 가족건강성이 높았다( $t=2.572$ ,  $p<.05$ ).

<표-14>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

사회인구학적변인	가족건강성			신뢰									
				개인적 신뢰			사회적 신뢰			제도적 신뢰			
	M	SD	D	M	SD	D	M	SD	D	M	SD	D	
연령	20~29세	3.66	.62	A	3.12	.49	A	3.46	.55	A	3.68	.75	A
	30~39세	3.74	.74	A	3.30	.48	B	3.40	.66	A	3.63	.80	A
	40세 이상	3.38	.78	B	3.26	.55	AB	3.21	.60	B	3.13	.97	B
F값	5.782**			3.881*			3.835*			10.851***			
교육 수준	1~9년	3.96	.76	A	3.26	.54		3.66	.68	A	3.83	.94	A
	10~15년	3.52	.71	B	3.19	.50		3.34	.59	B	3.52	.83	A
	16~20년	3.81	.72	AB	3.39	.39		3.12	.48	B	3.11	.73	B
F값	8.368***			1.657			8.151***			6.298**			
종교	무교	3.77	.68	BC	3.23	.59		3.51	.64	A	3.59	.84	B
	개신교	3.90	.56	C	3.11	.55		3.51	.52	A	3.65	.73	B
	카톨릭	3.77	.60	BC	3.22	.50		3.57	.57	A	3.93	.78	B
	불교	3.69	.78	BC	3.11	.41		3.41	.68	A	3.86	.72	B
	통일교	3.31	.75	A	3.32	.42		3.00	.41	B	2.92	.71	A
	기타	3.48	.70	AB	3.20	.51		3.40	.55	A	3.66	.71	B
F값	5.105***			1.187			8.300***			13.791***			
자녀 수	자녀없음	3.83	.73	C	3.28	.59		3.62	.66	C	3.71	.79	B
	1명	3.67	.71	BC	3.21	.48		3.38	.58	B	3.58	.82	B
	2명	3.47	.71	AB	3.15	.47		3.28	.61	AB	3.55	.91	B
	3명이상	3.37	.66	A	3.29	.45		3.14	.43	A	3.01	.73	A
F값	4.496**			.916			6.329***			5.618***			
출신 국	중국	3.78	.76	B	3.25	.60		3.54	.70	B	3.55	.83	B
	일본	3.32	.78	A	3.31	.43		2.92	.35	A	2.90	.70	A
	베트남	3.65	.68	B	3.11	.49		3.44	.61	B	3.72	.75	B
	필리핀	3.71	.62	B	3.29	.51		3.59	.54	B	4.00	.74	C
	기타	3.70	.58	B	3.10	.39		3.39	.44	B	3.54	.66	B
F값	4.251**			2.322			15.453***			20.073***			
결혼 기간	1~5년	3.73	.70	A	3.21	.51		3.48	.64	A	3.72	.81	A
	6~10년	3.69	.67	A	3.27	.56		3.39	.527	AB	3.49	.81	AB
	11~15년	3.25	.81	B	3.18	.42		3.15	.47	BC	3.24	.71	B
	16년이상	3.36	.58	B	3.29	.47		2.97	.41	C	2.79	.88	C
F값	6.383***			.440			7.772***			11.957***			
월평균 소득	소득없음	3.68	.71		3.24	.52		3.43	.62		3.57	.86	
	소득있음	3.42	.72		3.17	.43		3.17	.52		3.44	.79	
t값	2.513*			.968			3.026**			1.096			
직업 유무	직업없음	3.69	.71		3.23	.52		3.44	.62		3.57	.86	
	직업있음	3.42	.70		3.17	.42		3.15	.50		3.44	.80	
t값	2.572*			.861			3.333***			1.040			

1) \* p<.05    \*\* p<.01    \*\*\* p<.001

<표-14> 계속

사회인구학적변인	네트워크												
	가족·친척의 도움 및 상담정도			본국친구의 도움 및 상담정도			이웃의 도움 및 상담정도			자조모임의 도움 및 상담정도			
	M	SD	D	M	SD	D	M	SD	D	M	SD	D	
연령	20~29세	2.44	.63		1.98	.82	A	1.62	.79		1.45	.68	A
	30~39세	2.48	.62		2.28	.75	B	1.66	.75		1.72	.86	B
	40세 이상	2.44	.63		2.01	.78	A	1.65	.81		1.81	.90	B
	F값	.141			5.072**			.088			5.237**		
교육 수준	1~9년	2.44	.57		1.98	.78		1.71	.82		1.54	.78	
	10~15년	2.46	.64		2.11	.81		1.62	.76		1.63	.82	
	16~20년	2.63	.49		2.46	.72		1.71	.86		1.92	.88	
	F값	.864			2.986			.374			1.786		
종교	무교	3.81	1.89		2.21	2.05		1.00	1.62		.65	1.40	B
	개신교	4.83	1.46		2.42	2.45		1.29	2.24		1.25	2.09	B
	카톨릭	4.22	2.01		2.47	2.16		.80	1.27		1.12	1.73	B
	불교	4.21	1.85		2.83	2.10		1.23	1.48		.91	1.35	B
	통일교	4.09	2.00		2.71	2.15		1.26	1.62		2.13	2.24	A
	기타	4.08	2.06		3.20	2.11		1.50	1.96		1.45	1.90	AB
F값	1.127			1.366			1.057			5.586***			
자녀 수	자녀없음	4.54	1.80		2.71	2.27		1.26	1.95		1.36	1.95	AB
	1명	3.80	1.95		2.44	2.00		.99	1.44		.86	1.47	A
	2명	4.26	1.97		2.71	2.24		1.17	1.73		1.75	2.21	B
	3명이상	3.94	2.00		2.70	2.27		1.39	1.54		1.48	1.94	AB
F값	2.561			.383			.743			4.005**			
출신 국	중국	3.82	1.88		2.70	2.00	A	1.30	1.68		.61	1.27	A
	일본	4.37	1.87		2.70	2.20	A	1.24	1.62		2.06	2.21	B
	베트남	3.96	1.96		2.14	2.21	A	1.07	1.61		.85	1.50	A
	필리핀	4.20	2.03		2.52	2.06	A	.87	1.48		1.21	1.79	A
	기타	4.39	1.80		3.58	2.11	B	1.39	2.04		1.90	2.17	B
F값	1.001			2.648*			.888			7.668***			
결혼 기간	1~5년	4.14	1.86		2.37	2.08	AB	.96	1.54		.88	1.53	A
	6~10년	3.81	2.26		3.22	2.15	A	1.57	1.82		1.41	2.00	AB
	11~15년	4.31	1.88		3.05	2.18	AB	1.03	1.37		2.23	2.19	C
	16년이상	4.17	1.86		2.17	2.35	B	1.63	2.22		2.08	2.30	BC
F값	.619			3.306*			2.840*			8.476***			
월평 균소 득	소득없음	4.00	1.92		2.43	2.69		1.08	1.60		1.05	1.71	
	소득있음	4.56	1.93		3.37	2.24		1.41	1.83		2.07	2.17	
t값	-2.023*			-3.101**			-1.393			-3.894***			
직업 유무	직업없음	4.00	1.92		2.42	2.09		1.06	1.60		1.05	1.71	
	직업있음	4.52	1.96		3.36	2.20		1.44	1.80		2.03	2.15	
t값	-1.906			-3.116**			-1.614			-3.802***			

1) \* p<.05    \*\* p<.01    \*\*\* p<.001

<표-14> 계속

사회인구학적변인		참여					
		단체참여도			프로그램 참여도		
		M	SD	D	M	SD	D
연령	20~29세	2.04	.78		2.35	.50	
	30~39세	2.05	.68		2.41	.55	
	40세 이상	1.90	.76		2.35	.54	
	F값	1.086			.497		
교육 수준	1~9년	1.92	.76		2.24	.47	
	10~15년	2.05	.73		2.39	.53	
	16~20년	1.96	.75		2.29	.62	
	F값	.676			1.901		
종교	무교	.50	.40		6.47	5.34	A
	개신교	.52	.41		8.21	5.18	AB
	카톨릭	.59	.37		10.42	6.57	C
	불교	.47	.40		6.48	5.64	A
	통일교	.48	.37		7.03	5.27	A
	기타	.60	.38		10.03	7.62	C
	F값	.993			4.559***		
자녀 수	자녀없음	.51	.37		6.21	5.54	
	1명	.51	.40		8.31	6.68	
	2명	.51	.38		7.74	5.44	
	3명이상	.61	.37		8.94	5.35	
	F값	.645			2.286		
출신 국	중국	.49	.38	A	5.83	4.22	A
	일본	.45	.35	A	5.87	4.41	A
	베트남	.50	.41	A	7.33	6.61	AB
	필리핀	.66	.36	B	11.41	6.55	C
	기타	.48	.39	A	9.23	6.69	B
	F값	3.113*			11.465***		
결혼 기간	1~5년	.51	.39		7.53	6.26	A
	6~10년	.54	.37		8.49	6.36	A
	11~15년	.58	.36		9.45	5.30	A
	16년이상	.47	.43		4.96	3.91	B
	F값	.544			3.103*		
월평균 소득	소득없음	.50	.39		7.25	5.95	
	소득있음	.62	.37		10.09	6.24	
t값	-2.236*			-3.238***			
직업 유무	직업없음	.50	.39		7.30	5.99	
	직업있음	.62	.37		9.80	6.16	
t값	-2.149			-2.885**			

1) \* p<.05    \*\* p<.01    \*\*\* p<.001

## 4. 사회적자본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 및 영향

### 1) 사회적자본에 따른 가족건강성 차이 분석

사회적 자본의 정도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개인적신뢰, 사회적신뢰, 제도적신뢰를 각각 매우 신뢰하지 않음, 대체로 신뢰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신뢰함, 매우 신뢰함으로 나누어 집단간 가족건강성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고, 가족·친척의 도움 및 상담정도, 본국친구의 도움 및 상담정도, 이웃의 도움 및 상담정도, 자조모임의 도움 및 상담정도를 도움 받지 않은 집단, 평균 미만 도움 받은 집단, 평균 이상 도움 받은 집단으로 나누어 가족건강성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단체참여도, 프로그램참여도에 있어서도 참여 안한 집단, 평균 미만 참여한 집단, 평균 이상 참여한 집단으로 나누어 가족건강성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15>와 같다.

개인적신뢰의 경우 평균 이상 집단의 가족건강성 평균은 3.85, 평균 미만 집단의 가족건강성은 3.44로 나타나 개인적신뢰가 평균 이상인 집단이 가족건강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신뢰의 경우도 평균 이상 집단의 가족건강성 평균이 3.92, 평균 미만 집단의 가족건강성 3.44로 나타나 사회적신뢰가 평균 이상 집단이 가족건강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제도적 신뢰도 평균 이상 집단의 가족건강성이 3.79로 평균 미만 집단의 가족건강성 평균 3.46 보다 높게 나타났고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제도적 신뢰가 평균 이상인 집단에서 가족건강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네트워크와 참여에 따른 가족건강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15> 사회적 자본의 차이에 따른 가족건강성 차이

사회적자본			가족건강성		
			M	SD	D
신뢰	개인적신뢰	1	3.44	.63	
		2	3.85	.75	
	t값		-.5163***		
	사회적신뢰	1	3.44	.68	
		2	3.92	.69	
	t값		-6.067***		
제도적신뢰	1	3.46	.69		
	2	3.79	.71		
	t값		-4.147***		
네트워크	가족·친척의 도움 및 상담정도	1	3.41	.75	
		2	3.58	.73	
		3	3.70	.70	
	F값		2.109		
	본국친구의 도움 및 상담정도	1	3.67	.70	
		2	3.68	.77	
		3	3.57	.69	
	F값		.733		
	이웃의 도움 및 상담정도	1	3.67	.73	
		2	3.59	.70	
		3	3.59	.72	
	F값		.549		
자조모임의 도움 및 상담정도	1	3.66	.73		
	2	3.60	.75		
	3	3.60	.68		
F값		.196			
참여	단체참여도	1	3.55	.72	
		2	3.63	.75	
		3	3.71	.66	
	F값		1.104		
	프로그램참여도	1	3.95	.75	
2		3.61	.70		
3		3.65	.72		
F값		.868			

\*\*\* p<.001, \*\* p<.01, \* p<.05

주1) 집단구분에서 사회적 자본수준을 신뢰의 경우 평균미만인 집단은 1로, 평균 이상인 집단은 2로 분류함. 네트워크에서 도움 및 상담 받은 것이 없는 집단 1, 평균미만 도움 받은 집단 2, 평균 이상 도움 받은 집단 3으로 분류함. 참여에서 참여 안한 집단 1, 평균미만인 참여 집단 2, 평균 이상 참여 집단 3으로 분류함.

## 2) 사회적자본이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앞서의 차이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할 때 사회적자본이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과 가족건강성의 하위영역별 변인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우선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구하여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한 후에 각각의 하위영역 분석별 모델 I, 모델II, 모델III의 3개로 구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종합적인 영향요인 분석결과는 <표-16>와 같다.

모델 I 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건강성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 $R^2$ )은 9.8%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출신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beta = -.237, p < .05$ ). 즉,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가 다른국가의 여성결혼이민자 보다 가족건강성을 낮게 지각했다.

모델II는 사회적자본과 가족건강성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 $R^2$ )은 25.8%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개인적 신뢰( $p < .001$ ), 사회적 신뢰( $p < .001$ ), 가족친척의 도움 및 상담정도( $p < .001$ )의 3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변수 가운데 개인적 신뢰, 사회적 신뢰, 가족친척의 도움 및 상담정도가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양(+)<sup>1</sup>의 부호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고 있어서 개인적 신뢰, 사회적 신뢰, 가족·친척의 도움 및 상담정도는 모두 가족건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적 신뢰와 사회적 신뢰가 높고, 가족친척의 도움 및 상담정도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개인적 신뢰가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사회적 신뢰와

가족친척의 도움 및 상담정도의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 요소 가운데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신뢰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시댁가족, 친척가족, 본국친구, 이웃, 직장동료, 낯선 사람(한국인), 낯선사람(외국인)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될 때 가족에 대한 건강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신뢰 역시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에 중요한 영향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 주요 기관을 이끄는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에 있어 중요한 일이나 일상적인 사건으로 집안에 결혼이나 상례 등의 경조사가 있을 때,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급히 돈이 필요할 때, 직업이나 사업상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개인적으로 심각한 고민이나 문제를 상담하고 싶을 때, 일상적인 사소한 문제나 고민의 대화 상대가 필요할 때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상담을 받는다고 지각 할수록 가족에 대한 건강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모델Ⅲ은 사회적 자본변수에 통제변수인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투입하여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를 보면,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 $R^2$ )은 31.7%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개인적 신뢰( $p < .001$ ), 제도적 신뢰( $p < .05$ ), 가족친척의 도움 및 상담정도( $p < .05$ ), 본국친구의 도움 및 상담정도( $p < .05$ )의 4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개인적 신뢰가 높고, 제도적 신뢰가 높으며 가족친척과 본국친구의 도움 및 상담정도가 높다고 지각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일수록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통제변수를 포함한 종합적 분석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만의 분석과는 달리 변수 가운데 출신국 변수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자본 변수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사회적 신뢰 변수가 통제변수를 포함한 종합적 분석에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도적 신뢰와 네트워크 중 본국친구의 도움 및 상담정도가 유의성 있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는 사회인구학적변인 보다 사회적자본 변인이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에 매우 강력한 영향변인이라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 자본 중 개인적 신뢰, 제도적 신뢰, 가족친척과 본국친구의 도움 및 상담정도가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표-16>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 영향요인 분석결과1)

변인		모델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B	β	B	β	B	β
인구학적 변인		연령	-.006	-.071			-.010	-.114
		교육수준	.004	.086			.003	.069
		직업유무	-.120	-.072			-.125	-.075
		자녀수	.028	.029			.058	.060
		출신국	-.369	-.237*			-.155	-.099
		종교유무	-.074	-.043			-.128	-.075
사회 적자 본	신뢰	개인적 신뢰			.323	.229***	.485	.324***
		사회적 신뢰			.310	.263***	.076	.061
		제도적 신뢰			.085	.101	.144	.174*
	네트 워크	가족친척의 도움 및 상담정도			.068	.182***	.063	.169*
		본국친구의 도움 및 상담정도			-.026	-.078	-.051	-.150*
		이웃의 도움 및 상담정도			-.036	-.082	-.029	-.061
		자조모임의 도움 및 상담정도			-.008	-.021	-.025	-.065
	참여	단체참여도			.073	.039	.150	.081
		프로그램참여도			-.002	-.014	.005	.042
	Constant			3.844		1.044		1.414
R <sup>2</sup>			.098		.258		.317	
F			3.432**		10.909***		5.322***	

\*p<.05 \*\*<.001 \*\*\*<.0001

\* 직업유무: 직업있음1, 직업없음0; 출신국: 일본1, 기타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기타국가); 종교유무: 종교있음1, 종교없음0

1)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 영향요인 분석에 있어 사회인구학적변인 중 연령과 결혼기간, 직업유무와 월평균소득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어 결혼기간, 월평균소득은 제외되었으며 결혼형태는 case sample 수의 불균등으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가족형태, 한국어 수준은 모델III에서 유의한 사회적 자본 변인수를 감소 시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 V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자본과 가족건강성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사회적 자본과 가족건강성의 차이를 분석하며,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각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가족건강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과 다문화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임의 선정하여 수행하였고,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분석에서는 총 311부가 회수되어 빈도와 백분율, 평균,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t검증, 중다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등이 실시되었다. 이상의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에 의해 실시되었다.

###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 중 개인적 신뢰 점수는 3.22점, 사회적 신뢰 점수는 3.38점, 제도적 신뢰 점수는 3.54점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개인적 신뢰의 경우 친정가족에 대한 신뢰 정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시댁가족, 본국친구, 직장동료, 이웃의 순으로 높았다.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정도는 낯선 한국인, 낯선 외국인 구분 없이 모두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신뢰는 교사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았으며, 의사, 경찰관, 대학교수, 법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제도적 신뢰는 '다문화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다문화정책 결정의 국민의사반영', '다문화정책 결정 절차의 합리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에서는 가족·친척으로부터 '집안에 결혼이나 상례 등의 경조사가 있을 때(82.3%)', '집안에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73.0%), '집안에 급히 돈이 필요할 때'(69.8%) 등의 도움과 상담을 주로 받았으며 본국친구로부터는 '일상적인 사소한 문제나 고민의 대화 상대가 필요할 때'(60.5%), '개인적으로 심각한 고민이나 문제 상담이 필요할 때'(56.3%) 주로 도움 및 상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웃과 자조모임으로부터는 '집안에 결혼이나 상례 등의 경조사가 있을 때가 가장 도움 및 상담을 받는 다고 응답하였으나 대다수의 경우 도움을 받은 것보다 못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이웃과 자조모임에 대한 네트워크 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참여에 있어 '취미·문화·공부 모임'(61.4%)에 대한 단체 참여도가 가장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단체 참여도가 낮게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도에 있어서는 '한국어 교실'(82.0%)이 가장 높았으며, '생활체험'(54.0%),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아동양육,한국어)'(45.3%)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다른프로그램의 참여도가 대체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의 점수는 평균 3.63점으로 높지 않게 나타났다. 가족건강성의 하위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가족원간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점수가 가장 높고,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 점수가 가장 낮았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사회적자본 중 개인적 신뢰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연령에서만 나타났으며 연령이 30~39세 집단이 20~29세 집단 보다 개인적 신뢰가 높았다.

사회적 신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연령, 교육수준, 종교, 자녀수, 출신국, 결혼기간, 월평균소득, 직업유무였다. 즉, 연령이 20~39세 집단이 40세 이상 집단 보다, 교육수준이 1~9년인 집단이 10~20년인 집단 보다, 종교가 다른 종교집단인 경우 통일교 집단 보다, 결혼기간이 1~5년 집단이

16년 이상 집단 보다, 월평균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 보다, 직업이 없는 경우가 직업이 있는 경우 보다, 사회적 신뢰가 높았다. 또한,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수 1명, 자녀수 3명 이상 집단의 순으로 사회적 신뢰가 높았고, 출신국이 일본인 경우 다른 국가집단 보다 사회적 신뢰가 낮았다.

제도적 신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연령, 교육수준, 종교, 자녀수, 출신국, 결혼기간이었다. 즉, 연령은 20~39세 집단이 40세 이상인 집단보다, 교육수준이 1~15년인 집단이 16~20년 집단 보다, 종교가 다른 종교 집단인 경우 통일교 보다, 자녀없음·자녀수 1~2명인 경우가 3명 이상인 경우 보다 제도적 신뢰가 높았다. 또한, 출신국이 필리핀, 중국·베트남·기타 집단, 일본의 순으로 제도적 신뢰가 높았고, 결혼기간이 1~5년, 11~15년, 16년 이상 집단의 순으로 제도적 신뢰가 높았다.

네트워크 중 가족·친척의 도움 및 상담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직업유무와 월평균 소득에서 나타났으며 직업이 없는 경우가 직업이 있는 경우 보다,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 보다 가족·친척의 도움 및 상담 정도가 높았다.

본국친구의 도움 및 상담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연령과 출신국, 결혼기간, 월평균 소득, 직업유무였다. 즉, 연령은 30~39세 집단이 20~29세, 40세 집단 보다, 출신국이 기타 국가인 경우 중국·일본·베트남·필리핀 집단 보다, 결혼기간이 6~10년 집단이 16년이상 집단 보다, 월평균소득이 소득이 없을 때 소득이 있는 경우 보다, 직업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 보다 본국친구의 도움 및 상담 정도가 높았다.

이웃의 도움 및 상담정도에서는 결혼기간에서만 유의성을 보였으나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조모임의 도움 및 상담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연령, 종교, 자녀수, 출신국, 결혼기간, 월평균 소득, 직업유무였다. 즉, 연령은 30~40세 이상 집단이 20~29세 집단 보다, 종교가 통일교인 경우 무교·개신교·카톨릭

릭·불교 집단 보다, 자녀수가 2명인 집단이 1명인 집단 보다, 출신국이 일본과 기타 국가의 경우 중국·베트남·필리핀 집단 보다, 결혼기간이 11~15년 집단이 1~5년 집단보다, 월평균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 보다, 직업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 보다 자조모임으로부터 도움 및 상담 정도가 높았다.

참여 중 단체참여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출신국과 월평균소득, 직업유무에서 나타났다. 즉, 출신국이 필리핀인 경우 다른 국가 집단 보다, 월평균 소득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 보다, 직업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 보다 단체에 참여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프로그램참여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종교, 출신국, 결혼기간, 월평균소득에서 나타났다. 즉, 종교가 카톨릭·기타 종교집단인 경우 무교·불교·통일교 집단 보다, 결혼기간이 1~15년이 16년 이상 집단 보다, 월평균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 보다, 직업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 보다 프로그램참여도가 높았다. 또한, 출신국이 필리핀 집단, 기타 국가 집단, 중국·일본 집단의 순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가 높았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가족건강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연령, 교육수준, 종교, 자녀수, 출신국, 결혼기간, 월평균소득, 직업유무였다. 즉, 연령의 경우 20~39세 집단이 40세 이상 집단 보다, 교육수준에 있어 1~9년 집단이 10~15년 집단 보다, 종교에 있어 개신교 집단이 통일교 집단 보다, 자녀가 없는 집단이 자녀수 3명이상 집단 보다, 출신국은 다른 국가 집단이 일본인 집단 경우 보다, 결혼기간이 1~10년이 11~16년 이상 보다, 월평균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직업이 없을 때 직업이 있는 경우 보다 가족건강성이 높았다.

셋째, 사회적자본에 따른 가족건강성 차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것은 개인적 신뢰, 사회적 신뢰, 제도적 신뢰도였다. 즉, 개인적 신뢰, 사회적 신뢰, 제도적 신뢰의 수준이 평균 이상인 집단의 가족건강성이 높았다.

넷째, 사회적자본이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신뢰에 있어 개인적 신뢰와 제도적 신뢰가 높고, 네트워크에 있어 가족 친척과 본국친구의 도움 및 상담정도가 높을 때 가족건강성이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 수준은 높지 않게 나타났고 특히, 하위영역 중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영역이 타 영역에 비해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으며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배지영, 2010; 김혜신, 2011)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에게 익숙하던 상징이나 언어 등이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익숙하던 것을 벗어나 새로운 실체와 역할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부부가 공동의 가치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김혜신, 2011).

또한, 여러 선행연구들과 더불어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은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이 건강한 가족생활을 해 나가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족건강성에 있어 연령, 교육수준, 종교, 자녀수, 출신국, 결혼기간, 월평균소득, 직업유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이 20~39세 집단이 40세 이상 집단 보다 가족건강성이 높았고, 교육수준이 1~9년 집단이 10~15년 집단 보다 가족건강성이 높았다. 또한, 종교가 개신교 집단이 통일교 집단 보다 가족건강성이 높았으며, 자녀가 없는 집단이 자녀수 3명이상 집단 보다 가족건강성이 높았다. 그리고 출신국이 일본인 경우 다른 국가 보다 가족건강성이 낮았고, 결혼기간이 1~10년 집단이 11년 이상 집단 보다 가족건강성이 높았다. 월평균소득이 없을 때 소득이 있는 경우 보다 가족건강성이 높았고, 직업이 없을 때 직업이 있는 경우 보다 가족건강성이 높았다. 분석결과에서 연령이 더 낮은 집단과 결혼기간이 더 짧

은 집단에서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연령이 높고, 결혼기간이 긴 집단의 경우 결혼 생활을 통해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 즉, 언어, 문화, 가치관 등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생활주기에서도 자녀의 출산과 더불어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 역할이 증가 하는 등의 결혼기간의 지속과 더불어 수행해야 하는 역할 및 문제의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자녀수가 없는 경우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보다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하였다는 결과와도 관련된다.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 보다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하였다는 결과는 학력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나영, 2007; 박미정·엄명용, 2009; 장은애, 2010). 이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학력이 높더라도 한국에서 학력에 대한 표준화된 인정이 부재하여 괜찮은 일자리로 접근하지 못하고, 남편의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지위에 피부양자로 종속되기 때문에 본국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향화되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민경, 2011). 출신국이 일본인 경우 다른 국가보다 가족건강성이 낮았다는 결과는 김혜신(2011)의 연구에서 부인이 일본인인 경우 중국, 필리핀, 기타 지역일 때 보다 가족건강성이 낮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보여 준다. 본 연구에서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가 통일교를 통해 결혼한 비율은 89.6%로 통일교 특성상 배우자 선택이 개인의 선택이기 보다 종교집단에서 합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혼 이후 부부갈등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이러한 결혼방식은 가족건강성을 낮게 인식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을 때 직업이 있어 소득이 있는 경우 보다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활동 유형 및 취업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결혼이민자의 30~40%가 취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취업형태는 주로 취업자의 50% 이상이 임시직이다(김이선 외, 2009). 또한, 취업의 목적으로 자기계발의 목적도 있으나 가계 소득을 보존하기 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심인선, 2008), 이러한 점이 가족

건강성을 낮추는 원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욕구 및 문제들을 잘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개입이 필요하며 출신국 특성에 맞는 가족정책의 개입 등이 요구된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에는 사회적 자본 중 개인적 신뢰가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으며 제도적 신뢰가 두 번째로 중요한 변인이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가 지각하는 개인적 신뢰와 제도적 신뢰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 주변의 시댁가족, 친정가족, 본국친구, 이웃, 직장동료, 낯선 사람에 대한 개인적 신뢰와 다문화정책에 대한 제도적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적 신뢰의 수준을 보면 중간 정도로 그중 시댁식구와 친정식구에 대한 신뢰가 높고, 본국친구와 직장동료는 중간 정도의 신뢰를 보였으나, 보편적 신뢰라고 할 수 있는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장지혜(2007)의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에게는 가족이라는 폐쇄적인 사회 구조 안에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크며 이는 사회 구조가 폐쇄적일 때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용이하다고 보는 ‘강한 연줄의 힘(strength of strong tie)’을 보여 준다는 결과와 관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남편과 가족은 여성결혼이민자가 보다 신뢰를 갖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중요한 지지원이다. 그런데 아내와의 문화적 차이는 인식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가부장적이고 부계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과정에서 폭행하거나 구타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윤형숙, 2004).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를 불신하여 외출금지와 인터넷 사용금지, 경제적 지원 차단 등 한국남편과 시댁가족의 불신은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남편, 시댁가족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 본국친구는 여성결혼이

민자에게 가족 다음으로 중요한 사회적 관계이다. 본국친구는 출신국의 사회·문화·역사적 맥락을 공유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비슷한 결혼생활에 대한 경험을 함께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위안과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 (박미정, 2007), 이들과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역 사회에서 한국인 동네이웃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집을 비울 경우 아이를 맡기거나 집을 봐준다거나 생활용품이나 가사도구 등을 빌리거나 급히 돈이 필요할 때 빌리거나 빌려주는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사회관계이다(김민경, 2011) 그런데 몇몇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한국인 동네이웃과의 유대는 오히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높이거나(이윤희, 2006), 이웃과의 부정적 상호작용은 생활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박미정·엄명용, 2009), 여전히 한국인 이웃과 여성결혼이민자 간의 신뢰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 여성결혼이민자의 신뢰 형성도 중요하다. 선행 연구 중 여성결혼이민자가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가 돈독 할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연구 결과는 이러한 연구결과와 관계가 있다(김민경, 2011). 마지막으로 낯선 사람과의 신뢰 형성도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에 중요한 변인일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보편적 신뢰는 공적 신뢰의 증가로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이재열, 1998). 이상과 같이 개인적 신뢰는 가족건강성에 중요한 변인임을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제도적 신뢰가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에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진 바 이와 관련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결혼이민자는 결혼 전 배우자 관련 정보로 소득, 성격, 재산 및 직업에서 정보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권구영·박근우, 2007; 김유경 등, 2008; 김혜신, 2011 재인용), 실제로 이러한 결혼과정 변인의 문제가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건강성을 낮춘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김혜신, 2011).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인과 혼인 후 2년까지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1

년을 거주한 뒤에만 체류연장 절차를 밟아 영주자격(F-5)이나 한국국적 신청(간이귀화)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조건 때문에 결혼이민자의 경우 결혼 후 2년간의 부부관계가 위계적인 관계로 작용할 수 있으며 혼인관계가 중단된 결혼이민자는 체류연장 및 귀화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자녀양육 및 결혼이민자의 기본생계가 보장되지 않는다. 결국 국적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은 결혼이민자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존중하기 보다 국적을 얻기 위한 기간과 혼인관계 규정을 돕으로서 평등하고 건강한 부부관계의 형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 규정은 여성결혼이민자의 남편과 시댁가족에 대한 신뢰 및 법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도적 신뢰는 연령, 교육수준, 종교, 자녀수, 출신국, 결혼기간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연령은 20~39세 집단이 40세 이상인 집단보다 제도적 신뢰가 높았고, 교육수준이 1~15년인 집단이 16~20년 집단보다 제도적 신뢰가 높았다. 또한, 종교가 통일교인 경우 다른 종교 집단보다 제도적 신뢰가 낮았고,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나머지 집단보다 제도적 신뢰가 낮았다. 그리고 출신국이 필리핀, 중국·베트남·기타 집단, 일본의 순으로 제도적 신뢰가 높았다. 결혼기간은 1~5년, 11~15년, 16년 이상 집단의 순으로 제도적 신뢰가 높았다.

이상의 결과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고 연령층일수록 사회와 제도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이영현 외, 2006). 사회적 자본은 거래 당사자 모두가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 축적되고 더욱 증가되는 정합 관계로 나타나며(Adler & Kwon, 2000), 사용하면 할수록 총량이 늘어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 자본이다(Putnam, 1993). 그런데 연령과 결혼기간이 더 높은 집단에서 제도적 신뢰가 낮게 나타난 것은 반대로 제도적 신뢰가 지속적인 교환과정에서 재생산 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가족과 친족생활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은 갈등과 적응문제를 보이며(한건수, 2006), 한국의 전통적 가족구조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성역할과 자녀에 대한 돌봄 노동, 불안정한 법적 지위 등의 문제에 있어(김민경, 2011), 제도적인 개입이 지속적으로 부족하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가 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가 다른 국가 여성결혼이민자 보다 제도적 신뢰가 낮았다는 결과는 한국보다 경제적·제도적 지원이 높은 일본인 여성이 한국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로서 위치지음으로서 일반 한국인 보다 제도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 즉, 여성결혼이민자가 살고 있는 가족의 경제수준을 보았을 때 월수입 100~200만원 미만인 38.4%, 100만원 미만이 21.3%로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나(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이러한 한국남편과 살고 있는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로서 느끼기에 제도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여 전반적인 제도적 신뢰를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욕구와 특성을 잘 파악해 제도적 신뢰를 높일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신뢰는 사회적 안정과 사회적 결속 그리고 협력을 증진시킴으로(Misztal, 1996; 난린, 2008),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결속되고, 안정감을 찾으며 가족의 건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므로 개인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네트워크는 가족이나 본국친구 등과 같은 동질적 성향을 지닌 집단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사회적 자본 중 네트워크는 가족·친척과 본국친구의 도움 및 상담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네트워크 수준에 있어서도 가족·친척과 본국친구와의 네트워크가 이웃, 직장동료, 낯선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수준에 비해 높았고 결혼기간이 짧은 집단에서 본국친구의 도움과 상담을 더 받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 변수 중 가족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

는 연구결과와 관련이 있고(장지혜, 2007), 친정·시댁과의 네트워크가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낮춘다는 결과와 관계된다(이윤희, 2006). 그리고 본국친구가 타국생활에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관련 있다(박미정, 2007). 본 연구결과와 선행 연구를 통해 보았을 때 여성결혼이민자는 이질적 성향의 이웃, 직장동료, 낯선 사람의 네트워크 보다 가족·친척과 본국친구와 같은 동질적인 성향을 지닌 집단의 사회적 자본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고, 한국사회 적응의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본국친구와 네트워크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박희봉·이희창(2006)의 연구에서도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자본 형성에 있어서 동질적 성향을 지닌 가족관계를 보다 많이 이용하고 가족 및 친지와 관계에 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반면, 남성은 사회자본 형성에 있어서 직장 상사와 이질적 단체참여 및 정치참여와 같은 이질적 성향을 지닌 집단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있다는 연구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과 시기에 맞는 네트워크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건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신뢰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할 때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포함한 종합적인 분석에서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 신뢰가 높은 집단에서 가족건강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았을 때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신뢰가 가족건강성에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 주요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신뢰가 높을 때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도 높게 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정책연구원(2007)의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한국인은 친구, 이웃, 동료로서 외국인을 수용하는 데에는 그다지 배타적 태도가 나타나지 않으나 국민·가족·혈연이라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서는 이러한 관대함이 급속도로 약해

지며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 출신의 외국인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러한 다문화에 대한 수용과 인식이 낮은 종사자가 여성결혼이민자와 접촉했을 때 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다문화를 수용하고 차별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신뢰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연령, 교육수준, 종교, 자녀수, 출신국, 결혼기간, 월평균소득, 직업유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연령이 20~39세 집단이 40세 이상 집단 보다 사회적 신뢰가 높게 나타났고, 결혼기간이 1~5년인 경우 16년 이상인 경우 보다 사회적 신뢰가 높았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수 3명 이상 집단 보다 사회적 신뢰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1~9년인 집단이 10~20년인 집단 보다 사회적 신뢰가 높게 나타났고, 종교가 통일교인 집단이 다른 종교집단 보다 사회적 신뢰가 낮게 나타났으며 출신국이 일본인 경우 다른 국가집단 보다 사회적 신뢰가 낮았다. 그리고 직업이 없고 월소득이 없는 경우 사회적 신뢰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기간의 연장과 더불어 사회적 신뢰가 향상되기 보다 낮아졌음을 의미하며 특히 출신국이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사회적 신뢰가 낮게 나타나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가 직업을 갖고 일 할 때 사회적 신뢰가 낮아졌으므로 작업 환경에서 종사자들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만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참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에 유의미한 변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에 있어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참여 실태와 특성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참여에 대한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참여의 실태에 있어 참여 유형 중 ‘취미·문화·공부 모임’에 대한 단체 참여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다른 단체 유형의 참여 수준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 ‘한국어교실’에 대한 참여 수준이 가장

높았고, 그 외에 프로그램에서는 참여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 중 종교단체 모임과 본국 친구와의 사교 및 친목모임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으나(이윤희, 2006)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 '한국어 교실'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연구들과 일치한다(김승권 외, 2009, 이오복, 2011).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참여 영역의 지원 정책에는 법무부의 외국인사회통합 지원사업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사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 지원사업 등이 있으나 모든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맞는 수요자 특성의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현재 정책은 한국인 남성이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를테면, 전체 결혼이민자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중국 조선족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 교육 수요가 거의 없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 학력수준, 한국어 구사능력, 배우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지원 정책 수요는 제 각각이다(설동훈, 2010). 실제로 단체참여도나 프로그램 참여도에 있어 출신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결혼기간에 있어서도 결혼기간이 1~15년 집단이 16년 이상 집단 보다 프로그램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관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한국어, 한국요리강습, 전통문화체험 등이 주를 이루어 일방적으로 한국문화에 적응하도록 강조한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주여성들이 문화적 배경, 가족관계에 대한 그들의 기대를 이해하기보다 한국사회의 이상적인 가족상황을 이주여성에게 소개해서 그들이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요구하는 것이다(이오복, 2011).

결국 이러한 여성결혼이민자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의 문제, 적응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의 성격 등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참여를 저해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체 및 프로그램에 있어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 결혼기간 등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고 지원 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적 신뢰와 제도적 신뢰는 가족건강성에 중요한 변인이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일반적인 결혼으로 인해 야기되는 어려움에 더하여 우리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반감에 맞서야 하며, 언어소통문제와 상대방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이때에 여성결혼이민자를 둘러싼 시댁 가족과 친정가족, 본국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은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관계자원이 된다.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적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결혼 전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한국에 대한 이해교육을 통해 사전에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결혼 후 가족과 친구, 이웃 등과 신뢰를 형성 할 수 있는 다문화 평등 교육 등의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에 결혼하여 왔지만 불안한 법적 신분으로 전통적인 가족구조 안에서 부인 역할과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더 중요시 되며 본국에서의 학력이 한국에서 반영되지 못하여 가사와 돌봄의 역할로만 위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불평등한 신분과 역할에 있어 한국의 정책과 제도는 적절한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신뢰를 낮추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결혼기간이 길고, 자녀가 더 많은 집단에서 제도적 신뢰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제도에 대한 낮은 신뢰로 연결됨을 반증한다. 그러므로 평등성에 입각한 법제도의 정비와 여성결혼이민자를 주축으로 한 모니터링단 구성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정책 평가 등 제도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가 다른 국가의 여성결혼이민자 보다 가족건강성이 낮았고, 사회적·제도적인 면에서도 신뢰가 낮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보다 사회·제도적 지원이 잘 되어 있는 일본에서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민 왔으며 한국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로서 일반 한국인 보다 사회 제도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이 통일교를 통한 합동결혼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즉, 통일교를 통한 합동결혼식은 배우자에 대한 선택이 개인적인 선택이 아닌 종교집단의 선택이므로 결혼 이후 다른 결혼이민자들 보다 갈등을 유발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러한 출신국의 특성에 맞는 정책 및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실, 한국요리강습, 전통문화체험 등 한국문화에 적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수요자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설동훈, 2010).

그러므로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가족건강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사회적·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비록 통일교를 통한 결혼의 선택이 본인에 의한 것이나 한국가족생활에 대한 예비 교육과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 출신국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과 욕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국단위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네트워크에 있어 가족·친척과 본국친구의 도움 및 상담 정도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건강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가족·친척, 본국친구와 같은 동질적 성향의 네트워크를 통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일종의 사회학적 강력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개별적 호혜성을 강화하고 연대성을 동원하는데 좋으며 외부 자원의 연계 및 정보 확

산에 보다 유용한 기능을 한다(Putnam, 2009).

그러므로 이러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특성을 보이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는 가족과 소통할 수 있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들이 필요하고, 본국친구와의 지속적인 연결망을 형성 할 수 있도록 돕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와 가족·친척, 본국친구의 네트워크를 강화 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에서도 이름만 다문화이지 여성결혼이민자 개인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육, 한국요리강습, 문화체험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거나 다문화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족·친척으로부터 적절한 도움과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의 1:1 사례관리 및 가족 관계 향상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본국의 문화와 정서 그리고 같은 한국의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본국친구들과 연결할 수 있는 자조모임 등의 프로그램은 정착 초기 고립감과 불안감이 높은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회적 신뢰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사회적 신뢰가 높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 주요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신뢰가 높을 때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다문화와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식은 있으나 여전히 차이와 다름에 대한 수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종사자들을 여성결혼이민자가 접촉할 경우 기관에 소속된 종사자와 더불어 기관의 신뢰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는 기관 종사자들에게 평등한 다문화 인식교육이 필요하며, 여성결혼이민자의 욕구에 맞도록 기관의 특성을 살린 상품개발, 교육체계, 프로그램 개발 등 보다 친화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에 단체참여도와 프로그램 참여도는 유의미한 변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단체참여도에 있어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가 다른 국가 여성결혼이민자 보다 단체참여도가 높았고, 직업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보다 단체참여도가 높았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도에 있어 종교가 카톨릭·기타 종교인 경우 무교·불교·통일교 보다 프로그램 참여도가 높고, 출신국이 필리핀, 기타 국가, 중국·일본 여성결혼이민자의 순으로 프로그램참여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단체참여도 및 프로그램 참여도 수준이 낮고, 현재 정부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단체 참여와 관련한 사업은 체계적이지 못하며 개인수준에서 자신의 욕구에 의해 조성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나 계획에 의한 단체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서도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한국어를 제외하고 프로그램 참여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이오복, 2011). 즉, 프로그램의 목적이 동화와 적응에서 벗어나 종교, 출신국 등의 특성과 욕구에 맞도록 개발·지원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결론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사회가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진입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 개인은 건강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며 국가에서는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때에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이나 친척, 이웃과 같은 개인들 간에 협력을 촉진하는 효율적인 장치가 된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는 신뢰, 네트워크, 참여 등을 통해 사회적자본이 축적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가 그들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변인임을 증명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 중 개인적 신뢰가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입증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에게는 가족이 가장 일차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회적인 관계이며 그 밖에 이웃, 본국 친구, 직장동료 등의 개인들에 대한 신뢰가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건강성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적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결혼 전 배우자 및 가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실질적인 한국생활교육, 가족본국친구, 이웃 등과 신뢰를 형성 할 수 있는 다문화 평등 교육 등의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 취업 및 직업생활의 어려움 등 법과 관련한 불평등한 일상생활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안정적인 법적 지위 보장, 여성결혼이민자 모니터링단을 통한 정책 제안 등의 방법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제도적 신뢰를 높여야 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네트워크에 있어 가족·친척의 도움 및 상담정도와 본국친구의 도움 및 상담정도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건강성을 높이는 변인이었다.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족·친척의 도움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1:1사례관리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이 지원되어야 하고, 본국친구의 적절한 도움과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국친구와 연결해 주는 브릿지 프로그램 및 사례관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과 가족건강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반영해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 사업, 교육 등이 이루어진다면 여성결혼이민자가 지닌 사회적 자본을 그 가족과 함께 축적해 가면서 가족의 건강성을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여성결혼이민자 개인과 가족에게 유용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를 찾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까지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수

준이었으며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은 개인 변인과 더불어 어떠한 가족관계 특성을 보이는가에 초점을 두거나 일부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있어 가족건강성이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중점을 둔 소수의 논문 뿐이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자본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가족건강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사회적지지나,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관계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은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정한 지지와 지지를 주는 사람에 초점을 두고 개입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는 미래 자원을 위한 관계의 투자로서 상호작용과 관계에 초점을 두며 신뢰, 네트워크, 참여 등과 같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진 중요한 자원으로서 삶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를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및 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임의 표본추출방법(Convenient Sampling)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전체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사회적 자본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을 함께 규명하지 못하였다.

셋째, 사회적자본 척도에 대한 표준화된 척도나 도구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기존연구들의 한계는 본 연구에서도 한계점으로 안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를 서울·경기 지역에만 한정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규모의 확률표본을 확보하여 연구가 수행되고, 또한 지방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와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들 연구는 우리 사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현실에 보다 적실한 연구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향후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다각적으로 필요하며 사회적 자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설문을 포함하는 세밀한 척도가 마련되고 다른 대상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수정함으로써 더욱 표준화된 사회적 자본 측정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마다 상이한 척도가 사용되는 현상이 지속되는 한 연구결과의 축적이 어렵게 되고, 사회적 자본 이론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적합한 표준화된 사회적 자본 척도의 개발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 간의 인과관계 분석에 대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향후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을 미치는 경로, 사회적 자본이 산출하는 결과와 그 메커니즘을 밝히는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들은 훨씬 더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권구영·박근우(2007)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전라남도 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사회연구 14, 187-219.
- 강수정(2010). 농촌주부들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 연구 -생활개선회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2), 71-85.
- 강순정(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2007). 경기도 내 국제이주 여성 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2007-02.
- 김나영(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사회적 지지와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경(2011). 한국사회로 결혼이주한 아시아 여성의 사회자본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93.
- 김수연(2010).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 실태분석과 정부지원정책 방안-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승권·김유경·조애저·김혜련·이혜경·설동훈·정기선·심인선(2009).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양희·김예리(2005).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의 욕구조사 분석 -서울시 동작구 주민을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생활문화산업연구소 생활과학논집 제22권, 15-29.

- 김오남(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옥남(2010). 도시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재사회화 과정 탐색. 재외한인학회 재외한인연구 제21권, 424-426.
- 김용학(2007). 사회 연결망 이론. 서울: 박영사.
- 김유경·조애저·최현미·이주연(2008).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윤재·김은희·최윤진(2006). 건강가정론. 서울: 동문사.
- 김일석·곽현근(2007). 동네주민조직 유형별 사회적 자본 분포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9(4), 151-178.
- 김이선(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정옥·장덕희(2003). 가족 건강성 증진을 위한 가족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3), 111-135.
- 김현숙(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이혜경(2009).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척도 개발: 청소년의 지각을 바탕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0(3), 33-59.
- 김혜신(2011).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성 부부의 가족건강성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생활환경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난린(2008). 사회자본. 김동윤·오소현 역,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 남영자·박태영(2009).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6(4), 47-71.
- 나동석·박종인(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지지 및 결혼만족과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1(4), 1-20.
- 박길성(2002). 사회적자본과 삶의 질.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45(2), 109-139.

- 박미정(2007). 사회적지지가 결혼이민여성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미정·엄명용(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2), 1-26.
- 박정숙·박옥임·김진희(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59-70.
- 박정윤(2007).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제 42차 학술대회 자료집.
- 박정은(1994). 초기노인여성의 사회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박재규(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지역 정착과 지원방안. 한국사회의 지구화와 근대성. 한국 사회학회전기사회학 대회자료집.
- 박채복(2008). 한국 이주자 사회통합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제46권, 253-274.
- 박희봉·이희창(2005). 삶의 만족에 미치는 요인 비교 분석:경제·사회적 요인인가? 사회자본요인인가?. 한국행정논집 17(3), 709-728.
- \_\_\_\_\_ (2006). 사회자본과 양성평등:사회자본의 성별특성과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4), 91-116.
-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 배지영(2010). 다문화가족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설동훈·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설동훈·이혜경·조성남(2006).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설동훈(2010). 다문화 가족정책의 현황과 과제.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138, 13-17.
- 서지원(2006). 사회자본으로서의 가족자원에 대한 이해와 활용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3), 1-14.
- 서종선·김혜연(2007). 건강가정 및 건강가정실천방안에 대한 인식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3), 81-105.
- 소은덕(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소은선(2007). 도시 영유아기 가족의 가족건강과 관련변인 분석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진광(2004). 사회적 자본 형성을 통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연계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18(2), 67-91.
- 송혜림(2008). 통합적 가정정책: 선언과 실천, 2008년도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3-18.
- 신경희(2005).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남성과 필리핀여성의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인선(2008). 결혼이주여성의 성인교육 경험이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 성인교육학회 10(4), 77-97.
- 안우환(2005).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순미(2001). 농촌가족의 건강성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4). 성별에 따른 농촌부부의 행복정도와 가족건강성 변인의 효과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53-172.

- 양순미·최규홍·강경하(2009). 결혼이주여성의 농촌 사회참여활동 실태 및 이에 따른 생활만족도 변화 -농업,지역사회,취업활동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16(4), 713-742.
- 어은주·유영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5.
- 어은주(1996). 한국 도시 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 변인 연구-자녀교육기 가족의 주부를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세연·곽영길(2010).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285-309.
- 오세영(2010). 다문화가족지원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교육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천식·김태중(2007). 한국 경제·사회와 사회적 자본. 한국개발연구원.
- 유계숙(2004). 건강가족을 위한 가족의 기능과 특성에 관한 성인의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173-180.
- 유석춘·장미혜(2002). 사회자본과 한국사회. 사회발전연구. 제8권, 87-125.
- 유영주(1991).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가정복지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가족생활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45-63.
- \_\_\_\_\_ (1994). 건강한 가족을 위한 가족원의 역할. 제16차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_\_\_\_\_ (2001). 건강가족연구. 서울: 교문사.
- \_\_\_\_\_ (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개발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19-151.
- 유현숙(2004). 여성의 인적·사회적·심리적 자본에 관한 실증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5). 여성자본의 실태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여성의 인적자본·사회자본·심리적 자본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4(2).

225-259.

- 유지혜(2011).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조손가정 가정건강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연정·이미숙(2007). 가족건강성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105-122.
- 윤종주(1994). 노인과 사회활동: 그 현황과 전망. 한국노년학회 14(1), 169-178.
- 임우석(2009). 사회적 자본과 노인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규삼(2000).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한·일 국적 가정을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주·양애경·장미혜·최현미·송성실·송유나(2008).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성휘·박정윤·김양희·장영은·어성연(2009). 빈곤가정 아동이 지각한 가족 건강성 및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2), 305-316.
- 이숙중·최준규·유희정(2008). 종로구 사회자본 연구:사회적 특성과 행위 변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8 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영현·나영선·김인국·유한구·김미란·이재혁(2006).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원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오복(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용승(2004). 호주의 다문화주의. 고려대학교 동아시아교육연구단 동아시아연구 제8권, 177-205.
- 이윤희(2006). 베트남 국제결혼가정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사회 자본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규(2009). 삶의 만족감과 사회적자본.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  
사회과학연구 제22권, 5-40.
- 이주재·김순규(2010). 결혼이민 여성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복지학 제30권, 299-322.
- 이재열(1998).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계간 사상, 제37권, 65-93.
- \_\_\_\_\_ (2006). 지역사회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3-49.
- 이혜경(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이태옥(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과 사회적 지지망 연구: 영광지역 여성을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은정(2007).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 장은애(2010).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정체성과 사회적 관계망이 생활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지혜(2007).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과 생활 만족도. 전북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장진경·오제은·한은주·류진아·원소영(2006).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  
영모형 개발 연구-역할 및 조직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  
지 11(1), 151-177.
- 전미선(2009). 여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한 가정폭력 현상과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 사례연구에 기반하여. 경희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혜정·민성혜·이민영·최혜영(2009). 결혼이주여성 가족 건강성에 영향을 미  
치는 경로. 한국가족복지학 14(2), 5-27.
- 정민자(2007). 통합적인 가정정책을 위한 패러다임과 과제. 한국가정관리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가정, 생활, 정책’ 자료집

- 정예리(2011). 해체가족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삶: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연택(2003). 사회정책연구의 분석틀로서 사회적자본. 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14권, 299-322.
- 정현미(2010). 결혼이민여성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71-102.
- 정현숙·유계숙(2001).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에 대한 청년의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3), 39-47.
- 조희금·김경신·정민자·송혜림·이승미·성미애·이현아(2005). 건강가정론. 서울: 신정.
- 주성훈(2010).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 쯔지모토 도시코(2006). 디아스포라로서의 주체형성을 위한 이주 여성의 저항과 전략:한국으로 이주한 필리핀 여성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경숙(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지지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희(1999). 한국인의 가족건강성 영역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정혜(2006). 맞벌이교사들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및 가족건강성. 한국 가정과 교육학회, 18(4), 1-11.
- 한건수(2006). 농촌 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회, 39(1), 195-219.
- 한명숙(2001).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와 수행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가설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영숙(2006).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동문제간

- 의 관계 연구-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상미(2007).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자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준(2007). 사회적 자본의 국제비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과 인력개발, 10(3), 14-21.
- 한승준(2008). 프랑스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2(3), 463-486.
- 허봉렬 · 조비룡 · 윤영호 · 박정용 · 차재호 · 최성재 · 변화순(1999). 한국가족의 위기분석과 기능평가. 대한가정의학회, 20(3), 252-258.
- 홍순숙(2006). 울산시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생활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영란(2007).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전략.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 34(4), 26-31.
- 홍영란 · 김태준 · 현영섭 · 소진광 · 이승희(2007). 사회적 자본 지표 개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황정미·김이선·이명진·최현·이동주(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통계청(2010). 한국의 사회동향 2010.
- \_\_\_\_\_ (2010).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 이혼)
- 표현영(2004). 국제결혼가정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경상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서남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dler, Paul S. & Seok-Woo Kwon.(2000). Social Capital: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In Erick L. Lesser(ed.) Knowledge and Social Capital: Foundation and Application. Butterworth-Heinemann.
- Balanchflower. David G. & Oswald. Andrew.(2000). Well-being over time in Britain and the US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7487.
- Barber, B.(1983). The Logic and Limits of Trust. New Brunswick, NJ:Rutgers Univ. Press.
- Belkin, G. S., & Nass, S.(1984). Psychology of Adjustment: the fully functioning family. MA: Allyn & Bacon.
- Benson, M. J. & Deal, J. E.(1995). Bridging the individual and the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3), 561-566.
- Bloom, B. L.(1985). A Factor analysis of self report measures of family functioning. Family Process, 24.
- Bourdieu, Pierre(1986).The Forms of Capital. in Richardson, J. D.(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Y: Greenwood.
- Bourdieu, P. & Wacquant, L.(1992). An invitation to reflexive soci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sas, C., Stinnett, N., DeFrain, J., William, R, & Lee P.(1984). Latin American family functioning, Family perspectives, 18.
- Chang, C. Y., & Myers, J. E.(2003). Cultural adaptation of the wellness evaluation of lifestyle: An assessment challeng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5(4), p239-251.

- Chou, P. H., Wang, H. H., Chiang, P., Lin, Y. R., Kang, C. W., & Lee, W. C.(2006). The pregnancy and labor experience of Southeast Asian women in transnational marriages. *Journal of Evidence-Based Nursing*, 2(4), 311-321.
- Coleman, Jame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 95-120.
- \_\_\_\_\_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302. Cambridge:Harvard University Press.
- Cote, S., & Healy, T.(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aris.
- Curran, D.(1983). *Traits of a healthy family*. Minneapolis: Winston Press.
- Defrain, J.(2003). *Qualities of strong families around the world*, 경희가족상담 · 교육센터 해외석학초청특별강연회 자료집
- Field, J.(2003). *Social capital*. London & New York : Routledge.
- Fukuyama, Francis.(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 Giddens, A.(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 Lin, P. L.(1994). *Characteristics of a Healthy Family. Marriage and the family in Chinese societies*, 9-22.
- Lin, Nan.(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UK: Cambridge Univ. Press.
- McCubbin, H. I. & Patterson, J. M.(1983). *The family stress process: The double ABCX model of adjustment and adaption*. In H. I. McCubbin, M. B. Sussman & J. M. Patterson(eds). *Social*

stress and the family: Advances and developments in family stress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Haworth Press.

Misztal, Barbara A.(1996). Trust in Modern Societies: The Search for the Bases of Social Order. Cambridge, UK:Polity Press, 1996.

Olson, D. H. & McCubbin, H. W.(1983). Families ; What Makes Them Work  
Beverly Hillis, CA : Sage.

Olson, D. H., Russell, C. S., & Sprenckle, D. H.(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I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Process, 1, 3-28.

Otto, H. A.(1962). What is a strong family. Marriage and Family Living, 24, 77-81.

Otto, H. A.(1975). The use of family strength concepts and methods in family life education: A handbook. Beverly Hills, CA: Holistic Press.

Palmore, E. B.(1981). Social Pattern in Normal Aging: Findings from the Duke longitudinal study.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Portes, Alexandro(1998). Social Capital :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1-24.

Putnam, Robert D.(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American Prospects, vol.4. no.13.: 35-42.

\_\_\_\_\_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vol.6 no.1:65-78.

\_\_\_\_\_ (2003). Democracies in Flux: The Evolution of Social Capital in Contemporary Society.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2009). 나 홀로 볼링 [Bowling alone] . (정승현 역).페이퍼로드.

(원전은 2000년 출판).

- Rodrik, D.(1998). Where Did All the Growth Go? External Shocks, Social Conflict, and Growth Collapses. NBER. Working Paper No. 6350. Cambridg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Stinnett, N.(1979). Strengthening families. Family Perspectives, 13.
- Wellman, B.(1983). Network Analysis: Some Basic Principles. Sociological Theory, vol. 1 : 155-200.
- Woolcock, Michael.(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vol. 27 no. 2 : 151-208.
- \_\_\_\_\_ (2001). The Place of Social capital in Understanding Social and Economic Out comes" In J. F. Helliwell(ed.). The Contribution of Human and Social capitalto Sustained Economic Growth and Well-being. International Symposium Report, Human Resource Development Canada and OECD.
- Yuanting, Z. & Jennifer, V. A.(2009). Marital dissolution among Interracial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1, 95-107.
- Zucker, Lynne G.(1986). Production of Trust: Institutional Sources of Economic Structure, 1840-1920.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vol. 8: 53-111.

매일경제(2010. 4. 27.). 캄보디아, 한국인과 결혼 금지조치 철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 <http://liveinkorea.mogef.go.kr>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

# ABSTRACT

## A Study on the Social Capital and Family Strength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Park Sun Min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o find out the relation between the social capital and family strength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ctual conditions of social capital and examined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the family strength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With the results, this study aimed to provide plans to improve the family strength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and basic data to establish multicultural policy.

As for the research subjects,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were randomly selected since they operated projects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and this study carried out a survey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through a structured questionnaire. For the final analysis, a total of 311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through which this study calculated the frequency, percentage and average and conducted one-way ANOVA (Analysis of Variance), t-test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etc. All of the data above was obtained through the SPSS WIN 18.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as for the actual condition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social capital, they showed scores more than the average all in individual trust, social trust and institutional trust. In case of individual trust, they showed the highest trust in their own family members, followed by their husbands' family members, their friends from the same countries, coworkers and neighbors. Their trust in strangers was low for either Koreans or foreigners. As for the social trust, they showed the highest trust in teachers, followed by doctors, police officers, university professors and judges. As for the institutional trust, they showed the highest trust in 'transparency of the process of making multicultural policy', followed by 'reflection of the public opinion on the multicultural policy-making' and 'rationality of the process of making multicultural policy'.

In the network, they were found to receive help or advice from their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when they have family occasions such as wedding or funeral rites' and 'when they have an emergency patient in their family'. On the other hand, they were found to receive help or advice from their friends from the same countries most of the time when they need someone to talk with about trivial daily problems or concerns' and 'when they think over serious personal problems or need to consult someone close'. Besides, they responded that they receive help or advice from their neighbors or self-help organizations most of the time 'when they have family occasions such as wedding or funeral rites. However, since in most of the cases, they responded that they didn't receive either help or advice from their neighbors or self-help organizations at last, the network level was relatively low for their

neighbors or self-help organizations.

In the participation, they showed the least group participation for 'hobby, cultural, study meetings'. In the participation in programs, they showed the highest level for 'Korean class', followed by 'life experience' and 'Door-door Home Visit Service'.

In the family strength, their average score was 3.63, which indicates that they perceive their family strengths are strong enough. Based on the scores for each sub-domain of the family strength, it was found that the score of their problem-solving performance ability was the highest and the score of sharing their value system between family members was the lowest.

Secondly, the difference between the social capital and family strength was examined depending on socio-demographic variables. As a resul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individual trust depending on the age of research subjects, the group at the age between 30 and 39 was found to have a higher perception than the group at the age between 20 and 29.

In the social trus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age, educational background, religion, the number of children, nationality, marriage period, average monthly income, and whether or not to have a job. That is, the group at the age between 20 and 39 perceived social trust more than the group at the age over 40, and the group with 1 to 9 years' educational background perceived social trust more than the group with 10 to 20 years' educational background. Moreover, the group whose religion was the Unification Church perceived less social trust than the group with other religions, and when they are from Japan, they

were found to perceive social trust less than groups from other countries. The group with 1 to 5 years' marriage period perceived more social trust than the group with over 16 years' marriage period. When they had no monthly income, they were found to perceive more social trust than when they had average monthly income, and when they had no job, they were found to perceive more social trust than those who had jobs.

In the institutional trust, differences were found in age, educational background, religion, the number of children, nationality and marriage period. Particularly speaking, the group at the age between 20 and 29 perceived institutional trust more than the group at the age over 40, and the group with 1 to 5 years' educational background perceived institutional trust more than the group with 16 to 20 years' educational background. Furthermore, the group whose religion was the Unification Church was found to perceive institutional trust less than the group with other religions, and when they had over 3 children, they were found to have less institutional trust than those who had no child or 1 to 2 children. Finally, they were found to show high institutional trust in the order of nationality, such as the Philippines, China, Vietnam, other countries and Japan, and in the order of marriage period, such as 1 to 5 years, 11 to 15 years and over 16 years.

Out of their networks, significant differences they showed in the degree of help and advice from their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mostly depended on whether they had jobs or not and their average monthly income. It was found that the degree of help and advice from their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was higher when they had no jobs

and when they had no income.

In the degree of help and advice from their friends with the same nationalities, the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 nationality, marriage period, average monthly income and whether or not they had jobs. Specifically speaking, the group at the age between 30 and 39 perceived that they received more help and advice from their friends with the same nationalities than the other group at the age between 20 and 29 and another group at the age over 40, and when they are from other countries, except China, Japan, Vietnam, the Philippines, they were found to have more help and advice from their friends with the same nationalities than the other groups. Moreover, the group with 6 to 10 years' marriage period was found to receive more help and advice from their friends with the same nationalities, and when they had no income and when they had no job, they were found to receive more help and advice from their friends with the same nationalities than the other cases.

In the degree of help and advice from their neighbors, they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arriage period, but there was no difference found between the groups.

In the degree of help and advice from their self-help organizations, the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 religion, the number of children, nationality, marriage period, average monthly income and whether or not they had jobs. Particularly, the group at the age between 30 and 40 perceived that they received more help and advice from their self-help organizations than the group at the age between 20 and 29, and the group whose religion was the Unification Church was found to receive more help and advice from the self-help organizations than the group

with other religions. Besides, when they had two children, they were found to receive more help and advice from their self-help organizations than the group having 1 child, and the group from Japan and other countries was found to receive more help and advice from the self-help organizations than the group from China, Vietnam and the Philippines. Finally, the group with 11 to 15 years' marriage period was found to receive more help and advice from the self-help organizations than the group with 1 to 5 years' marriage period, and when they had no job, they were found to receive more help and advice from their self-help organizations when they had no jobs.

In the degree of their organization participation out of all the kinds of participations, they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ationality, average monthly income and whether they had jobs or not. When they are from the Philippines, they showed a higher degree of organization participation than the others from China, Japan, Vietnam and the other countries, and when they had no monthly income and when they had no job, they showed a higher degree of organization participation than the other case.

In the degree of program participation, however, the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eligion, nationality, marriage period and average monthly income. The group whose religion was the Catholic Church or that had the other religions showed a higher degree of program participation than the group having no religion or whose religion was Buddhism or the Unification Church. Besides, the group with 11 to 15 years' marriage period had a higher degree of program participation than the group with over 16 years' marriage period, and when they had no

monthly income, they showed a higher degree of program participation than the other case.

Lastly, in the family strength, the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 educational background, religion, the number of children, marriage period, average monthly income and whether or not they had jobs. That is, the group at the age between 20 and 39 had a higher perception of family strength than the group at the age over 40. In the educational background, the group with 1 to 9 years' educational background had a higher perception of family strength than the group with 11 to 16 years' educational background. Besides, they perceived family strength higher in the group whose religion was Protestantism than the group whose religion was the Unification Church, and the group with no child was found to have higher family strength than the group having over 3 children. In terms of nationality, the group from Japan was found to have lower family strength than the group from the other countries, and when they had no monthly income and when they had no job, they were found to have higher family strength than the other cases.

Thirdly, differences they showed in the family strength depending on their social capital were from individual trust, social trust and institutional trust. In other words, the group with individual trust, social trust and institutional trust over the average was found to have a higher perception of family strength than the other groups.

Fourthly, when it comes to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the family strength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it was found that when they had high individual and social trust and received a high level of help and advice from their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their perception of

family strength was high.

On the other hand, in the participation out of their social capital, they didn't show significant results for family strength, but they showed the highest group participation in groups of hobby, culture and studying and showed a lower level of participation when they had jobs. Besides, they showed a high level of program participation in the Korean class, but they showed a low level of program participation in the group with over 16 years' marriage period. With those findings above, this study found it necessary to develop and support group types and programs fit for the characteristics and desire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With the results above, this study found it important to increase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dividual trust in individuals in their lives, such as their own families, husbands' families, coworkers and neighbors and improve their social trust in those who lead main social organizations. Moreover, this study also found it necessary to support all means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to receive help or advice from their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This study has a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could understand female marriage immigrant families much better by grasping the aspect of their social capital as an important resource while empirically investigating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their family strength.

Accordingly,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providing basic data for establishing policy to improve the family strength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Key Words: Family strength, Social capital (trust, network and participation)

## 부 록

부록 1. 관련변인 간 상관관계 표

부록 2.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가족원간의 유대) 영향요인 분석결과

부록 3.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가족원간의 의사소통) 영향요인 분석  
결과

부록 4.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가족원간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영향  
요인 분석결과

부록 5.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영향요인  
분석결과

부록 6. 설문지

- 여성결혼이민자용 한국어설문지
- 여성결혼이민자용 타갈로그어설문지
- 여성결혼이민자용 중국어설문지
- 여성결혼이민자용 베트남어설문지
- 여성결혼이민자용 일본어설문지
- 여성결혼이민자용 인도네시아어설문지

부록 1. 관련변인 간 상관관계

(N=311)

독립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연령																		
2 교육수준	.111																	
3 종교유무	.184 ***	0.73																
4 자녀수	.418 ***	.039	.228 ***															
5 출신국	.637 ***	.220 ***	.299 ***	.456 ***														
6 직업유무	.219 ***	.051	.118*	.103	.256 ***													
7 결혼기간	.722 ***	.093	.294 ***	.566 ***	.656 ***	.289 ***												
8 월평균소득	.222 ***	.050	.148 **	.111	.248 ***	.959 ***	.309 ***											
9 개인적신뢰	.126*	.094	-.019	.021	.077	-.049	.005	-.055										
10 사회적신뢰	-.180 ***	-.061	-.127 *	-.146 *	-.412 ***	-.186 ***	-.280 ***	-.170 ***	.369 ***									
11 제도적신뢰	-.271 ***	-.131 *	-.028	-.190 **	-.432 ***	-.059	-.335 ***	-.062	.162 **	.500 ***								
12 가족및친척도움 및 상담	-.055	.030	.093	.061	.083	.108	-.014	.114 *	.111	-.117	.040							
13 본국친구도움 및 상담	.084	.073	.107	.055	.052	.175 **	.077	.174 **	.038	-.004	.010	.294 ***						
14 이웃도움 및 상담	.036	.059	.052	.092	.044	.091	.117 *	.079	.018	-.013	.001	.287 ***	.400 ***					
15 자조도움 및 상담	.247 ***	.041	.188 ***	.179 **	.277 ***	.211 ***	-.289 ***	.216 ***	.069	-.055	-.005	.227 ***	.408 ***	.418 ***				
16 단체참여도	-.057	-.010	.030	.072	-.109	.123*	.026	-.127 *	.041	.133*	.116*	.007	.226 ***	.133 *	.161 **			
17 프로그램참여도	-.058	-.031	.131*	.013	-.169**	-.163**	-.001	.183 ***	-.014	.089	.136 *	.009	.112 *	-.033	.167 **	.265 ***		
18 가족 건강성	-.175**	.000	-.115*	-.163*	-.228***	-.146*	.243 ***	.143 *	.360 ***	.379 ***	.260 ***	.157 **	-.025	-.048	-.037	.076	.009	

\*p <.05    \*\*p<.01    \*\*\*p<.001

부록 2.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가족원간의 유대) 영향요인 분석결과

변인		모델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B	$\beta$	B	$\beta$	B	$\beta$		
인구학적변인	연령	-.010	-.113			-.013	-.144		
	교육수준	.003	.075			.002	.054		
	직업유무	-.148	-.082			-.162	-.089		
	자녀수	.050	.049			.074	.071		
	출신국	-.408	-.243*			-.208	-.123		
	종교유무	-.071	-.039			-.145	-.079		
사회적자본	신뢰	개인적 신뢰			.282	.189***	.484	.299***	
		사회적 신뢰			.321	.259***	.051	.039	
		제도적 신뢰도			.088	.099	.109	.122	
	네트워크	가족친척의 도움 및 상담정도			.072	.183***	.069	.173*	
		본국친구의 도움 및 상담정도			-.023	-.064	-.042	-.116	
		이웃의 도움 및 상담정도			-.035	-.075	-.023	-.046	
		자조모임의 도움 및 상담정도			-.012	-.030	-.037	-.088	
	참여	단체참여도			.029	.015	.090	.045	
		프로그램참여도			.000	.004	.011	.086	
	Constant		4.058		1.188		1.788		
R <sup>2</sup>		.120		.223		.298			
F		4.384***		9.141***		4.952***			

\*p<.05 \*\*<.001 \*\*\*<.0001

\* 출신국: 일본1, 기타국가0

부록 3.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가족원간의 의사소통) 영향요인 분석  
결과

변인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B	β	B	β	B	β	
인구학적변인	연령	-.004	-.042			-.007	-.079	
	교육수준	.004	.092			.003	.075	
	직업유무	-.053	-.031			-.039	-.022	
	자녀수	.043	.044			.074	.074	
	출신국	-.350	-.217*			-.162	-.100	
	종교유무	-.128	-.073			-.187	-.105	
사회적자본	신뢰	개인적 신뢰			.294	.201***	.463	.297***
		사회적 신뢰			.327	.269***	.103	.081
		제도적 신뢰도			.082	.094	.120	.140
	네트워크	가족친척의 도움 및 상담정도			.077	.199***	.067	.174*
		본국친구의 도움 및 상담정도			-.031	-.091	-.052	-.147
		이웃의 도움 및 상담정도			-.045	-.100	-.043	-.088
		자조모임의 도움 및 상담정도			.002	.004	-.025	-.063
	참여	단체참여도			.078	.040	.185	.096
		프로그램참여도			-.008	-.064	-.003	-.020
	Constant		3.725		1.101		1.395	
R <sup>2</sup>		.072		.245		.271		
F		2.503*		10.351***		4.326***		

\*p<.05 \*\*<.001 \*\*\*<.0001

\* 출신국: 일본1, 기타국가0

부록 4.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가족원간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영향요인 분석결과

변인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B	β	B	β	B	β	
인구학적변인	연령	-.013	-.136			-.016	-.163	
	교육수준	.004	.085			.003	.068	
	직업유무	-.082	-.043			-.057	-.030	
	자녀수	.061	.056			.094	.085	
	출신국	-.354	-.200*			-.147	-.082	
	종교유무	-.213	-.110			-.253	-.129	
사회적자본	신뢰	개인적 신뢰			.251	.152	.456	.266***
		사회적 신뢰			.361	.262***	.148	.105
		제도적 신뢰도			.103	.105	.151	.159
	네트워크	가족친척의 도움 및 상담정도			.079	.181**	.079	.187**
		본국친구의 도움 및 상담정도			-.029	-.076	-.056	-.146*
		이웃의 도움 및 상담정도			.000	-.001	-.028	-.052
		자조모임의 도움 및 상담정도			-.006	-.014	-.019	-.043
	참여	단체참여도			.034	.016	.160	.075
		프로그램참여도			-.006	-.044	-.004	-.032
	Constant		4.203		1.104		1.561	
R <sup>2</sup>		.116		.200		.305		
F		4.240***		7.961***		5.119***		

\*p<.05 \*\*<.001 \*\*\*<.0001

\* 출신국: 일본1, 기타국가0

부록 5.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건강성(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영향요인 분석결과

변인		모델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B	$\beta$	B	$\beta$	B	$\beta$
인구학적변인		연령	-.006	-.075			-.009	-.108
		교육수준	.004	.088			.003	.072
		직업유무	-.115	-.068			-.135	-.079
		자녀수	.046	.047			.072	.073
		출신국	-.423	-.268*			-.205	-.129
		종교유무	.092	*			.014	.008
사회적자본	신뢰	개인적 신뢰			.353	.230***	.468	.306***
		사회적 신뢰			.364	.286***	.130	.104
		제도적 신뢰도			.022	.024	.101	.120
	네트워크	가족친척의 도움 및 상담정도			.061	.152	.057	.151*
		본국친구의 도움 및 상담정도			-.015	-.042	-.047	-.136
		이웃의 도움 및 상담정도			-.039	-.083	-.031	-.065
		자조모임의 도움 및 상담정도			-.017	-.042	-.025	-.063
	참여	단체참여도			.157	.077	.192	.102
		프로그램참여도			.004	.030	.009	.070
	Constant			3.548		.768		1.111
R <sup>2</sup>			.095		.242		.306	
F			3.381**		10.156***		5.134***	

\*p<.05 \*\*<.001 \*\*\*<.0001

\* 출신국: 일본1, 기타국가0

부록 6. 설문지

**\* 설 문 지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준비 과정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자본과 가족건강성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제작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행복한 국제결혼을 위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0년 6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연구자 박 선 민

I. 다음은 당신의 주변사람들 또는 기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을 잘 읽고 해당하는 곳에 √표시 하십시오.

1. 당신은 다음에 지시되는 집단이나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문항	매우 신뢰하지 않음	대체로 신뢰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신뢰함	매우 신뢰함
1) 시댁가족					
2) 친정가족					
3) 본국친구					
4) 이웃					
5) 직장동료					
6) 낯선 사람(한국인)					
7) 낯선사람(외국인)					

2. 당신은 다음의 기관을 운영하거나 이끄는 사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사람	매우 신뢰하지 않음	대체로 신뢰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신뢰함	매우 신뢰함
1)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2) 중앙정부 장관 및 차관					
3) 지방정부 도지사, 시장, 군수					
4) 교사					
5) 대학교수					
6) 법관					
7) 대기업 경영주					
8) 노동조합 간부					
9) 군장성					
10) 의사					
11) 경찰관					
12) 종교인(교회,성당,절 등)					
13) 언론인					
14) 사회복지사					

3. 당신은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리함	매우그리함
1) 다문화정책의 결정 절차가 합리적이다.					
2) 다문화정책의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3) 다문화정책의 결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					

4. 당신은 다음과 같은 일이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다음의 각 사람들에게 상담이나 도움을 받습니까? 각 질문을 잘 읽고 해당하는 곳에 √표시 하십시오.

내용	가족 및 친척		본국 친구		이웃		자조모임	
	도움 받음	도움 못받음	도움 받음	도움 못받음	도움 받음	도움 못받음	도움 받음	도움 못받음
1) 집안에 결혼이나 상례 등의 경조사가 있을 때								
2) 집안에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3) 집안에 급히 돈이 필요할 때								
4) 직업이나 사업상의 도움이 필요할 때								
5) 개인적으로 심각한 고민이나 문제 상담이 필요할 때								
6) 일상적인 사소한 문제나 고민의 대화 상대가 필요할 때								

5. 다음은 당신이 참여하고 있는 여러 단체를 유형별로 제시한 것입니다. 각각의 유형의 단체에 대한 참여여부와 참여하는 단체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를 표시해 주십시오.

단체 및 모임	참여여부	
	참여안함	참여함
1) 반사회/이웃모임		
2) 취미/문화/학술 모임		
3) 종교단체		
4) 계/친목모임		
5) 기타 ( )		

6. 당신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여부와 만족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구분	이용여부		구분	이용여부	
	이용 한적 없음	이용 함		이용 한적 없음	이용 함
A. 한국어교실	①	②	N. 노래(합창단)교실	①	②
B. 컴퓨터교실	①	②	O. 물품지원(식료품, 의류 등)	①	②
C. 요리교실	①	②	P. 가정봉사(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①	②
D. 연극교육	①	②	Q. 상담(고민, 갈등, 정신건강 등)	①	②
E. 생활체험 (은행, 보건소, 시장 둘러보기 등)	①	②	R. 학대 또는 가정폭력 상담	①	②
F. 취미생활교육	①	②	S. 자녀돌보기 및 보육 지원	①	②

(한자공예, 비누공예 꽃꽂이 등)					
G. 전통예절교육(한복입기, 절하기)	①	②	T. 부모상담, 부모교육	①	②
H. 유적지탐방(사찰 등)	①	②	U. 엄마랑 아이랑 친밀감 형성	①	②
I. 멘토, 멘티 결연	①	②	V. 건강한 요가교실(체력가꾸기)	①	②
J. 부부관계, 가족관계 교육	①	②	W. 기능사 자격교육(미용, 요리사자격증)	①	②
K. 남편 및 국적별 자조 모임	①	②	X.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①	②
L. 창업(기능) 교육, 취업상담	①	②	Y. 통번역서비스 활용	①	②
M 상담(개별, 집단, 법률상담 등)	①	②	Z.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아동양육, 한국어)	①	②

II. 다음은 당신의 가족관계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 지않 다	별로 그렇 지않 다	그저 그렇 다	대체 로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1	우리 가족은 함께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					
2	우리 가족은 서로를 위하는 일을 한다.					
3	문제 해결할 때, 가족원 모두에게 최선의 해결책이 되도록 노력한다.					
4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솔직하다.					
5	우리 가족은 다른 사람보다 우리 가족원에게 더 친근감을 느낀다.					
6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가족원끼리 협력하면서 해결한다.					
7	온 가족이 함께 할 일을 결정하기는 매우 쉽다.					
8	우리 가족은 서로 믿으며 숨김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산다.					
9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					
10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가족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다.					
11	우리 가족은 서로 비슷한 가치관과 신념을 갖고 있다.					
12	우리 가족의 가치관과 규칙은 명확하다.					
13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족에게 말할 수 있다.					
14	우리 가족은 서로를 감싸준다.					
15	가족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족 모두가 책임을 동등하게 진다.					
16	우리 가족은 서로를 존중해 준다.					
17	우리는 서로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그저 그렇 다	대체 로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18	우리 가족은 가정에 충실하다.					
19	우리는 문제를 다각도로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20	어떤 결정할 일이 있을 때에는 가족 모두가 의견을 제시한다.					
21	우리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한다.					
22	우리 가족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해 일치한다.					
23	우리 가족은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직접 말한다.					
24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보인다.					
25	우리 가족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로 일치한다.					
26	우리는 서로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					
27	힘들어하는 가족원이 있을 때에는 다른 가족원들도 알고 있다.					
28	우리 가족 간의 의견차이는 극복하기가 쉽다.					
29	우리 가족만의 전통이 있다.					
30	우리 가족은 서로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31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진실하다.					
32	우리 가족은 관심사와 취미가 같다.					
33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애정 표현을 한다.					
34	우리는 가족의 규칙이나 가치관을 함께 만든다.					

Ⅲ. 다음은 당신의 개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표 해 주시거나,  
( )안에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1. 당신의 연령은? ( )세
2. 당신의 본국 국적은?  
①중국동포 ②중국한족 ③일본 ④베트남 ⑤필리핀 ⑥기타( )
3. 당신이 정규학교를 다닌 횟수는 총 몇 년입니까?(초등학교부터) ( )년
4. 당신은 결혼한지는 몇 년째 되십니까? ( )년 ( )개월
5. 당신의 직업은? ( )안에 해당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①직업 없음 ②가정주부 ③사무직 ④전문직 ⑤자영업  
⑥기술직 ⑦생산직 ⑧기타( )
6. 당신의 자녀수는? 아들( )명, 딸( )명, 자녀 없음( )
7. 당신의 현재 결혼형태는?  
①기혼 ②별거 ③이혼 ④사별 ⑤기타
8. 당신이 현재 살고 있는 가족의 형태는?  
①부부 ②부부와 자녀 ③시부모+ 부부+ 자녀 ④시부모+ 부부 ⑤기타
9. 당신의 한국어 능력수준은?  
①상(거의 모든 상황에서 불편함이 없이 말할 수 있는 정도)  
②중(간단한 단어를 말하는 정도, 생활에 필요한 짧은 대화가 가능한 정도)  
③하(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
10. 당신의 한달 평균 총소득(세금공제 이전의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①소득없음 ②49만원 이하 ③50~99만원 ④100~149만원  
⑤150~199만원 ⑥200~249만원 ⑦250~299만원 ⑧300~399만원  
⑨400~499만원 ⑩500만원 이상 ⑪잘 모르겠음

11.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안에 해당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 ①종교없음    ②개신교    ③카톨릭    ④불교    ⑤힌두교  
⑥이슬람교    ⑦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⑧기타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 Mga Katanunggan ng Pagsusuri \***  
**( Survey Questionnaire) 필리핀**

Magandang Araw Po!

Maraming salamat sa paglaan ninyo ng oras sa pagsusuring ito. Ang pagsusuri o survey na ito ay gagamitin sa thesis para sa preparasyon ng doktoral o masteral degree sa mataas na kolehiyo. Ang pagsusuring ito ay tungkol sa 『Mga katangian, kalusugan at pamumuhay ng mga kababaehang imigrante na nag-asawa ng Koreano』 .

Huwag mo kayong mag-atubiling sasagot sa mga katanungang ito. Ipangako po namin na ang inyong mga sagot ay amin pong panatiliing lihim o konpedensyal at gagawin lang po sa pananaliksik na ito para sa masaya at mapayapang pamumuhay ng mga dayuhang kababaihan na mga asawa ng Koreano .

Malugod po naming hiniling sa inyo na inyong sagutin ng buong katutuhanan ang bawat tanong at isipin po naming malaking tulong sa pananaliksik na ito.

Ako at ang pinuno namin ay taos-pusong nagpapasalamat sa inyong buong-puso na kooperasyon para sa pananaliksik na ito.

Maaraming salamat po.

2010년 6월

Sungshin Women's University

Rasearcher : Park Seon -min

I . Ang mga sumusunod na mga tanong ay tungkol sa mga tao at institusyon sa iyong paligid. Basahing mabuti ang bawat tanong at markahan ng ✓ ang kahon na angkop sa inyong sagot.

1. Gaano ka naniniwala sa mga tao, grupo, o komunidad sa iyong paligid?

Mga Tanong	Wala talagan g tiwala	Walang tiwala	Katamtaman	May tiwala	Talagang may tiwala
1)Pamilya ng asawa					
2) Pamilya ko					
3) Mga kapwa Pinoy (kalahi)					
4) Kapit-bahay					
5)Kasama sa trabaho					
6) Estranghero(Korean)					
7) Estranghero(Dayuhan)					

2. Gaano ka naniniwala sa mga taong namamahala ng institusyon o pamahalaan ?

Mga Tao	Wala talagang tiwala	Walang tiwala	Katamtaman	May tiwala	Talagang may tiwala
1) Mga mambabatas sa bansa at mga lokal na konseho.					
2) Mga matataas na pinuno at mga ministro sa gobyerno.					
3) Gobernador at mayor ng mga lokal na pamahalaan.					
4) Mga guro					
5) Mga propesor					
6) Manghuhukom (Judges)					
7)Mga namamahala ng malaking industriya					
8) Mga opisyaes ng unyon (union) ng mga manggagawa.					
9) Mga sundalo					
10) Mga Doktor					
11) Mga pulis					
12) Relihiyon (Simbahan Kapilya, Templo), at iba pa.					

13) Mga kulomnista (Journalists)					
14) Social Worker					

3. Ano sa palagay mo ang magandang proseso sa bansa tungkol sa paggawa ng batas at desisyon para sa mga Multikultural na Pamilya?

Nilalaman	Talagang hindi ganoon	Hindi ganoon	Ganoon sana	Dapat ganoon	Dapat ganoon talaga
1) Ang prosesong Multikultural ay makatuwiran na patakaran.					
2) Ang patakaran ng proseso sa paggawa ng batas para sa Multikultural na Pamilya ay dapat ilaan sa publiko.					
3) Ang mga polisiya ay dapat nakabase sa mga pangagailangan ng mga Multikultural na Pamilya.					

4. Ang mga sumusunod na mga tanong ay tungkol sa mga oras o panahon na nagkaroon ka ng problema saan nakatanggap ka ng tulong sa mga sumusunod. Basahing mabuti ang bawat tanong at markahan ng  $\checkmark$  ang kahon na angkop sa inyong sagot.

Mga Nilalaman	Pamilya at mga kamag-anak		Mga kababayan		Mga kapit bahay		Mga pagtipon -tipon	
	Nakatang gap	Hindi	Nakatang gap	Hindi	Nakatang gap	Hindi	Nakatanggap	Hindi
1) Sa panahon ng kasal o namatayan								
2) Sa panahong may emerhensiya sa pamilya								
3) Sa panahong nangangailangan ka ng pera.								
4) Sa panahong kailangan mo ng tulong para sa trabaho at negosyo								
5) Sa panahong may mabigat na problema at kailangan mo ng payo.								

6) Sa panahong may konting problema sa buhay at kailangan mo ng may kausap.								
---	--	--	--	--	--	--	--	--

5. Ang sumusunod ay katanunggan ay kung gaano ka kaaktibo na sumasali/

lumahok sa mga programa ng iba't-ibang organisasyon na iyong nasalian o pinapasukan. Paki-check ( √ ) lang sa kahon na angkop ng inyong sagot.

Organisasyon at grupo	Paglahok	
	Hindi sumali	Sumali
1) Konbensyon o meeting sa mga kapitbahay		
2) Hobbies / kultura / pang-akademiko na mga pagpupulong		
3) Relihiyosong grupo		
4) Kabuuang pagpupulong pulong		
5) Iba pa ( )		

7. Ang mga sumusunod na mga tanong ay tungkol sa kung gaano ka kuntento sa mga programa na iyong sinasalian. Paki-check ( √ ) lang sa numero na angkop ng inyong sagot.

klasipikasyon	Kung nakaganit o hindi	
	Hindi pa nakaganit	Nakaganit na
A. Korean Language Class	①	②
B. Computer Class	①	②
C. Cooking Class	①	②
D. drama / roleplay class	①	②

E. Pang-araw araw na pangangailanga: banko, sentro ,palengke ,atbp.	①	②
F. pag-aral ng wikang Intsik,pag-aayos ng bulaklak,at paggawa ng sabon	①	②
G. Pag-aral ng tradisyonal na kasuotan at pag- bow	①	②
H. Pagbibisita ng templo	①	②
I. Pagsali ng mentor/menti (pagpayo at serbisyong pag-aaral)	①	②
J. edukasyon para sa mag-asawa at pamilya	①	②
K. Pag-titipon tipon ng mga kalahi at mga asawa	①	②
L. Pagsasanay at pagpayo tungkol sa trabaho	①	②
M.Konsultasyon (indibidwal, grupo legal services, atbp)	①	②
N.Musika( Music class)	①	②
O. Mga Suporta (pagkain,damit,atbp)	①	②
P.Mga serbisyo pangbahay (paglilinis, paglalaba, paghanda ng pagkain )	①	②
Q. Pagkonsulta/payo (pagkabalisa, away/alitan,mental na kalusugan, at iba pa)	①	②
R. Pagpayo tungkol sa pang-aabuso	①	②
S Suportang pag-aalaga at pangangalaga ng mga bata	①	②
T.Payo sa mga magulang, edukasyong para sa magulang	①	②
U. Edukasyon para sa pagkamalapit loob ng ina at anak	①	②
V. Mga pisikal na ehersisyo	①	②
W.Pagsasanay para maging teknesiyan, Hair stylist o bilang chef	①	②
X. Pagkonsulta sa kalusugan at suportang medikal	①	②
Y. Paggamit ng Translation at Interpretation Services	①	②
Z. Serbisyong pagbisita sa bahay(Koraen class at pag-aalaga ng mga bata)	①	②

II. Ang mga sumusunod na mga katanunggan at tungkol sa iyong pakikipag-ugnayan sa iyong pamilya. Paki-check ( ✓ ) lang sa kahon na angkop ng inyong sagot.

No .	Mga Katanunggan	Talagan g Hindi	Hind i	Katamtama n	Ganoo n	Palagin g Ganoon
1	Ang pamilya namin ay palaging may oras na masayang mag-uusap usap.					
2	Ang aming pamilya ay nag-aalala palagi sa bawat isa't -isang gawain sa bahay.					
3	Para malutas ang problema, ang pinakamahasay na solusyon ay dapat lahat ng mga miyembro ng pamilya ay gagawa talaga ng paraan.					
4	Ang pamilya namin ay walang lihim na tinatago sa isa't -isa.					
5	Ang pamilya namin ay mas mabuti at palagay ang pakiramdam kaysa ibang tao.					
6	Kung ang pamilya namin ay may mahirap na problema nalulutas lahat sa pamamagitan ng pagtutulongan.					
7	Kung ang buong pamilya ay nagkaisa madaling matupad ang hinahangad.					
8	Ang pamilya namin ay may tiwala sa isa't -isa at walang tinatagong lihim at kasinunggalingan.					
9	Kami ay nagkakaisang pamilya.					
10	Kung may mahirap na gawain, maasahan ang tulong ng pamilya.					
11	Ang aming pamilya ay may parehong paniniwala at pananampalataya.					
12	Ang aming pamilya ay may tuntunin na malinaw.					
13	Maski sariling problema ay					

	maaaring sasabihin sa pamilya.					
14	Ang aming pamilya ay nagbibigay palagi ng proteksyon.					
15	Kung ang pamilya ay magkaroon ng problema, lahat ng miyembro at may responsibilidad.					
16	Ang aming pamilya ay may respeto at galang sa isa't-isa.					
17	Hindi namin sinasabi na huwag pansinin ang bawat isa.					
18	Kami ay tapat sa aming pamilya.					
19	Kami ay nagtutulonggan upang malutas ang problema mula sa bawat anggulo.					
20	Kung may mga bagay na dapat pag-desisyunan, lahat na miyembro sa pamilya ay mangmumungkahi.					
21	Ang aming pamilya ay nagkaunawaan sa bawat isa.					
22	Ang aming pamilya ay nagkaisa mali man o tama.					
23	Kung may gusto, masasabi namin ng diretsuhan.					
24	Ang aming pamilya ay may pag-alala sa bawat isa.					
25	Mahalaga sa aming pamilya ay ang mag-isip ng pareho tungkol sa mga bagay na ikakabuti sa pamilya.					
26	Pinakinggan naming mabuti ang bawat isa.					
27	Kung may ibang miyembro na naghihirap dapat malaman din sa ibang miyembro ng pamilya.					
28	Ang aming pamilya ay madaling magkaroon ng lutas kung may pagkakaiba ng opinyon sa mga miyembro ng pamilya					

29	Ang aming pamilya ay may mga natatanging tradisyon.					
30	Ang aming pamilya ay may kalayaan na makapagpakita sa kung ano ang niloloob.					
31	Kami ay tapat sa isa't isa.					
32	Kami ay may parehong hilig at gusto.					
33	Ang aming pag-ibig ay pinapakita sa bawat isa.					
34	Gumawa kami ng mga tuntunin na mahalaga para sa pamilya .					

III. Ang mga sumusunod ay mga katanungan tungkol sa iyong personal na inpormasyon. Maaring lang po na markahan ng ✓ ang naaangkop na numero o isulat sa loob ng blanko( ) ang inyong sagot .

**Mga Pangunahing Kaalaman**

1. Ilang taong gulang ka na? ( )taong gulang
2. Ano ang iyong nasyonalidad?  
①  
Intsik(Chinese)②Korean-Chinese③Japenese④Vietnamese⑤Filipino⑥Atbp( )
3. Kung kayo ay nakapag-aralan, ilang taon ang total sa iyong pag-aaral?  
(Mula sa elementarya) ( )taon
4. Ilang taon kanang kasal sa asawa mo? ( )taon ( )buwan
5. Ano ang trabaho? Pakisulat ng iyong sagot sa puwang( ).  
①Walang trabaho ②Katulong ③Nag-opisina ④Propesyonal  
⑤Sariling trabaho ⑥ Teknikal ⑦production worker/factory worker  
⑧iba pa( )
6. Ilang ang iyong anak? anak lalaki ( ), anak babae( ), wala( )
7. Ano ang iyong kasalukuyang anyo sa buhay?  
①Single ②Hiwalay ng tirahan ③diborsyado ④balo/widow ⑤iba pa
8. Sino ang iyong kasalukuyang kasama sa pamumuhay ?  
①Asawa ②asawa at mga anak ③In-laws,asawa at mga anak  
④In-laws at asawa ⑤ Iba pa
9. Ano ang iyong antas sa kasanayan ng wikang Korean?  
① Halos hindi makaintindi ②Makapagsalita ng mga simpleng salita lamang  
③ Makapagsalita ng mga maikling pangungusap na kailangan pang-araw-araw.

④ Halos makaintindi lahat ng pangungusap na walang paghihirap.

10. Magkano ang iyong buwanang kita/sahod(bago kukunan ng buwis)?

- ①Walang sahod ②490,000 or less ③500,000-990.000 ④  
1,000.000-1,490.000  
⑤1,500.0000-1,990.000 ⑥ 2,000.000-2,490.000 ⑦  
2,500.000~2,990.000  
⑧3,000.000~3,990.000 ⑨4,000.000~4,990.000 ⑩5,000.000 pataas⑪Hindi  
ko alam

11. Ano ang relihiyon mo at ng iyong asawa? Pakisulat ang angkop na  
numero ng iyong sagot sa loob ng ( ).

Ako( ), Asawa( )

- ①Walang relihiyon ② Protestante ③Katoliko ④Buddhist ⑤Hindu  
⑥Islam ⑦ World Unification Church (Unification Church) ⑧Iba pa

**\*Maraming Salamat Po sa inyong  
pagsagot lahat ng mga taong\***

## \* 问 卷\*(중국)

您好！感谢您在百忙之中抽出时间参与此次问卷。本调查是韩国诚信女子大学为研究<国际婚姻女性的家庭现状和家庭健康>情况而进行的。

本调查为匿名调查，您的回答进行无记名处理，答案没有对错之分。依照法律规定，确保您的答案仅作为学术研究的统计之用。您的每一个答案将直接影响到本次研究的结论，您诚实认真的回答将成为宝贵的研究资料，请您务必认真填写每一项问题。

衷心感谢您的帮助和支持。

2010 年 6 月

诚信女子大学 大学院  
研究者 朴 宣 玟

I. 下列是关于你周边人和所属机关的问题， 请回答。

1. 您对下列人或群体的信任度是？ 请在恰当的答案画 √ 号。

内 容	非常 不信任	有些 不信任	一般	有些 信任	非常 信任
1) 婆家					
2) 娘家					
3) 老乡					
4) 邻居					
5) 同事					
6) 陌生人 (韩国人)					
7) 陌生人 (外国人)					

2. 您对下列组织或机关领导人的信任度是？ 请在恰当的答案画 √ 号。

领导人	非常 不信任	有些 不信任	一般	有些 信任	非常 信任
1) 政府官员和地方政府官员					
2) 中央政府长官和次官					
3) 地方政府 总督, 市长, 军首.					
4) 教师					
5) 大学教授					
6) 法官					
7) 大企业经营人					
8) 工会领导人					
9) 将军					
10) 医生					
11) 警察					
12) 宗教人(教会, 圣堂, 庙 等)					
13) 记者					
14) 社会工作人员					

3. 您对我国大文化政策的决策过程有何看法? 请在恰当的答案画 √ 号.

内容	非常不同意	有些不同意	一般	有些同意	非常同意
1) 大文化政策的决策过程合理					
2) 大文化政策的决策过程是公开的					
3) 大文化政策的决策反映了大众的意见					

4. 您有以下困难时, 是否接受过以下人的帮助? 请在恰当的答案画 √ 号.

内容	家人, 亲戚		老乡		邻居		自助集会	
	有	否	有	否	有	否	有	否
1) 家里有喜事或丧事的时候								
2) 家里有应急患者时								
3) 家里急用钱时								
4) 在工作或生意上需要帮助时								
5) 自己有心事想跟别人谈时								
6) 在日常生活中想找人杂谈琐事时								

5. 下面是各类组织或集会的名称, 请回答您的参与有否与参与积极性.

内 容	参加有否	
	否	有
A. 韩国语教室	①	②
B. 电脑教室	①	②
C. 烹饪教室	①	②
D. 演技教室	①	②
E. 体验生活 (例如 去银行, 保健所, 逛街等)	①	②
F. 业余爱好教育 (插花 等 工艺活动)	①	②
G. 传统礼仪教育(穿韩服)	①	②
H. 探访古迹	①	②
I. 生活导向	①	②
J. 夫妻和家庭教育	①	②
K. 丈夫或老乡自助集会	①	②
L. 创业或就业咨询服务	①	②
M (个人, 集团, 法律咨询)	①	②
N. 练舞教室	①	②
O. (食品 衣物等)物质支援	①	②
P. 家政服务(清扫 洗涤 等)	①	②
Q. 心理咨询服务(烦恼 冲突 等)	①	②
R. 虐待 家庭暴力咨询服务	①	②
S. 保育儿童支援	①	②
T. 父母咨询和教育	①	②
U. 建立母子(女)亲密关系教育	①	②
V. 瑜伽教室	①	②
W. 技师资格证教育(美容 烹饪 等)	①	②

X. 健康检查和医疗费支援	①	②
Y. 翻译服务	①	②
Z. 家庭服务(保育, 韩语)	①	②

6. 下面是各类活动的名称, 请回答您的参与有否与参与满意度. 请在恰当的答案画√号.

组织或集会	参加有否	
	有	否
1) 邻里集会		
2) 业余爱好/文化或学术集会)		
3) 宗教集会		
4) 促进友谊集会		
5) 其它 ( )		

II. 下面是关于家庭成员关系的问题, 请在恰当的答案上画√号.

题号	内容	非常不同意	有些不同意	一般	有些同意	非常同意
1	我的家人喜欢聚在一起聊天					
2	家庭成员互相照顾					
3	解决问题时, 尽量把每个家庭成员的立场都考虑周到					
4	家庭成员互相很坦诚					
5	家庭成员之间具有亲密感					
6	出现难题时, 家庭成员协力解决					
7	很容易找到家人能够一起参加的活动					
8	家庭成员互相信任, 很坦诚.					

9	家庭很和睦					
10	有困难时, 可以向家人求助					
11	家庭成员具有相似的价值观和信念					
12	我们家庭有明确的家庭价值观和家规					
13	我可以跟家人谈很私人的事情					
14	家庭成员互相呵护对方					
15	家里出现问题时, 每个家庭成员都一起承担责任					
16	家庭成员互相尊重					
17	家庭成员不说伤害对方的话					
18	每个家庭成员对家庭很忠诚					
19	解决问题时, 考虑到各个方面					
20	解决问题时, 每个家庭成员都提出自己的意见					
21	家庭成员理解对方的感情					
22	家庭成员对对错的意见一致					
23	家庭成员有什么需要, 当面说.					
24	家庭成员互相很关心					
25	每个家庭成员对人生最重要的事情有一致的意见					
26	我们倾听对方的话					
27	一个家庭成员有难时, 其他人都知道					
28	家庭成员意见分歧很容易克服					
29	我们家有特有的传统					
30	在家里, 每个家庭成员可以自由表达自己的想法					
31	家庭成员互相很真实					

32	家庭成员的爱好相同					
33	能把向对方的爱表达出来					
34	一起建立家规和价值观					

Ⅲ. 以下是关于您的个人信息, 请回答.

1. 您的年龄? ( )岁

2. 您的国籍

- ① 中国朝鲜族 ② 中国汉族 ③ 日本 ④ 越南 ⑤ 菲律宾 ⑥ 其它( )

3. 您的学历 ( )

- ① 中学毕业以下 ② 高中毕业 ③ 大学毕业 ④ 研究生毕业

4. 丈夫的学历( )

- ① 中学毕业以下 ② 高中毕业 ③ 大学毕业 ④ 研究生毕业

5. 结婚有多久了? ( )年 ( )个月

6. 您和丈夫的职业

本人( )

- ① 无职 ② 家庭主妇 ③ 办公 ④ 专职 ⑤ 营业  
⑥ 技术 ⑦ 工厂 ⑧ 其他( )

7. 您有几个子女? 儿子( )名, 女儿( )名, 无子女( )

8. 现婚姻状况( )

- ① 已婚 ② 分居 ③ 离婚 ④ 丧偶 ⑤ 其他

9. 您的家庭类型是( )

- ① 夫妻俩 ② 夫妻和子女 ③ 公婆+夫妻+子女 ④ 公婆+夫妻 ⑤ 其他

10. 您的韩国语水平是( )



## \* BẢNG CÂU HỎI \*

(베트남)

Thân chào các bạn

Cám ơn các bạn đã dành thời gian quý báu cho chúng tôi.

Bảng câu hỏi này được lập ra là quá trình để chuẩn bị cho luận án học vị tiến sĩ của viện đại học 『nghiên cứu về đặc tính sinh hoạt gia đình và y tế gia đình của phụ nữ di trú kết hôn』

Nội dung trả lời của bạn được bảo mật, chúng tôi hứa rằng chỉ để làm tài liệu cơ bản cho công việc nghiên cứu hạnh phúc quốc tế hôn nhân.

Yêu cầu các bạn trả lời trung thực cho từng câu hỏi để công việc nghiên cứu có hiệu quả cao.

Mong rằng các bạn hợp tác trả lời bảng điều tra câu hỏi này, một lần nữa chúng tôi xin chân thành cảm ơn các bạn đã hỗ trợ.

Tháng 06 năm 2010.

Viện đại học nữ Sungshin

Người nghiên cứu Park Sun Min

I. Sau đây là câu hỏi có liên quan đến người xung quanh, hoặc tổ chức. Xin hãy đọc kỹ từng câu hỏi, đánh dấu  $\checkmark$  vào câu trả lời bạn suy nghĩ thích hợp.

1. Sau đây là các nhóm hoặc nhiều người được chỉ định, mức độ bạn tin cậy thế nào?

Câu hỏi	Rất không tin	Nói chung không tin	Bình thường	Nói chung tin	Rất tin
1) Gia đình nhà chồng					
2) Gia đình nhà vợ					
3) Bạn bè tại quê nhà.					
4) Người hàng xóm					
5) Đồng nghiệp					
6) Người lạ (người Hàn quốc)					
7) Người lạ (Người nước ngoài)					

2. Sau đây là các tổ chức đang hoạt động hoặc người hướng dẫn, bạn tin cậy ở mức độ nào?

Người	Rất không tin	Nói chung không tin	Bình thường	Nói chung tin	Rất tin
1) Quốc hội lập pháp và hội đồng địa phương.					
2) Bộ trưởng chính phủ trung ương và phó bộ trưởng					
3) Thống đốc của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hoặc thị trưởng, tộc trưởng,					

4) Giáo viên					
5) Giáo sư đại học					
6) Quan tòa					
7) Chủ quản lý tập đoàn					
8) Cán bộ liên hiệp lao động					
9) Chỉ huy quân đội					
10) Bác sĩ					
11) Đồn cảnh sát					
12) Người tín đạo (Đạo tin lành, Đạo công giáo, Phật v.v..)					
13) Nhà báo					
14) Nhân viên xã hội					

**3. Bạn suy nghĩ thế nào về quá trình giải quyết các chính sách gia đình đa văn hóa ở Hàn Quốc?**

Nội dung	Hoàn tòn khôn g đúng	Khôn g đúng	Bình thườn g	Đún g	Rất đúng
1) Giai đoạn giải quyết chính sách gia đình đa văn hóa là hợp lý.					
2) Quá trình giải quyết các chính sách gia đình đa văn hóa phải được công khai rõ ràng					
3) Về quyết định chính sách đa văn hóa phải có ý kiến phản ánh của người dân.					

4. Trường hợp bạn xảy ra chuyện sau đây, bạn có nhận được tư vấn hoặc giúp đỡ của từng người dưới đây không? Xin hãy đọc từng câu hỏi, đánh dấu  $\checkmark$  cho câu trả lời thích hợp.

Nội dung	Gia đình và bà con		Bạn bè tại quê nhà		Hàng xóm		Hợp nhóm tự nỗ lực	
	Được giúp đỡ	Không được giúp đỡ	Được giúp đỡ	Không được giúp đỡ	Được giúp đỡ	Không được giúp đỡ	Được giúp đỡ	Không được giúp đỡ
1) Trong gia đình khi có việc như cưới hỏi hoặc tang lễ v.v..								
2) Trong gia đình đột nhiên có người bệnh								
3) Trong gia đình khi cần tiền gấp								
4) Khi cần giúp đỡ về việc làm hoặc kinh doanh								
5) Khi cần tư vấn về vấn đề lo lắng nghiêm trọng của cá nhân.								
6) Ngày thường khi cần người trò chuyện về sự lo lắng hoặc vấn đề nhỏ nhất.								

5. Bạn đang tham gia các loại hình tổ chức được trình bày theo từng loại sau đây. Yêu cầu bạn đánh dấu về có hay không tham gia mỗi loại hình tổ chức và tham gia tích cực ở mức độ nào.

Tổ chức và cuộc họp	Có hoặc không tham gia.	
	Không tham gia	Tham gia
1) Hợp dân phố/ hợp hàng xóm		
2) Sở thích/ văn hóa/ cuộc họp văn học thuật		
3) Tổ chức tôn giáo		
4) Hội/ cuộc họp thân thiện		
5) Khác ( )		

6. Hy vọng bạn trả lời có hay không tham gia chương trình sau đây và mức độ hài lòng của bạn. Xin hãy đánh dấu  $\surd$  cho câu trả lời thích hợp.

Phân loại	Có hoặc không tham gia	
	Chưa từng tham gia	Tham gia
Lớp học tiếng Hàn	①	②
Lớp học vi tính	①	②
Lớp học nấu ăn	①	②
Giáo dục điển lịch	①	②
Kinh nghiệm cuộc sống (Vào ngân hàng, trạm y tế, chợ, v.v..)	①	②
Giáo dục sở thích cuộc sống (nghệ thuật xếp giấy, nghệ thuật làm xà phòng, trang trí hoa v.v..)	①	②
Giáo dục lễ nghi truyền thống (cách mặc áo y phục truyền thống Hàn, phương cách lạy)	①	②
Du lịch khu di tích (đền chùa v.v..)	①	②
Người cố vấn(mentor), liên kết người nhận sự cố vấn(mentee)	①	②
Giáo dục quan hệ vợ chồng, quan hệ gia đình	①	②
Cuộc họp nhóm tự lực theo từng quốc gia và người chồng	①	②
Giáo dục năng khiếu, tư vấn việc làm	①	②
Tư vấn (cá nhân, tập thể, tư vấn pháp luật v.v..)	①	②
Phòng hát (hợp xướng)	①	②
Khóa hỗ trợ (luong thực, quần áo, v.v..)	①	②

Dịch vụ gia đình (quét dọn, giặt ủi, chuẩn bị bữa ăn v.v..)	①	②
Tư vấn (lo lắng, mâu thuẫn, sức khỏe tinh thần v.v..)	①	②
Hành hạ hoặc tư vấn bạo lực gia đình	①	②
Chăm sóc con cái và hỗ trợ giáo dục	①	②
Tư vấn bố mẹ, giáo dục bố mẹ	①	②
Hình thành sự gắn gũi giữa mẹ và con.	①	②
Phòng học yoga sức khỏe (chăm sóc thể lực)	①	②
Chung chỉ giáo dục về năng khiếu (uốn tóc, chung chỉ nấu ăn v.v..)	①	②
Kiểm tra sức khỏe và hỗ trợ y tế	①	②
Ứng dụng dịch vụ thông phiên dịch.	①	②
Dịch vụ đến tận nhà (giáo dục trẻ con, tiếng Hàn)	①	②

**II. Sau đây là câu hỏi về quan hệ gia đình bạn. Xin hãy đánh dấu  $\surd$  cho câu trả lời thích hợp.**

Số	Câu hỏi	Hoàn tòan không đúng	Khôn g đúng lắm	Bình thườn g	Nói chung đúng	Luôn đúng
1	Việc trò chuyện cùng người trong gia đình rất vui.					
2	Làm mọi việc vì lợi ích cho người trong gia đình.					
3	Khi giải quyết vấn đề, tất cả mọi người trong nhà đều luôn nỗ lực để tìm phương sách giải quyết					
4	Người trong gia đình tôi luôn cởi mở với nhau					
5	Người trong gia đình tôi có cảm giác thiện cảm hơn đối với người khác.					
6	Nếu có vấn đề khó khăn xảy ra, người trong gia đình hợp lực với nhau để giải quyết.					
7	Việc cùng mọi người trong gia đình giải quyết vấn đề rất dễ.					
8	Gia đình tôi luôn tin tưởng nhau và không che giấu, tất cả mọi việc đều thổ lộ ra.					
9	Gia đình tôi luôn hòa thuận					
10	Khi có việc khó khăn, có thể nhờ sự giúp đỡ của gia đình					
11	Gia đình tôi có giá trị quan tương đồng và lòng tin lẫn nhau.					
12	Giá trị quan và quy tắc của gia đình tôi rất rõ ràng.					
13	Vấn đề cá nhân của bản thân có thể nói với người trong gia đình					

14	Gia đình tôi luôn đùm bọc lẫn nhau					
15	Khi gia đình có vấn đề, tất cả người trong gia đình đều có trách nhiệm ngang nhau					
16	Gia đình tôi luôn tôn trọng lẫn nhau					
17	Chúng tôi không coi nhẹ lời nói của nhau					
18	Chúng tôi luôn trung thành với gia đình mình.					
19	Chúng tôi luôn nỗ lực giải quyết vấn đề với nhiều góc độ. .					
20	Khi có quyết định bất kỳ việc nào đó, tất cả người trong gia đình đều có ý kiến.					
21	Gia đình tôi hiểu tình cảm lẫn nhau.					
22	Gia đình tôi luôn thống nhất về vấn đề đúng và sai. .					
23	Khi gia đình tôi có muốn một điều gì đó, luôn nói trực tiếp.					
24	Gia đình tôi trông thấy sự quan tâm lẫn nhau.					
25	Gia đình tôi suy nghĩ có được cuộc sống rất quan trọng nên luôn thống nhất với nhau trong bất kỳ mọi việc.					
26	Chúng tôi luôn lắng nghe với nhau một cách cẩn thận.					
27	Khi một thành viên trong gia đình có khó khăn, thành viên khác trong gia đình cũng phải biết.					
28	Khắc phục sự khác biệt ý kiến giữa người trong gia đình tôi rất dễ.					
29	Chỉ người trong gia đình tôi có truyền thống này.					

30	Gia đình tôi có thể tự do bày tỏ cảm giác lẫn nhau.					
31	Gia đình tôi ngay thật với nhau					
32	Sở thích và sự quan tâm của gia đình tôi giống nhau.					
33	Chúng tôi bày tỏ tình cảm lẫn nhau.					
34	Chúng tôi cùng nhau xây dựng giá trị quan và quy tắc của gia đình.					

**III. Sau đây là câu hỏi về cá nhân bạn. Xin hãy đánh dấu  $\checkmark$  cho câu trả lời thích hợp.**

**Xin hãy viết ra chi tiết trong ngoặc ( )**

1. Bạn bao nhiêu tuổi? ( ) tuổi

2. Bạn là người nước nào?

- ① Người Trung quốc      ② Người Trung chủng tộc Hàn      ③ Nhật  
 ④ Việt Nam      ⑤ Philippin      ⑥ Khác( )

3. Bạn học trường chính quy tổng cộng mấy năm? (Tính từ tiểu học) ( ) năm

4. Bạn kết hôn được mấy năm? ( ) năm ( ) tháng

5. Nghề nghiệp của bạn và chồng là gì? ( ) Xin hãy đánh số thích hợp vào trong ngoặc.

Bản thân ( )

- ① Không có nghề      ② Nội trợ      ③ Văn phòng      ④ Chuyên gia      ⑤ Tự làm chủ  
 ⑥ Kỹ sư      ⑦ Nhà máy      ⑧ Khác ( )

6. Bạn có bao nhiêu đứa con?

Trai( ) người, Gái( ) người, Không có con cái ( )

7. Tình trạng hôn nhân của bạn hiện nay?

- ① Chưa kết hôn      ② Ly thân      ③ Ly hôn      ④ Chết      ⑤ Khác

8. Hiện nay, bạn đang sống với ai trong gia đình?

①Vợ chồng ②Vợ chồng và con ③Bố mẹ chồng, vợ chồng và con ④Bố mẹ chồng và vợ chồng ⑤Khác

9. Trình độ tiếng Hàn của bạn ở mức độ nào?

- ①Gần như không biết gì. ②Nói được các từ đơn giản  
③Có khả năng giao tiếp ngắn việc cần thiết trong sinh hoạt.  
④Gần như không có trở ngại trong mọi tình huống giao tiếp.

10. Tổng thu nhập hàng tháng của bạn? (Số tiền trừ tiền thuế thu nhập) là bao nhiêu?

- ①Không có thuế thu nhập ②Dưới 490 nghìn won  
③Từ 500~990 nghìn won ④Từ 1 triệu ~1triệu 490 nghìn won  
⑤Từ 1triệu 500~1triệu 990 nghìn won ⑥2 triệu ~2 triệu 490 nghìn won  
⑦2 triệu 500~2triệu 990 nghìn won ⑧3triệu~3triệu 990 nghìn won  
⑨4 triệu ~4 triệu 990 nghìn won ⑩Trên 5 triệu won ⑪Không biết rõ.

11. Tôn giáo của bạn và chồng là gì? ( )Xin hãy điền số thích hợp trong ngoặc.

Bản thân( )

- ①Không có đạo ②Đạo tin lành ③Công giáo ④Phật ⑤Đạo Hindu  
⑥Đạo hồi giáo ⑦Đạo thống nhất ⑧Khác

**- Xin chân thành cảm ơn bạn đã trả lời hoàn thành các câu hỏi -**

## \* アンケート \*(일본)

こんにちは

お忙しい中、お時間を頂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このアンケートは大学院 博士學位の論文を準備する課程として『女性結婚移民者の家族生活特性と家族健康に関する研究』のために製作されたものです。

みなさんに答えて頂く内容は秘密が保証され、幸せな國際結婚のための研究の基礎資料としてだけ使用する事を約束致します。

一つの質問にももれがないように率直に答えて頂ければ研究に多くの助けになります。

出きる限りアンケートにご協力して頂ける事を願い、ご協力して頂ける方には本当に感謝致します。

2010年 6月

誠信女子大學 一般大学院  
研究者 パク ソンミン

I. 次にあなたの周囲の人達または機関に関する質問です。

各質問をよく読んで該当するところに√の印をつけてください。

1. あなたは次に指示された集団や人達をどれだけ信頼していますか？

質問事項	全然信頼 していな い	ほとんど 信頼して いない	普通	大体信頼 している	とても信 頼してい る
1) 嫁ぎ先の家族					
2) 実家の家族					
3) 母国の友だち					
4) 近所の人					
5) 職場の同僚					
6) 見知らぬ人(韓国人)					
7) 見知らぬ人(外国人)					

2. あなたは次の機関を運営したり導いている人に対しどの程度信頼していますか？

人	全然信 頼して いない	ほとん ど信頼 してい ない	普通	大体信 頼して いる	とても 信じて いる
1) 国会議員および地方議会議員					
2) 中央政府長官および次官					
3) 地方政府道知事,市長,郡守					
4) 教師					
5) 大学教授					
6) 裁判官					
7) 大企業経営主					
8) 労働組合幹部					
9) 軍隊の将軍					
10) 医師					
11) 警察官					
12) 宗教人(教会,聖堂,寺など)					
13) 言論人					
14) 社会福祉士					

3. あなたは我が国の多文化政策の決定過程に対しどう思いますか？

内容	全く そうでない	そうでない	普通	そうだ	とても そうだ
1) 多文化政策の決定手続きが合理的だ。					
2) 多文化政策の決定過程が透明に公開されている					
3) 多文化政策の決定で国民の意思が反映されている。					

4. あなたは次のような問題が生じた場合、次の各人達に相談や助けを受けますか？  
各質問をよく読んで該当する所に√の印をつけて下さい。

内容	家族 および親 戚		母国の友 だち		近所の人		自助グル ープ	
	助け を受 ける	助け を受 けら れな い	助け を受 ける	助け を受 けら れな い	助け を受 ける	助け を受 けら れな い	助け を受 ける	助け を受 けら れな い
1) 親戚の結婚式や葬式などの行事がある時								
2) 家の中で急な患者がでた時								
3) 家の中で急にお金が必要な時								
4) 職業や事業上の助けが必要な時								
5) 個人的に深刻な悩みや問題相談が必要な時								
6) 日常的なささいな問題や悩みの対話相手が必要な時								

5. 次にあなたが参加している色々な団体を類型別に提示したものです。それぞれの種類の団体に対する参加の有無と参加している団体にどの程度積極的に参加しているのかを表わして下さい。

団体および集い	参加の有無	
	参加しない	参加する
1) 町内会/自助グループ		
2) 趣味/文化/学術の集い		
3) 宗教団体		
4) 相扶相助会/親睦会		
5) その他 ( )		

6. 次のようなプログラムの参加の有無と満足度に対し答えて下さい。  
該当する番号に√の印をつけて下さい。

区分	利用の有無	
	利用したことがない	利用した
A.韓国語教室	①	②
B.コンピューター教室	①	②
C.料理教室	①	②
D.演劇教育	①	②
E. 生活体験 (銀行、保健所、市場での買い物など)	①	②
F. 趣味生活教育 (韓紙工芸、石鹸工芸、生け花など)	①	②
G. 伝統作法教室(韓服の着方、お辞儀の仕方)	①	②

H. 遺跡地の探検(お寺など)	①	②
I. 教える人と学ぶ人の連結	①	②
J. 夫婦関係, 家族関係教育	①	②
K. 夫および国家別自助グループ	①	②
L. 開業(技能) 教育, 就職相談	①	②
M. 相談(個別, 集団, 法律相談など)	①	②
N. 歌(合唱団)教室	①	②
O. 物品支援(食料品, 衣料など)	①	②
P. 家事の奉仕(掃除, 洗濯, 食事準備など)	①	②
Q. 相談(悩み, 葛藤, 精神健康など)	①	②
R. 虐待または家庭暴力相談	①	②
S. 子供の世話および保育支援	①	②
T. 父母相談, 親教育	①	②
U. おかあさんとの親密感の形成	①	②
V. 健康的なヨガ教室(体力作り)	①	②
W. 技能師資格の教育(美容, 料理師資格証)	①	②
X. 健康診断および医療支援	①	②
Y. 通訳サービス活用	①	②
Z. 訪ねて行く訪問サービス(児童養育, 韓国語)	①	②

Ⅱ.次にあなたの家族関係に対する質問項目です。

該当する所に√の印をつけて下さい。

番号	質問事項	全く そうで ない	別に そう では ない	まあ まあ そう だ	大体 そう だ	いつ もそ うだ
1	私の家族は共に対話する事を楽しむ。					
2	私達の家族はお互いのために物事を行う。					
3	問題解決する時,家族皆で最善の解決策になるように努力する。					
4	私の家族はお互いに正直だ。					
5	私の家族は他の家族より家族どうしでより親近感を感じる。					
6	難しい問題が生じた場合は家族どうし協力して解決する。					
7	家族が一緒にすることを決めることは非常にやさしい。					
8	私の家族はお互い信じ隠し事がなく打ち明けあいながら暮している。					
9	私の家族は和やかだ。					
10	難しいことがある時は家族に助け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11	私の家族は互いに似た価値観と信念を持っている。					
12	私の家族の価値観と規則は明確だ。					
13	自分自身の個人的な問題を家族に話せる。					
14	私の家族はお互いをかばいあう。					
15	家族に問題が生じた時は家族皆が責任を同等に負う。					
16	私の家族はお互いを尊重している。					

17	私達はお互いに無視する言葉を使わない。					
18	私の家族は家庭に忠実だ。					
19	私達は問題を色んな角度で解決しようと努力する。					
20	ある決めることがある時には家族皆が意見を提示する。					
21	私の家族はお互いの感情を理解する。					
22	私の家族は正しい、正しくない事に対して一致する。					
23	私の家族は望むものがある時には直接話す。					
24	私の家族はお互いに対して十分な関心を見せる。					
25	私の家族は人生において重要だと考える事が何かに対してお互いに一致する。					
26	私達はお互いの話を注意深く聞く。					
27	家族の中で悩んでいる家族の一員がいる時、家族の他の一員も知っている。					
28	私の家族の間の意見の相違は克服しやすい。					
29	私達 家族だけの伝統がある。					
30	私の家族はお互いの感情を自由に表現することができる。					
31	私の家族はお互いに誠実だ。					
32	私の家族は関心事と趣味が同じだ。					
33	私はお互いに対して愛情表現をする。					
34	私は家族の規則や価値観を共に作る。					

Ⅲ. 次にあなたの個人的事項に対する質問です。 該当欄に√の印をつけ,( )の中に具体的に書いてください。

- 1.あなたの年齢は? ( )才
- 2.あなたの母国国籍は?
  - ①中国同胞②中国漢族③日本④ベトナム⑤フィリピン⑥その他( )
- 3.あなたは正規の学校に通った数年は全部で何年ですか?(小学校から) ( )年
- 4.あなたは結婚して何年目になりますか? ( )年( )ヶ月
- 5.あなたと夫の職業は? ( )の中に該当番号を記入して下さい。  
本人( )
  - ①無職 ②家庭主婦 ③事務職 ④専門職
  - ⑤自営業 ⑥技術職 ⑦生産職 ⑧その他( )
- 6.あなたの子供の数は? 息子( )人,娘( )人,子供がいない( )
- 7.あなたの現在結婚形態は?
  - ①既婚②別居③離婚④死別⑤その他
- 8.あなたが現在生活している家族の形態は?
  - ①夫婦②夫婦と子供③舅姑+ 夫婦+ 子供④舅姑+ 夫婦⑤その他
- 9.あなたの韓国語能力水準は?
  - ①ほとんど理解できない ②簡単な単語を話す程度
  - ③生活に必要な短い対話が可能な程度
  - ④ほとんどすべての状況で不便(不愉快)さなしで話せる程度
- 10.あなたの一ヶ月平均総所得(税金控除以前の金額)はどれくらいになりますか?
  - ①所得なし ②49万ウォン以下 ③50~99万ウォン ④100~149万ウォン
  - ⑤150~199万ウォン ⑥200~249万ウォン ⑦250~299万ウォン
  - ⑧300~399万ウォン ⑨400~499万ウォン ⑩500万ウォン以上 ⑪よく分からない
- 11.あなたと夫の宗教は何ですか?( )の中に該当番号を記入して下さい。  
本人( ), 夫( )
  - ①宗教なし ②新教 ③カトリック ④仏教 ⑤ヒンズー教 ⑥イスラム教
  - ⑦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統一教) ⑧その他

-最後まで答えて頂きまして感謝申し上げます-

## **\* Kuesioner \*(인도네시아)**

Dengan hormat,

Saya mengucapkan terima kasih atas waktu yang telah diberikan.

Kuesioner ini (penelitian mengenai karakteristik dan kesehatan keluarga perkawinan campuran dalam kehidupan sehari-hari) dibuat sebagai proses dalam menyelesaikan tugas akhir saya dalam perolehan gelar Doktor.

Jawaban yang anda berikan akan dijamin kerahasiaannya, dan hanya digunakan sebagai bahan dasar penelitian mengenai kebahagiaan perkawinan lintas bangsa.

Akan sangat membantu penelitian ini apabila anda menjawab semua pertanyaan dengan sejujur-jujurnya.

Sekali lagi kami mengucapkan terima kasih yang sebesar-besarnya atas dukungan saudara dalam pengisian kuesioner ini.

Pebruari 2010

Program Pasca Sarjana SungShin Women's University  
Peneliti, Park Seon Min

I. Berikut ini adalah pertanyaan mengenai orang dan lembaga disekitar anda. Bacalah pertanyaan dengan baik dan berilah tanda centang (√) pada jawaban yang paling tepat.

1. Seberapa besarkah anda mempercayai kelompok atau orang-orang yang tersebut pada kolom dibawah ini?

Pertanyaan	sangat tidak percaya	tidak percaya	biasa	percaya	sangat percaya
1) Keluarga mertua					
2) Keluarga asal					
3) Teman senegara					
4) Tetangga					
5) Teman kerja					
6) Orang tak dikenal (Warga Korea)					
7) Orang tak dikenal (Warga asing)					

2. Seberapa besarkah kepercayaan anda terhadap orang-orang yang memimpin dan mengoperasikan lembaga yang disebut dibawah?

Orang-orang	sangat tidak percaya	tidak percaya	biasa	percaya	sangat percaya
1) Majelis Nasional dan dewan lokal					
2) Menteri dan wakil menteri pemerintahan pusat					
3) Gubernur, walikota, bupati pemerintah daerah					
4) Pengajar					

5) Dosen					
6) Hakim					
7) Perusahaan besar					
8) Pejabat serikat buruh					
9) Tentara					
10) Dokter					
11) Polisi					
12) Ulama					
13) Jurnalis					
14) Pekerja sosial					

**3. Bagaimanakah pendapat anda terhadap proses pembuatan kebijakan multikultural di negara Korea ini?**

Hal	sangat tidak benar	tidak benar	biasa	benar	sangat benar
1) Prosedur pengambilan keputusan mengenai kebijakan multikultural adalah rasional.					
2) Proses pengambilan keputusan kebijakan multikultural diumumkan kepada masyarakat dengan transparan.					
3) Pengambilan keputusan kebijakan multikultural berdasarkan ide masyarakat.					

4. Apakah anda menerima bantuan/konsultasi dari orang-orang yang tertera pada kolom dibawah ini, ketika anda mengalami hal/kesulitan seperti yang tertulis dibawah ini? Bacalah pertanyaan dengan baik dan berilah tanda centang (✓) pada jawaban yang paling tepat.

Hal	Keluarga & saudara		Teman senegara		tetangga		perkum-pulan	
	mendapat bantuan	tidak mendapat	mendapat bantuan	tidak mendapat	mendapat bantuan	tidak mendapat	mendapat bantuan	tidak mendapat
1) Ketika ada upacara, baik suka maupun duka seperti upacara perkawinan, kematian dll.								
2) Ketika tiba-tiba ada yang sakit dalam keluarga								
3) Ketika dalam keluarga membutuhkan uang mendadak								
4) Ketika membutuhkan bantuan dalam pekerjaan atau bisnis.								
5) Ketika membutuhkan konsultasi dalam mengatasi kekhawatiran atau masalah serius.								
6) Ketika memiliki masalah sehari-hari atau kekhawatiran dan membutuhkan teman bicara.								

5. Berikut ini ditampilkan beberapa jenis kelompok yang anda ikuti. Berilah tanda tentang ada atau tidaknya keikutsertaan anda pada masing-masing jenis kelompok dan seberapa aktif keikutsertaan anda.

Organisasi dan pertemuan	Keikutsertaan	
	tidak ikut	ikut
1) Temu warga		
2) Pertemuan alumni/hobi/seni		
3) Organisasi agama		
4) Arisan		
5) Lainnya ( )		

6. Tolong berikan jawaban tentang ada atau tidaknya keikutsertaan anda pada kelompok-kelompok berikut dan tingkat kepuasannya. Berilah tanda pada nomer sesuai jawaban yang paling benar.

Pembagian	ada tidaknya keikutsertaan	
	tidak pernah ikut	ikut
A. Kelas bahasa Korea	①	②
B. Kelas komputer	①	②
C. Kelas masak	①	②
D. Kelas seni peran	①	②
E. Pengalaman dalam kehidupan (Bank, puskesmas, memutar pasar dll)	①	②
F. Kelas seni&kerajinan (hobi) (Kertas tradisional Korea, kerajinan sabun, merangkai bunga dll)	①	②
G. Pendidikan etiket tradisional (pemakaian baju tradisional Korea, pemberian hormat)	①	②
H. Kunjungan ke tempat bersejarah (kuil dll)	①	②

I. Membentuk hubungan pembimbing dan anak bimbing	①	②
J. Pendidikan suami istri dan keluarga	①	②
K. Pertemuan bagi suami dan pertemuan pengembangan diri untuk masing-masing negara	①	②
L. Pendidikan ketrampilan, konsultasi pekerjaan	①	②
M. Konsultasi (individu, kelompok, konsultasi hukum dll)	①	②
N. Kelas vocal (vocal group)	①	②
O. Bantuan produk(makanan, pakaian dll)	①	②
P. Tenaga sosial untuk keluarga (bersih-bersih, pencucian, menyiapkan makanan, dll)	①	②
Q. Konsultasi(kekhawatiran, perselisihan, kesehatan mental, dll)	①	②
R. Konsultasi mengenai penyiksaan atau kekerasan rumah tangga	①	②
S. Bantuan biaya perawatan dan penjagaan anak	①	②
T. Konsultasi dan pendidikan orang tua	①	②
U. Membentuk keakraban antara ibu dan anak	①	②
V. Kelas yoga (peningkatan stamina)	①	②
W. Pendidikan untuk mendapatkan sertifikat (sertifikat kecantikan, juru masak)	①	②
X. Bantuan kesehatan dan pemeriksaan kesehatan	①	②
Y. Memanfaatkan pelayanan alih bahasa	①	②
Z. Pelayanan berupa kunjungan ke rumah (pendidikan anak, bahasa Korea)	①	②

II. Berikut ini adalah pertanyaan mengenai hubungan kekeluargaan. Berilah tanda centang (√) pada jawaban yang sesuai.

No	Pertanyaan	sangat tidak benar	tidak benar	biasa	benar	sangat benar
1	Keluarga saya menikmati percakapan bersama					
2	Keluarga saya saling mendukung satu sama lain					
3	Saat menyelesaikan masalah, anggota keluarga bersama-sama mencari jalan penyelesaian yang terbaik.					
4	Keluarga saya saling jujur satu sama lain.					
5	Keluarga saya merasakan persahabatan yang lebih diantara sesama anggota keluarga dibandingkan dengan orang lain.					
6	Ketika muncul masalah yang sulit, keluarga saya bersatu dalam menyelesaikannya.					
7	Sangatlah mudah bagi kami untuk mengambil keputusan dalam melakukan suatu kegiatan bersama.					
8	Keluarga saya saling percaya, tidak menutup-nutupi dan selalu berbagi.					
9	Keluarga saya rukun.					
10	Saat ada kesulitan, bisa mendapatkan bantuan dari keluarga.					
11	Keluarga saya memiliki nilai-nilai dan kepercayaan yang hampir sama satu sama lain.					
12	Keluarga kami memiliki nilai-nilai dan aturan yang jelas.					
13	Saya dapat mengungkapkan					

	masalah pribadi kepada keluarga.					
14	Keluarga saya saling melindungi.					
15	Saat keluarga memiliki masalah, semua berbagi tanggung jawab dengan sama rata.					
16	Keluarga saya saling memperhatikan.					
17	Kami tidak menggunakan kata-kata yang dapat merendahkan satu sama lain.					
18	Keluarga saya setia pada rumah tangga kami.					
19	Kami berusaha menyelesaikan masalah dengan mempertimbangkan berbagai sudut.					
20	Saat perlu mengambil keputusan, semua anggota keluarga memberikan pendapatnya.					
21	Keluarga kami saling mengerti perasaan satu sama lain.					
22	Keluarga saya sepakat dalam hal yang benar dan yang salah.					
23	Ketika keluarga saya memiliki keinginan, dapat mengatakannya secara langsung.					
24	Keluarga saya saling memberikan perhatian yang cukup satu sama lain.					
25	Keluarga saya sepakat terhadap sesuatu yang dianggap penting dalam hidup.					
26	Kami saling memperhatikan perkataan satu sama lain.					
27	Anggota keluarga yang lain juga tahu apabila ada anggota keluarga yang sedang susah.					
28	Mudah untuk menyelesaikan adanya					

	perbedaan pendapat diantara anggota keluarga.					
29	Ada tradisi khusus yang hanya ada di keluarga kami.					
30	Keluarga saya dapat mengekspresikan perasaan dengan bebas satu sama lain.					
31	Keluarga saya bersungguh-sungguh satu sama lain.					
32	Keluarga saya memiliki minat dan hobi yang mirip.					
33	Kami saling menunjukkan kasih sayang kami satu sama lain.					
34	Kami membuat bersama nilai-nilai dan peraturan dalam keluarga kami.					

III. Berikut ini adalah pertanyaan mengenai informasi pribadi anda. Berilah tanda centang (√) pada jawaban yang sesuai, dan isilah catatan khusus pada tanda kurung ( ).

1. Usia anda? ( ) tahun

2. Negara asal anda?

①China keturunan Korea    ②China    ③Jepang    ④Vietnam    ⑤Filipina    ⑥Lainnya( )

3. Berapa tahun pendidikan reguler yang anda tempuh? (terhitung sejak SD) ( ) tahun

4. Sudah berapa tahunkah anda menikah? ( ) tahun, ( ) bulan

5. Pekerjaan anda dan suami? Tulislah angka pada kolom yang telah disediakan. Anda( )

①Tidak bekerja    ②ibu rumah tangga    ③Pegawai kantor    ④Tenaga profesional    ⑤Wiraswasta    ⑥teknisi    ⑦produksi    ⑧Lainnya ( )

6. Jumlah anak anda? anak laki( )orang, anak perempuan( )orang, tidak ada( )

7. Kondisi perkawinan anda sekarang ?

①Menikah      ②Pisah      ③Cerai      ④Pisah karena meninggal      ⑤Lainnya

8. Kondisi kehidupan keluarga anda sekarang?

①suami istri                              ②suami istri dan anak                      ③mertua+ suami istri+ anak  
④mertua+ suami istri              ⑤Lainnya

9. Kemampuan bahasa Korea anda?

①hampir tidak mengerti                              ②dapat mengucapkan kata-kata sederhana  
③dapat mengucapkan percakapan pendek yang diperlukan dalam kehidupan sehari-hari  
④Dapat berbicara dengan baik tanpa ada kendala dalam kehidupan sehari-hari

10. Berapakah penghasilan rata-rata keluarga anda sebulan (sebelum dipotong pajak)?

①Tidak ada    ②dibawah 490.000won    ③500.000~990.000won  
④1.000.000~1.490.000won    ⑤1.500~1.990.000won  
⑥2.000.000~2.490.000won    ⑦2.500.000~2.990.000won  
⑧3.000.000~3.990.000won    ⑨4.000.000~4.990.000won    ⑩diatas 5.000.000won  
⑪ tidak tahu

11. Apakah agama yang dianut oleh anda dan suami? Tulislah nomer jawaban pada kolom ( )

Anda ( ), suami ( )

①Tidak beragama      ②Protestan      ③Katolik      ④Buddha      ⑤Hindu  
⑥Islam                      ⑦Gereja Unifikasi Dunia (Gereja Unifikasi)      ⑧Lainnya

- Terima kasih telah menjawab semua pertanyaan -